발 간 등 록 번 호
74-6440065-000013-14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http://council.chungnam.go.kr

제9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이준우 의장 연설문집

2012. 7. 12 ~ 2014. 6. 30



충남도청행정자료실
AM019999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장 서
등록번호
등록일 년 월 일
충남도행정자료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http://council.chungnam.go.kr

제9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이준우 의장 연설문집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의 장

■ 새로운 미래 100년을 여는 날 – 신청사 개청식(2013. 4. 4)





■ 새로운 미래 100년을 여는 날 – 신청사 개청식 (2013. 4. 4)









▲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2012. 7. 16.)



▲ 도청이전 특별법 조기개정 촉구 (2012. 8. 31.)



▲ 지체장애인의 날 (2012. 10. 5.)



▲ 제15회 보령머드축제 (2012. 7. 14.)



▲ 566돌 한글날 경축식 (2012. 10. 9.)



▲ 제93회 전국체전 충남선수단 결단식 (2012. 10. 8.)



▲ 뉴새마을 운동 청년창립대회 (2012. 12. 21.)



▲ 2013년도 충청남도의회 단배식(2013. 1. 28.)



▲ 2013년도 첫 본회의 기념촬영 (2013. 1. 28.)



▲ 새충남 문화대축전 (2013. 5. 31.)



▲ 제65회 충남도민체전 개막 (2013. 6. 13.)



▲ 도정 역사관 개관식 (2013. 10. 1.)

Ⅰ. 원내외 의정활동

1. 개회사

- 제255회 임시회/2012.7.20. ····· 3
- 제256회 임시회/2012.8.24. ····· 5
- 제257회 임시회/2012.10.8. ····· 8
- 제258회 정례회/2012.11.9. ····· 11
- 제259회 임시회/2013.1.18. ····· 15
- 제260회 임시회/2013.3.4. ····· 18
- 제261회 임시회/2013.4.9. ····· 21
- 제262회 임시회/2013.5.14. ····· 24
- 제263회 정례회/2013.6.24. ····· 27
- 제264회 임시회/2013.8.27. ····· 30
- 제265회 임시회/2013.10.7. ····· 34
- 제266회 정례회/2013.11.8. ····· 38
- 제267회 임시회/2014.1.20. ····· 42
- 제268회 임시회/2014.1.28. ····· 45
- 제269회 임시회/2014.4.1. ····· 49
- 제270회 임시회/2014.6.12. ····· 52

2. 그 외 활동

- 제9대 후반기 의장당선인사/2012.7.11. ····· 57
- 전국시도의장협의회 2012년도 제2차정기회/2012.9.11. ····· 59
- 2013년도 충청남도의회 의원 단배식/2013.1.28. ····· 62

• 시·군의회 의장 초청 간담회/2013.1.30. ····· 63
• 충청권 시·도 의장협의회/2013.2.19. ····· 65
• 제6차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2013.4.30. ····· 67
• 지역국회의원초청 도정간담회/2013.5.21. ····· 69
• 의정자문위원회 위촉식/2013.8.26. ····· 71
• 충남도의회 의정홍보관 개관식/2013.12.19. ····· 73
• 2013 의회사무처 결산보고회/2013.12.23. ····· 76
• 전국시도의장협의회 2014년도 제3차 임시회/2014.4.11. ····· 78

Ⅱ. 도민과 함께

▣ 2012년도

• 제15회 보령머드축제 개막식/2012.7.14. ····· 83
• 전국새농민전진대회/2012.7.26. ····· 85
• 3농혁신대학 청정수산과정 교육/2012.7.26. ····· 87
• 충남농민전진대회/2012.8.10. ····· 88
• 대한민국특전동지회 충남지부장 이·취임식/2012.8.25. ····· 90
• 충남서각예술대제전/2012.9.5. ····· 92
• 충청남도 어머니생활체육대회/2012.9.8. ····· 94
• 전국보디빌딩대회/2012.9.8. ····· 96
• 충남기업인대상 시상식/2012.9.10. ····· 98
• 충남사회복지의 날/2012.9.12. ····· 100

-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2012.9.14. ····· 102
-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2012.9.15. ····· 104
- 도덕성회복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유림지도자연수/2012.9.19. ····· 106
- 도의새마을운동촉진대회/2012.9.25. ····· 108
- 제32회전국장애인체전결단식/2012.10.4. ····· 110
- 뮤지컬 '성벽은 살아있다'/2012.10.5. ····· 112
-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2012.10.5. ····· 114
-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2012.10.5. ····· 116
- 제93회 전국체전 결단식/2012.10.8. ····· 118
- 충남지구JC특우회 우정의 날/2012.10.11. ····· 120
- 효 나눔 한마당/2012.10.13. ····· 122
- 충청남도지사기 농악대회/2012.10.14. ····· 124
- 제4회 충남농업축전/2012.16 ····· 126
- 장애인 정책 포럼/2012.10.16. ····· 128
- 사람과 벼 그리고 생명나눔 한마당/2012.10.17. ····· 130
- 바르게살기운동 전진대회/2012.10.19. ····· 132
- 국민생활체육회장기 전국 국무도 무예대회/2012.10.20. ····· 134
- 제10회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2012.10.20. ····· 136
- 임업인과의 만남/2012.10.31. ····· 138
- 녹색어머니 교통문화강좌/2012.11.6. ····· 140
- 지방정부와 지역소재 대학 상생발전 의정토론회/2012.11.6. ····· 142
- 녹색생활 실천 협약체결/2012.11.8. ····· 144
- 제4회 충남도지사배 장애인생활체육탁구대회/2012.11.9. ····· 146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2012.11.23. ····· 148
- 전국 시조창 강습회/2012.11.24. ····· 150

• 무역의 날 수출유공자 시상식/2012.12.17. ····· 152
• 제20회 충남 농어촌발전상 시상식/2012.12.20. ····· 154
• Y-SMU 충남포럼 창립대회, 뉴새마을만들기 업무협약/2012.12.21. ····· 156
• 충남 사진대전/2012.12.22. ····· 158
• 민족통일 충청남도대회 및 통일문예제전 시상식/2012.12.27. ····· 160
• 송년사/2012.12.31. ····· 162

▣ 2013년도

• 신년사/2013.1.1. ····· 165
• 대전일보사 주최 신년교례회/2013.1.2. ····· 166
• 충청남도여성계 신년교례회/2013.1.9. ····· 167
• 충우회 신년교례회/2013.1.24. ····· 169
•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회장 이취임식/2013.1.25. ····· 170
• 충남복싱연맹 회장 이취임식/2013.1.26. ····· 172
• 충남도립청양대학 학위 수여식/2013.2.14. ····· 173
• 제1회 3농혁신전진대회/2013.2.15. ····· 175
• 수산관리소 서산사무소 개소식/2013.2.18. ····· 177
• 생활개선 충청남도연합회 임원 이취임식/2013.2.27. ····· 179
• 충남도립청양대학 입학식/2013.2.28. ····· 181
• 3·1절 기념행사/2013.3.1. ····· 183
•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중앙협의회 총회/2013.3.13. ····· 185
• 장애인특장차량 키 전달식/2013.3.15. ····· 187
• 해초 박학규 선생 수덕사 특별초대전/2013.3.21. ····· 188
• 성주~청라 남북관통도로 준공식/2013.3.28. ····· 189

- 충남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전진대회/2013.4.2. ····· 190
- 충남도청 신청사 개청식/2013.4.4. ····· 192
- 제41회 보건의날 및 정신건강의 날/2013.4.8. ····· 193
- 충청남도 이·통장 체육대회/2013.4.11. ····· 195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 창립 1주년/2013.4.12. ····· 197
- 제33회 장애인의 날, 희망충남어울림축제/2013.4.19. ····· 199
- 부패없는 충남교육 만들기 의정토론회/2013.4.24. ····· 201
-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2013.5.4. ····· 203
- 제36회 지적의 날/2013.5.6. ····· 205
- 제14회 충청남도 장애인 합동결혼식/2013.5.7. ····· 207
- 제16회 전국남녀 내포제 시조경창대회/2013.5.10. ····· 209
- 제44회 충남·세종지구 JC 회원대회/2013.5.11. ····· 211
- 선생님과 '만남의 광장' 행사/2013.5.14. ····· 213
- 제12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2013.5.14. ····· 215
- 제7회 충남시각장애인 체육대회/2013.5.16. ····· 217
- 충남발전협의회 정기총회/2013.5.22. ····· 219
- 3농혁신 임산물 소득증대 교육과정/2013.5.24. ····· 221
- 공직자 한마음 다짐대회/2013.5.25. ····· 223
- 가정의 달 기념 행사/2013.5.25. ····· 225
-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지도자 한마음 전진대회/2013.5.27. ····· 227
- 새충남 문화 대축전/2013.5.31. ····· 229
- 충남장애인 체육대회/2013.5.31. ····· 230
- 제31회 전국연극제 개막식/2013.6.1. ····· 232

Contents

충청남도의회

- 제3회 전국실버 노래자랑/2013.6.2. ····· 234
- 제7회 시설입소 어르신 및 근무자 한마음대회/2013.6.4. ····· 236
- 제20회 충청남도 서예대전/2013.6.8. ····· 238
- 제9회 재인천 충남도민체육대회/2013.6.8. ····· 240
- 한국 SGI 특별 표창식/2013.6.10. ····· 242
- 제10회 은빛 페스티벌/2013.6.11. ····· 243
- 제65회 충남도민 체육대회/2013.6.13. ····· 245
-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2013.6.19. ····· 247
- 제23회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2013.6.21. ····· 249
- 여성정책개발원 개원 14주년 기념식 세미나/2013.6.21. ····· 251
- 제11회 충청남도 어머니 생활체육대회/2013.6.22. ····· 253
- 제20회 새마을여인상 시상식 및 양성평등 여성지도자 워크숍/2013.6.25. ··· 255
- 제16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마당/2013.6.26. ····· 257
- 제7회 충청남도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2013.6.29. ····· 259
- 제39회 도민합창제/2013.6.29. ····· 261
- 제30회 충청남도 여성대회/2013.7.2. ····· 263
- 제8회 충청남도 4H 한마음대회/2013.7.4. ····· 265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추진위원회 발족식/2013.7.8. ····· 267
- 생활개선충청남도연합회 화합대회/2013.7.10. ····· 269
- 제6회 충남장애인 풋살대회/2013.7.12. ····· 271
- 통일기원 대전·충청권 국민 대토론회/2013.7.16. ····· 273
- 충청남도 기독교총연합회 특별 구국기도회/2013.7.17. ····· 275
- 충청남도 4H 연합회 수련대회/2013.7.18. ····· 276
- 인성교육 범국민실천연합 충남지부 창립출범식/2013.7.20. ····· 278
- 제16회 보령머드축제 개막식/2013.7.20. ····· 280

- 제55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회/2013.7.26. ····· 282
- 머드축제기념 제74회 충청남도 남·녀 궁도대회/2013.7.28. ····· 284
- 제13회 충청남도 농업경영인 대회/2013.8.1. ····· 286
- 충청남도 보치아 실업팀 창단식/2013.8.7. ····· 288
- 충청남도 농촌지도자 하계 수련대회/2013.8.9. ····· 290
- 제12회 한국쌀전업농 충청남도대회/2013.8.27. ····· 292
- 2013년 충청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2013.8.30. ····· 294
- 제14회 국무총리배 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 개회식/2013.9.2. ····· 296
- 충청남도 새마을운동 촉진대회/2013.9.3. ····· 298
- 제14회 충남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2013.9.4. ····· 301
- 2013 이·통장 워크숍/2013.9.5. ····· 304
- 추석 인사(영상메세지)/2013.9.9. ····· 307
- 제20회 충남기업인대상 시상식/2013.9.10. ····· 309
- 제33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결단식/2013.9.12. ····· 312
-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출범회의/2013.9.13. ····· 314
- 청소년 의회교실(내포중)/2013.9.16. ····· 317
- 충청남도자율방법연합회 워크숍/2013.9.25. ····· 319
- 제10회 충남서각예술대제전/2013.9.26. ····· 321
- 2013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2013.9.27. ····· 323
- 제59회 백제문화제 개막식/2013.9.28. ····· 326
- 제12회 충청남도지사기 농악대회/2013.9.29. ····· 327
- 충청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고덕초, 구만초)/2013.9.30. ····· 329
- 충청남도정역사관 개관식/2013.10.1. ····· 332
- 2013 계룡군문화축제/2013.10.2. ····· 334
- 제1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2013.10.2. ····· 335

Contents

충청남도의회

- 보령통합RPC 유통시설 기공식/2013.10.4. ····· 338
- 제22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2013.10.11. ····· 341
- 제5회 대한민국생활음악 경연대회/2013.10.11. ····· 344
-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단 결단식/2013.10.16. ····· 346
- 2013년 충남자활한마당 대회/2013.10.17. ····· 348
- 2013 대한민국온천대축제/2013.10.17. ····· 350
- 2013 제32회 대한민국 국악제/2013.10.23. ····· 351
- 제2회 보령시 자원봉사자대회/2013.10.23. ····· 353
- 2013년도 충청남도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2013.10.25. ·· 356
- 민족통일충청남도대회 및 제44회 한민족통일문예제전 시상식/2013.10.25. ·· 358
- 제11회 교육행정연합체육대회/2013.10.26. ····· 361
- 안전문화운동추진 충청남도협의회 출범식/2013.10.28. ····· 363
- 충청남도 보육정책 평가 및 발전방안 의정토론회/2013.10.31. ····· 365
- 제5회 충남농업축전/2013.10.31. ····· 367
- 2013 바르게살기운동 보령시 협의회 회원대회/2013.11.4. ····· 370
- 대한적십자사 충남연차대회/2013.11.6. ····· 372
- 제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해단식/2013.11.6. ····· 374
- 청소년 의회교실(대명중)/2013.11.7. ····· 376
- 2013 여성지도자 워크숍/2013.11.7. ····· 380
- 제23차 충남지구JC특우회 우정의 날/2013.11.10. ····· 383
- 제43회 충청남도사진대전/2013.11.13. ····· 385
- 2013 충남축산인 한마음대회/2013.11.14. ····· 387
- 부여군 원도심 유입 대책 의정토론회/2013.11.15. ····· 389
-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단 해단식/2013.11.19. ····· 391
- 2013 행복 국제 컨퍼런스/2013.11.22. ····· 393

• 충청남도 투자유치설명회/2013.11.26. ····· 396
• 보령문화의전당 개관식/2013.11.29. ····· 398
• 제11회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2013.11.30. ····· 400
• 2013 충남자원봉사자대회/2013.12.6. ····· 402
• 제5회 충청남도지사배겸 전국장애인탁구조합선구권대회/2013.12.7. ····· 404
• 호국영웅기장 수여식/2013.12.9. ····· 406
• 2013 충청남도 생활체육 한마당대회/2013.12.17. ····· 408
• 화력발전소의 사회·경제적 피해 관련 의정토론회/2013.12.20. ····· 410
• 재인천충남도민회 제26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2013.12.23. ····· 412
• 제21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시상식/2013.12.31. ····· 414

▣ 2014년도

• 신년사/2014.1.2. ····· 419
• 대전일보사 주최 신년교례회/2014.1.2. ····· 421
•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2014.1.23. ····· 423
• 한국쌀전업농 충청남도연합회 회장 및 임원 이·취임식/2014.1.24. ····· 425
• 2014학년도 충남도립청양대학 입학식/2014.2.26. ····· 428
• 제15회 충청남도 장애인합동결혼식/2014.4.2. ····· 430
• 제34회 장애인의 날, 희망충남 어울림축제/2014.4.18. ····· 432
• 제32회 충남연극제/2014.4.24. ····· 434
• 제21회 충청남도 서예대전/2014.5.9. ····· 436
• 충남발전협의회 정기총회/2014.6.16. ····· 438
• 제11회 은빛페스티벌/2014.6.17. ····· 440

Ⅲ. 언론사 등 창간 · 발간 축사

- 내포신문 창간/2012.8.15. ····· 445
- 충남장애인신문 창간 10주년/2012.10.7. ····· 446
- 백제신문 창간 13주년/2012.11.1. ····· 447
- 내포시대 창간 2주년/2012.11.16. ····· 449
- 제16호 충남문화발간/2012.11.30. ····· 450
- 홍성신문 창간 24주년/2012.12.3. ····· 452
- 충청남도의회 60년사 발간/2013.2. ····· 454
- 보령투데이 창간 2주년/2013.4.11. ····· 456
- 부여뉴스 창간 7주년/2013.5. ····· 457
- 홍주신문 창간 6주년/2013.6.5. ····· 458
- 천안저널 창간 2주년/2013.6.21. ····· 459
- 충남장애인행복뉴스 창간 11주년/2013.7.20. ····· 460
- 굿모닝 충청 창간 1주년/2013.8.1. ····· 461
- 내포타임즈 창간 1주년/2013.8.14. ····· 462
- 중도일보 창간 62주년/2013.9.2. ····· 464
- 충남장애인신문 창간 11주년/2013.10. ····· 465
- 보령시민신문 창간 17주년/2013.10.30. ····· 466
- 계룡일보 새출범/2013.11. ····· 467
- 충남 의정회보 창간/2013.11. ····· 468
- 홍성신문 창간 25주년/2013.12.2. ····· 470
- 충남음악 60년사 발간/2013.12.13. ····· 471
- 제17호 충남문화 발간/2013.11. ····· 473

• 충청향우보 발간/2014.4. ····· 475
• 태안신문 창간 24주년/2014.5.27. ····· 477
• 21C부여신문 창간 10주년/2014.6.24. ····· 478

Ⅳ. 언론보도 기고문

• 지방자치의 주체는 지역주민이어야 한다[금강일보]/2012.11.20. ····· 481
• 내포신도시의 첫 봄을 맞으며[충청투데이]/2013.3.14. ····· 484
• 효도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충청투데이]/2013.5.1. ····· 487
• 발전소 주변 거주자에 대한 지원과 배려 필요
[시사종합신문 News21]/2013.8.7. ····· 490
• 백문이 불여일견, 의료관광객 유치 시동[충남일보]/2013.9.3. ····· 493
• 더할 나위 없는 한가위가 되려면[충청투데이]/2013.9.12. ····· 496
•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당면과제와 대안[충남일보]/2013.10.7.~8. ····· 499
• 노인문제의 해결은 효로부터 시작해야[금강일보]/2013.10.31. ····· 504
• 교육용 전기요금에 좀더 인심 써야[대전일보]/2013.11.28. ····· 507
• 여러분께 힘이 되는 충남도의회가 되겠습니다.[충남장애인신문]/2014.4.26. ··· 510

제9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2012. 7. 12 ~
2014. 6. 30

이준우 의장 연설문집

원내외 의정활동

개 회 사

제255회 임시회 <2012.7.20. 본회의장>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9대 후반기 의정의 시작

'안희정' 도지사님과 '승융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55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우리충남도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도내 피해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복구 및 지원에 전력을 다하여 주심은 물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여름에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제254회 임시회에서 신임 의장단 구성과 함께 후반기 의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9대 후반기 의정은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만들어 도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지방자치의 성숙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미국과 중국의 FTA로 인한 농업분야에 대

한 피해대책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문화에 대한 욕구 증가로 도민들의 갈망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제9대 후반기 의정은 도민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편안함을 주는 「인본의정」, 도와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의정」, 문제의 핵심을 현장에서 답을 찾는 「깨어 있는 의정」을 비전으로 삼고 착실히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민들이 도의회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 틀 속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활기찬 의정을 도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하루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도민이 부여해준 의무와 책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원구성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큰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하반기에도 도민여러분의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56회 임시회 <2012.8.24. 본회의장>

진정으로 도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야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56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현안을 꼼꼼히 챙기며 빛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수행에 전념하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0일부터 어제까지 나흘 동안 실시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비상대비 훈련인 「2012 을지연습」에 성실히 임해주신 군·경, 유관기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2일 폐막된 「2012 런던 올림픽」에서 연일 잇따른 승전보를 전하며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안겨준 대한민국 선수단과 우리지역 국가대표선수 여러분들에게도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여름 유난히 심했던 폭염에 의한 피해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지난주부터 쏟아진 폭우가 막대한 인명과 시설피해를 입혀 우리도민들을 시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가축들이 집단 폐사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유실되고, 사망자 1명, 이재민 462명이 발생하였으며, 농작물,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등의 재산피해액이 약 1백36억 원에 이르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루빨리 재해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현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하여,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폭염, 폭우, 지진, 화재 등 상황별 자연재해발생에 대비한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 시행하여 사전 재해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달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한 후반기 의회는 도민을 위하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도민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시운영체제 전환, 도정질문·교육행정 질문 방식 개선, 출석공무원의 최소화, 긴급현안질문 운영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하겠습니다.

경영의정을 강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협력과 견제의 기능에 더욱 충실함으로써 진정으로 도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말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챙겨보고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세밀히 점검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품격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도 의원님들의 알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57회 임시회 <2012.10.8. 본회의장>

태풍·폭우로 인한 농어민 피해대책 마련해야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57회 임시회를 맞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그동안 민생현장에서 지역현안을 꼼꼼히 챙겨보며 도민을 섬기기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은 물론,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연구모임과 연수, 의정토론회 등 의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 및 교육행정의 각종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유난했던 올여름 가뭄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채 아물기도 전에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강력한 태풍 덴빈, 볼라벤, 산바가 우리지역에도 몰아쳐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요즘, 태풍과 폭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와 낙과 등으로 한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과

어장피해를 입은 어민들은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 빨리 재해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상과 복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재해보상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남은 3개월은 그동안 펼쳐온 시책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년을 새로이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우리 도의 최대 역점 사업인 3농 혁신과 도청이전의 성공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다시 한 번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충남의 미래를 열어갈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우리 농산어촌을 살리기 위한 3농혁신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200만 도민과 함께 막바지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학입시를 위한 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지역 학생들이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수험생들의 건강관리와 생활지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고 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연초에 수립된 계획과 사업에 대한 행정처리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무감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안건 하나하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도정과 교육행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에도 우리의회가 200만 도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익하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요즘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감기 유의하시기 바라며, 200만 도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58회 정례회 <2012.11.9. 본회의장>

도민의 불편함에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일 년 중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立冬)을 지나,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소설(小雪)을 앞둔 겨울의 길목에서 제258회 정례회를 맞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변함없이 우리 도의회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200만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비회기 기간임에도 틈틈이 민생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현안을 꼼꼼히 챙기며, 그 어느 때 보다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초 계획했던 도정 및 교육행정의 각종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달에는 부산에서 의정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셨고, 그 어느 해보다 내용도 매우 유익하였고 알

찬 연찬회였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관계공무원과 도민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연찬회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 관계공무원과 도민 여러분께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의원으로서 품위 유지는 물론 의정 활동에도 더욱 매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행복하고 살기 좋은 충남건설'을 위한 꿈과 희망을 갖고 힘차게 출발한 임진년(壬辰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금까지 추진해 온 도정 및 교육행정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맘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매우 춥고 길 것이라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파, 폭설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한 예방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올해 유난했던 자연재해와 FTA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에 의한 피해, 인구의 고령화와 취약한 정주환경, 국내·외 경제불안 등으로 인하여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두루 살피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시설, 독거노인 등 어려운 도내 소외 계층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충남시대를 열어갈 대망의 내포신도시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환(環)황해권의 중추지역으로 도약하는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내포신도시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도 200만 도민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엊그제 대학입시를 위한 「2012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치러 질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신 선생님들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능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남은 학창시절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탈선과 비행예방을 위한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정례회는 올해의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도민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해 추진된 각종 계획과 사업이 도민의 가슴에 얼마나 다가갔는지를 세밀히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넘어 올바르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적용 등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를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과 200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도민들이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의회의 의무이자 역할입니다.

200만 도민을 위한 도정과 교육행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 하나하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의회가 20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뜻을 받들고 도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요즘 날씨가 꽤 차가와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0만 도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59회 임시회 <2013.1.18. 본회의장>

충남역사의 한 획을 시작하고 100년 앞을 내다보는 발전전략을 마련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내포신도시에서 2013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희망찬 새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회는 11회, 117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 및 예산안 등 119건을 처리하였고, 52명의 의원님들께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7월에는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충청의 힘을 느낄 수 있었고, 12월에는 충남도청사가 도민들의 축복을 받으며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교육행정에서도 초·중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실시와 농어촌 지역 복지증진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였고,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

두었습니다.

지난 한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충청남도는 지난 80년간의 대전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도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도 교육청과 도 경찰청이 이전할 계획으로 내포 신도시에서 충남의 역사는 새로 쓰여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더 큰 행복을 만들어 갈 것이고, 내포 신도시가 도민 여러분 행복의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그 역할을 충청남도 의회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지금 충청권은 새롭게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도민모두가 염원하던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고,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2014년까지 9부 2처 2청 등 36개 중앙 행정기관, 16개 정부출연기관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발판으로 충남도 의회는 100년 앞을 내다보는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도민 행복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한층 더 발전하는 충남을 만드는데 의원님들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으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2월 25일에 출범하는 새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는 지역발전 전략 또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맞추어 우리 도 차원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충남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으로, 도민의 행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 충청남도와 대한 민국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명실 상부한 최고 명품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6일 서해안 유류사고 사정재판 결과에 따른 향후 대응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사정재판 결과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유류오염 사고 극복 기념관 건립 추진과, 삼성의 지역발전 출연기금 증액 등 국회와 공조를 통해 피해 주민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내포시대 개막 원년을 맞아 도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도정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 의원 모두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를 통하여 도민들의 기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에 새로운 비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2월 6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충남 역사의 한 획을 시작하고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함께 100년 앞을 내다보는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충청남도가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도민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동료의원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60회 임시회 <2013.3.4. 본회의장>

새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는 지역발전전략 세워야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과 '승융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유난히도 한파가 맹위를 떨쳤던 겨울이 지나가고, 내일이면 풀과 나무에 싹이 트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도 깨어나는 경칩으로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또한, 비회기 중에도 도민의 민생현장과 의원 연구실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안희정' 지사님과 '승융배' 부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많은 도민들께서 연일 청사를 방문하여, 도정과 의정에 대한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고 계십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승융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연말 우리는 역사적인 도청 이전을 완료하였고, 지난달 22일까지 도 교육청이 무사히 이전을 하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내포 신도시내 첫 학교인 내포초등학교와 내포중학교가 개교하게 되어, 내포신도시가 명실공히 도정과 교육행정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신도시내 주민편익시설 및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이 미흡하여 초기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입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내포신도시가 조기 조성되어, 새로운 충남의 역사를 창조하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는 지역발전 전략을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마련해야 할 것 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난달 19일 구성된 충청권시도의장 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충청권 광역개발 사업에 대한 공동 대응과 충청권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촉구, 국책사업 유치 등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3월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내포 신도시내 각종 공사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공사차량과 중장비 이동로 확보 등으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와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고, 현장

방문을 통하여 각종 사업현장을 철저히 점검하는 회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200만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는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봄으로 가는 길목이라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만 도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61회 임시회 <2013.4.9. 본회의장>

210만 도민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내포시대 100년을 만들어야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과 '승융배'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제260회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또한, 비회기 중에도 도민의 민생현장과 의원 연구모임 개최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안희정' 지사님과 '승융배' 교육감 권한대행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과 도민 여러분 등 4,000여명을 모시고 역사적인 도청 개청식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우리는 개청식을 통해 도민과 전 국민들에게 내포 신도시가 21세기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서 행복충남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비젼을 보여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10만 도민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100년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달 22일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17부 3처

17청으로 새 정부의 내각이 구성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중앙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에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1/4분기가 지나고, 벌써 2/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4월로 접어들면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 만큼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고, 어려운 농업 현실에 농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영농 행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에서도 지난 과오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예전과 같이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련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각종 사업현장을 철저히 점검하는 회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일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와 교육청의 주요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 재정투입 실효성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를 통해 210만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 주는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봄 햇살과 같은 따뜻한 일들이 많이 있으시길 기대하며, 210만 도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62회 임시회 <2013.5.14. 본회의장>

5월은 가정의 달, 감사의 달!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해야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 하시길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또한, 비회기 중에도 도민의 민생현장 방문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5월은 가정의 달이자, 감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까운 지인, 가족, 동료간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따뜻한 도정과 교육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서민경제의 어려움, 일본의 우경화 등으로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이 굳건하게 힘을 하나로 모아 210만 도민들의 삶

에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

벌써 금년도 5월 중순에 다다랐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점검을 해봐야 할 시기입니다. 도민들과 약속했던 시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더 발전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도민들의 행복과 삶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기업이전이 활발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저해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예산 17조 3,000 억원이 지난주 7일 국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확보한 우리도의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촌에서는 모내기, 밭작물 파종 등으로 농사준비가 한창입니다. 적극적인 농촌 일손돕기 전개와 내실있는 영농시책 추진으로 금년에도 풍년 농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하신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림자도 밟지 않는 존경의 대상이 스승님이었고, 예로부터 군사부일체라 가르치는 만큼 스승님의 존재는 크고 위대했습니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사랑과 희생이 스승님

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지키는 정신을 가르쳤고, 만물의 영장이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마땅한 도리를 몸으로 실천하며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된 것도 바로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충남 교육 가족 여러분! 제자들이 존경하며 모실 수 있는 커다란 스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스승님의 얼굴을 생각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게 하십시오. 부디 도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충남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민의 행복을 위해 도정과 교육행정발전에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0일 국회에서 "유류사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피해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원만한 보상이 완료되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련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각종 사업현장을 철저히 점검하는 회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를 통해 210만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는 알찬 회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0만 도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63회 정례회 <2013.6.24. 본회의장>

여름철 재해예방과 도민의 안전에 최선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장마가 주춤하고 무더위가 기승하는 여름철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울러, 비회기 중에도 도민의 민생현장 방문, 의정토론회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과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유익환, 이종화, 김종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포시대 출범을 기념하기 위한 전국 연극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국비 확보에 수고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인사개혁을 비롯해 도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시는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

지난주에는 제65회 도민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210만 도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단합과 화합으로 충남의 힘을 대내·외에 보여준 체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 왔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의 일부가 가동이 중단되어 전력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기업이나 가정에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에너지 절약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어느덧 금년도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 초에 계획했던 일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 되돌아보고 점검 해보는 시기입니다.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장마가 시작 되었습니다. 올해는 장마기간이 길고, 비가 많이 온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철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형공사장을 비롯한 수해 상습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충남교육 가족 여러분!

충남 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는 교육가족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개혁의 길은 멀고 힘들지만, 모두가 하나 되어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의회가 구성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210만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의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분석 하고 점검하는 회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를 통해 210만 도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알찬 회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장마를 철저히 대비하여 소중한 도민들의 재산이 피해가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210만 도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64회 임시회 <2013.8.27. 본회의장>

사설해병대 캠프사고 유족에 심심한 위로…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해야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무더위 속에서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울러, 비회기 중에도 도민의 민생현장 방문과 의정토론회 등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의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전국2위의 무역수지흑자를 유지하는 등 활발한 기업경제활동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의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학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취미활동과 학력증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일선의 선생님과 교육행정에 매진한 결과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교육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13 을지연습」 훈련에 성실히 임해 주신 군·경과 유관기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올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도민들을 힘들게 하였고 가슴 아프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37, 8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에 탈진 환자가 속출하였고 축산농가의 폭염피해를 가져왔으며, 지속되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양식물고기의 폐사와 어획량의 감소로 어민들에게도 큰 시름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최악의 전력난으로 이어져 도민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 여름의 이상기온을 교훈 삼아 폭염속 건강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수칙 홍보와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 그리고 바닷물 온도 상승에 따른 어민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온 국민의 절전 노력으로 최악의 위기는 모면하였습니다만,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 마련과 함께 자체적으로도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방안과 비상시 대응매뉴얼 정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겸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7.18일 태안 앞바다에서는, 해병대 캠프 훈련도중 관계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동량인 우리지역 수재들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사건현장에서 폭염과 험난한 파도와 싸우면서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관 모두에게 충남도의회 41명 의원 이름으로 수고 많이 하였다는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특히, '정문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119 구조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 해 보다 길고 무더운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는 처서가 지나면서 농촌 들녘엔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본격적으로 수확기에 들어가기 전에 농기계 정비 순회서비스와 부족한 농촌 일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미리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가을걷이 어려움 해소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도 불과 20여일 남짓 남겨 두고 있습니다. 훈훈하고 흐뭇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가 없는지 둘러보시고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도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추석맞이 종합대책을 현실에 맞게 준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번회기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 청취와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충실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도정과 교육행정에 누수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에게 희망을 심어 주시고, 남은 하반기 의정활동도 힘차게 펼쳐 주시기 바라며,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65회 임시회 <2013.10.7. 본회의장>

한·중 FTA 대비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해야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황금빛 들녘으로 넘실대는 결실의 계절에 제265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와 민생현장을 살피시면서 연구모임, 의정토론회, 연찬회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공모전에서 우리道가 지식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방3.0 선도과제」에서도 우리道의 '물 통합관리사업'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30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에서 천안불당초등학교 이준모 학생이 초등부 대상을 수상하는 등 최고의 성적을 거뒀고, 농업계 고등학생들의 경연대회인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와 「전국청소년 공상과학 UCC 공모전」 및 「과학송 경연대회」 등에서도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접하였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행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충남도의 노력이 도민에 대한 실질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수의 학생에게 도움이 되도록 폭넓은 교육에도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자 축제의 계절입니다. 풍성한 수확과 함께 흥겨운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둘러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더운 여름의 역경을 딛고 풍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을걷이에 어려움이 없도록 농가를 살펴보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특히 15년 만에 가을 태풍이 북상한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겠습니다.

지난달 16일에는 한·중 FTA 제7차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농업도인 우리 충남도의 피해는 농어업 분야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2단계 협상에서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안희정' 도지사님과 도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비회기중에는 금산인삼축제, 백제문화제, 계룡軍문화축제, 천안흥타령축제 등 우리도의 굵직한 지역축제가 열렸습니다. 더욱 풍성하고 알찬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사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관광객에게 불편은 주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는 평가의 절차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살림살이 구상을 하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원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결정으로 우리도 지방세액의 50%를 넘게 차지하는 취득세의 세율인하로 세수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결대책과 함께, 산적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14일에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던 1,500년 역사의 공산성 성곽 일부가 가을비에 붕괴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붕괴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명하고 온전한 복원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성곽과 문화재에는 문제가 없는지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가을은 유난히 짧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급작스런 겨울철이 오기 전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 시험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지역 학생들이 최대한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험생들에 대한 마무리 학습지도와 함께 건강관리에도 힘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역최대 도시인 천안지역의 고교 평준화 여부와 관련하여 슬기를 발휘하여야겠습니다. 교육철학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지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투명한 절차에 따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도록 만전을 다하여 주실 것을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해야하는 등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알찬 감사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회기에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유도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질문을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회기에도 21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침 저녁엔 제법 쌀쌀하고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66회 정례회 <2013.11.8. 본회의장>

내포시대 개막 원년 충실한 마무리해야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계사년 새해에 내포 신청사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제266회 정례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변함없이 우리도의회에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210만 도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비회기 중에도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와 민생현장을 살피 시면서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의 자료준비,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준비 등에 여념 없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오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 큰 사건사고 없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애쓰신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

에 감사드리며, 수험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올해는 지난 80년간의 대전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도민의 품으로 돌아온 첫해로, 내포시대 개막 원년을 맞아 도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도정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충만해 있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한 한 해였는지를 뒤돌아보고 남은 기간을 마무리를 하며 보다 나은 내년을 위해 차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선,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 중에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건설 등 우리도의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까지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에서는 힘을 모아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셔야겠습니다.

올 겨울은 예년보다 빨리 찾아와 길고 매우 추울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이 있습니다. 한파와 폭설 등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독감과 신종플루 등 도민의 보건과 화재예방 등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전력난이 우려되는 만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보호시설아동과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도내 소외계층이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후 차분한 진학상담과 함께, 수험생들이 느슨해져 자칫 탈선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방학과 연말연시를 맞아 학생

들에 대한 생활지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6회 정례회는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42일간의 긴 일정으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과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도정과 교육행정을 총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해 추진한 각종사업들이 얼마나 도민을 위해 실효성 있게 추진되었는지 면밀하게 따져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안도 제시하여 주시길 바라며,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수감준비와 함께 지적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28일과 29일 양일간의 도정과 교육행정질문 시간을 통해서는 도민의 대변자로써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이슈와 문제점에 대하여 핵심을 꿰뚫은 질문을 던져 주셔서 도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제266회 정례회」는 2013년을 마무리하고 2014년을 새로이 설계하며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이번회기에도 도민의 뜻을 염두 해 두고 도정과 교육행정이 올곧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느덧 입동(立冬)이 지나고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소설(小雪)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쌀쌀해져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67회 임시회 <2014.1.20. 본회의장>

견마지심(犬馬之心)의 마음으로 갑오년 새해에도 도민을 위해 최선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오늘 갑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회되는 의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210만 도민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도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9대 의회의 3년차를 보낸 지난해는 충남도청과 교육청, 그리고 충남지방경찰청까지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내포시대를 개막한 의미 깊은 한해였습니다.

환황해권 경제시대에 중추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더욱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제대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2014년은 제9대 의회와 민선 5기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의정과 도정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출하는 특별한 해입니다.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기점으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기

대와 함께, 경기침체의 지속, 사회갈등 확산 우려 등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 일수록 초심을 잃지 않고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에게 성숙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먼저, 내포시대 2년차에 돌입한 신도시의 정주여건 조성과 함께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발전 노력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정책을 확대하고, 도민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은 학생들의 인성함양·학력신장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해 발생한 인사와 사설해병대 캠프사고 등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지난주 17일 전북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라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초 AI가 발생한 고창의 농가에서 충남과 충북, 전북, 경기 등 4개도 24개 농가에 오리 17만3000여 마리가 분양된 것으로 밝혀졌고, 우리지역은 전북과 연접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보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비상방역체계의 확대가동으로 도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쏟아 축산농가의 피해와 도민건강에 위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10여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나 혼자 사는 어르신과 보육시설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 대한 배려와 물가안정 등 설맞이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7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을 심사합니다.

올 한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충분한 검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견마지심(犬馬之心)의 마음으로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길 바라며,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68회 임시회 <2014.2.18. 본회의장>

AI 확산방지와 누수 없는 업무추진 요구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추운 겨울 속에 봄의 기운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운이 샘솟는 시기에 제268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비회기 중에도 도민의 생활현장을 살피며 활발히 지역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의 많은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달 17일 전북에서 최초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에 온힘을 쏟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AI는 현재 전국 6개도에서 20건이 확진된 가운데, 우리도는 부여군과 천안시, 청양군 9개 농가에서 자식과 같은 닭과 오리 25만 5천수를 살처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잠잠하던 AI의 확산 조짐 속에, 발생원인과 감염경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막연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학계, 축산농가,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 모두가 합심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대표적인 철새서식지가 있는 곳으로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실의에 빠진 축산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대책과 닭과 오리의 가금류 소비촉진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역강화와 함께 살처분 이후 2차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갑오년 새해 업무를 시작한지도 벌써 50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다른 해보다 누수 없는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특히, 내포신도시의 조기정착과 발전에 있어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심사 보류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답보상태에 있어 큰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비의 국고지원이 절실한 만큼 도청이전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주셔야겠습니다.

이제 제9대 의회와 민선5기의 임기만료도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분위기에 휩쓸려 자칫 공직기강이 흐트러지거나, 의정업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도민의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

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겨우내 얼었던 마음이 녹는 입춘도 지났고, 내일이면 봄비가 내리고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우수(雨水)입니다. 어느 덧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일년 농사를 시작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와 함께 해빙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봄철 산불예방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한 학년을 마무리하고 새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이 밝고 활기차게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충남교육청이 강조하고 있는 바른품성5운동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 새 학기에는 인성교육이 더욱 중시되는 일선 학교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 열리는 이번 제268회 임시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합니다.

2014년의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살피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산적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도민에게 알권리를 충족하고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도록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봄의 온기가 다가오고는 있지만, 아직은 날씨가 춥고 변화가 심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69회 임시회 <2014.4.1. 본회의장>

도민의 관심과 성원 보답 위한 제9대 의회 마무리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리를 함께하신 '송석두' 행정부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언 땅을 녹이고 꽃을 피워내는 생명의 계절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제269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봄과 함께 도민 모두의 마음에도 활력이 샘솟길 소망합니다.

어느덧 도민의 성원 속에 출범한 제9대 의회도 마무리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들께서는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민생현장을 살피며 바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날이 수준이 높아져가는 도민의 요구에 정말 제대로 부응했는지는 냉철히 되돌아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제 3개월이라는 짧은 임기가 남겨져 있습니다만, 지난날에 대한 성찰과 함께 4년 전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도민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충실하게 9대 의회를 마무리하자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도 남은 기간 동안에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따뜻해지는 봄날이 시작되었지만, 지난 1월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도의 살처분 가금류수는 200만 마리를 넘어서 역대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아픔과 도민의 불안감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원하며, 지속되는 방역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일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AI의 확산사태와 관련하여 방역조치부터 검사방식, 농가지원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AI 종식이후에도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월은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바쁜 시기임과 동시에 상춘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해 지는 즐거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쁜 농사철에 부족한 일손을 돕고 배려하는 한편,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대비를 하여야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4월은 아이들의 '잔인한 4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폭력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안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력예방을 위해서 세심한 지도·관리를 다하여 주실 것을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는, 오는 8월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우리 충남을 방문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종교를 떠나 도내 첫

국빈급 방문인 만큼 관련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충남의 역사·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소중한 계기로 삼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는 10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이번회기에도 변함없이 도민의 입장에 서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더욱 성숙해 집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70회 임시회 <2014.6.12. 본회의장>

도민의 성원 보답위해 남은 9대 의회 최선 다하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비회기 중 우리는 그 어느 사건보다 충격적인 여객선 침몰 사고를 접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기성세대의 잘못된 관행과 대처로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로 빠뜨렸습니다.

눈앞의 이득에 눈이 먼 안전불감증과 재난대응시스템의 부재, 민관유착의 폐해 등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 받고 계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조에 땀을 흘리고 계신 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구조되기를 도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세월호가 우리사회에 던져준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겸허히 반성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여야겠습니다.

특히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210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책임의식을 가지고 솔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개회하는 제270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제9대 충남도의회의 임기는 마무리 됩니다.

지방의회가 부활되어 스무 해가 되던 시기에 출범한 제9대 의회는 도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감동의 의회'를 만들자는 다짐을 속에 지난 4년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민의 정책수요에 부응하고자 노력한 가운데 이전보다 약70% 증가한 총171건의 조례를 의원발의 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으로 시작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과 도청이전이라는 대역사를 합심하여 이루어 내며, 충청남도의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한 중요하고도 역사적인 도의회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회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와 현실여건의 아쉬움을 기억하며, 이제 제9대의회의 평가는 210만 도민과

역사의 몫으로 남겨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210만 도민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간 의정운영에 적극협조하며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8일간 펼쳐지는 이번 제270회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9대의회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건심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역사가 정·반·합의 법칙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듯이,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도의회는 마무리되지만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심판을 자양분으로 변화를 꿈꾸며 더욱 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지 대의를 생각하며 지역발전과 도민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210만 도민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9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2012. 7. 12 ~
2014. 6. 30

이준우 의장 연설문집

원내외 의정활동

그 외 활동

제9대 후반기의장 당선인사 <2012.7.11. 본회의장>

「견제와 감시」 기본 틀 속, 「대화와 소통」 중요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명예 그리고 영광을 주셨고 충남도의회 의장의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의장의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심에 저는 남은 2년을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200만 도민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인본의정, 경영의정, 깨어있는 의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9대 후반기 충남도의회를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 틀 속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가장 모범적이고 활기찬 의회로 변모시켜 나갈 것입니다.

200만 도민의 대의기구로써, 집행부와 동반자적인 상생 협력관계의 틀 속에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의 의견이 보다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장단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해서 소통을 이루어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아울러, 200만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도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해 민원현장, 숙원사업 현장 등 민생 위주의 의정활동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도민의 뜻에 부응하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의 사랑과 함께 의정사에 길이 빛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을 위해 충청남도를 위해 의장으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당선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 2012년도 제2차 정기회
<2012.9.11. 온양관광호텔>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 정립해야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온천휴양 관광도시 아산에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2012 제2차 정기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충남도를 방문해 주신 각 시·도의회 의장님들께 200만 충남도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권희태' 충남도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도의회 의장님 여러분!

올해로 우리 민선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민주적 의회 상을 정립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예산심의 및 조례제정, 그리고 시·도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고, 집행부와

상호협력하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줄곧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권 및 조례제정권의 확대,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 의원 보좌관 제도의 도입 등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하기 위한 제도와 기반의 발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의 제 역할수행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반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시·도의회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으로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시·도의회 의장님 여러분!

이번 회의는 제13대 전국 시·도의장협의회를 이끌어 갈 회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을 위한 회의입니다.

모쪼록 오늘 협의회 회장선출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장님들께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개최되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우리지방의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가기 위해 각 시·도의회의 힘과 지혜가 모아 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충남의회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의 일원으로서 시·도의회 간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며,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고장을 찾아 주신 시·도의회 의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머무시는 동안 즐겁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충청남도의회 의원 단배식

<2013.1.28. 의회동>

충남의 새로운 100년 시작의 해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2013년 충청남도 의회 단배식 행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가족,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 감사합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충남도청이 80년 대전시대를 마감하고 내포시대를 열어가는 첫해에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다지자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내포시대 개막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도민들의 희망과 기대가 성취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민과 더 가까이에서, 도민께 봉사하는 의회가 될 수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충남의 새로운 100년 역사를 설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의회, 전문성을 갖춘 의정활동으로 내포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충남의 비젼을 제시하는 의·도정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충청남도의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군의회 의장 초청 간담회 <2013.1.30. 도청 중회의실>

새로운 역사의 한 획 설계할 중요한 시점

'김복만'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시·군 의회 의장님들, 반갑습니다.

내포신도시 신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내포신도시 출범 원년을 맞아 도정과 시·군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담회를 준비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여러분 !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와 더불어, 동반자적 협력기관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지금 우리도는 내포신도시를 거점으로 새로운 역사의 한 획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의장님들의 고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안희정 지사께서는 시·군과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현안사업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 발전이 도의 발전으로, 도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하고 고민한 사항들이 우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200만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하여 도정과 시·군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계사년을 맞이하여 모든 도민이 행복한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권 시·도 의장협의회
<2013.2.19. 대전시의회 대회의실>

500만 충청인의 역량과 지혜를 모을 때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시·도 의장 협의회를 개최하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협의회 구성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여러분 !

지난 60여년 동안 우리 지방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들과 애환을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급변하는 지방자치의 환경속에서 새로운 과제발굴과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정책 제안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500만 충청인의 역량과 지혜를 모으고, 우리 충청권 시·도의회가 교류와 협력을 통한 충청권의 발전방안들이 반드시 국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세종시가 국가행정의 중추도시로서 기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충청북도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더불어 우리 충남의 경우 도청을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는 등 충청권은 새롭게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새로운 충청권 발전 방안들을 많이 발굴해서 100년 앞을 내다보는 충청광역권 발전 전략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남도의회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충청권 시·도 의장 협의회가 구성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6차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정기회
<2013.4.30. 의원회의실>

지방의회 위상 스스로 높여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이창섭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시·도 운영위원장님 여러분!

새로운 충남의 역사가 시작되는 내포신도시 방문을 환영하며, 제6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충남 도정과 의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들께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 여러분!

어느덧 우리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입법기능, 의결기능, 통제기능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다양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심화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완벽한 지방자치를 실현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노력해온『유급보좌관제』를 안전행정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님들의 협력으로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도청 개청식에 참석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행복을 위한 파트너이며,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셨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스스로가 더욱 적극적 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각 시·도 의회간 정보 교류는 물론 당면 현안들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우리지역을 찾아 주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머무시는 동안 뜻 깊고 편안한 시간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국회의원초청 도정간담회
<2013.5.21. 외백식당(서울 여의도)>

새로운 충남 100년 만들기에 힘 모아야

안녕하십니까? 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 도정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지역 국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역 국회의원 여러분!

충남은 내포시대를 맞아 출발의 선에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충남의 100년을 만들기 위한 원년이고, 이에 210만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기대와 희망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가 더욱 의미 있고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안희정 지사님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도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충남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을 것입니다.

지난 30일 국회에서 "유류사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쓰신 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도는 크고 작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건설,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 등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국정에 전념하느라 바쁘시겠지만 210만 도민을 위해 국비확보와 주요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간담회가 충남의 발전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충남도, 충남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화합하고 단합하는 모습으로 비쳐 210만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충남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210만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위촉식 <2013.8.26. 의원회의실>

의정활동의 동반자, 제언과 조언 기대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먼저,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충청남도의회 마흔 한명의 모든 의원들이 의정방향인 「인본의정」, 「경영의정」, 「깨어있는 의정」의 실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고, 알고 있다고 해도 정확한 치유방법을 도출하지 못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사회는 매우 「다양화된」 사회이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다양화된 사회에서의 의정활동에 고도의 전문성이 날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어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위원님들은 지역 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며 특히, 전문분야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충남도 의정에 많은 제안과 조언 등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자문위원님!!

지난 2010년부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지난 6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자문위원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인원도 44명으로 크게 증원하였습니다.

오늘 야심차게 새롭게 출발하는 의정자문위원회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210만 도민의 한결같은 기대감 또한 저와 같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선출될 의정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이끌어 가실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각 분과위원장들과 위원님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다해주시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저 또한 의장으로서 자문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정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출범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도의회 의정 홍보관 개관 기념식
<2013.12.19. 의회동 1층 로비>

210만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 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직원과 기자단 여러분!

금년도 충남도의회를 마무리하면서 61년 역사의 충남도의회의 얼굴이 될 「의정홍보관」을 개관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6.25 동란 중인 1952년에 태동한 지방의회는 얼마 되지 않아 의회 해산이라는 큰 아픔을 겪었지만, 민주주의의 힘으로 '91년 다시 부활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돌이켜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당선되었던, 지방의회가 막 부활한 그 시기에는 회의 운영하는 기본적인 것조차 미숙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발전하고 성숙해 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나날이 발전하는 충남도의회 모습을 꿈꾸어 봅니다.

오늘 이렇게 의정홍보관이 개관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도의회에 대해 궁금증이 많았던 도민들에게 의회의 역할과 활동상을 소개하는 실제 공간이 부족했다는 점은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앞으로 '홍보관'을 통해 도의회의 활동 모습을 소상하게 알리고 도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와 닿는 열린 공간으로 발전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희망과 기대로 시작했던 계사년 한해가 저물고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13년은 도민의 축복 속에 희망에 찬 내포시대를 연 의미 깊은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오늘로 122일의 회기운영을 마감하였습니다.

올해는 집행부에 대한 충실한 견제활동과 함께 전년보다 3배가 훨씬 넘는 의원입법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회기중에는 민생현장을 살피시면서 현안문제에 대하여는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연구모임'과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올 한해도 도민의 대변자로서 어느 해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회의 각종 자료요구와 의견개진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계사년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9대의회가 마감되고 제10대의회가 출범하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동료의원님과 도지사님의 임기도 6개월 남짓 남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안정감이 떨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도정이나 의정활동에 누수가 발생하면 안 될 것입니다. 다 도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남은 임기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마음가짐으로 성실한 마무리 의정활동을 하여야겠습니다.

특히나 올해 내도신도시로 도청이 이전하였고 모든 것이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바로 새로운 충남의 도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내포신도시가 명품도시로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또 환황해권 시대에 충남이 그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겠습니다.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의회의 남은 임기 6개월은 앞으로 도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위한 많은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질 될 수 있도록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정 홍보관」 개관을 계기로 한 발짝 더 도민에게 다가가는 우리충남 도의회가 되길 소망하며 인사에 갈음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의회사무처 결산보고회

<2013.12.23. 보령 비체팰리스>

도의회는 도민을 위한 '공동운명체'

사무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 도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구삼회' 처장님을 비롯한 89분의 직원 모두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우리의회에서는 122일간의 회기운영 속에 총168건의 안건 처리, 137건의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 78건의 5분 정책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회기중에는 282회에 787건의 서면질문, 총13회 의정토론회와 5개 연구모임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숫자를 통해 드러나는 사항이외에도 대단히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사무처 직원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회는 41명의 도의원과 89명의 사무처직원, 이렇게 130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공동운명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사무처직원 여러분!

지난 7월에 인사발령이후 신임직원 연찬회 때에도 참석하여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소중한 인연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경쟁시험을 거쳐 공직사회에 입문하였고, 저와 우리의원들은 선거라는 공개된 시험대를 거쳐 의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경쟁률 속에 이 자리에 와서 도의회를 위해, 그리고 커다란 의미에서 볼 때 도민을 위한 공통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지만 자그마한 확률 속에 한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큰 인연으로 와 닿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이루어지는 사무처 결산보고회의 자리는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인 동시에, 직원간에 소중한 인연을 확인하고 소통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정 스님의 글귀처럼, "서로에게 위안을 주는,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그리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며 따뜻함으로 기억되는" 그런 소중한 인연을 가꾸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2013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마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발전하는 의회사무처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 2014년도 제3차 임시회

<2014.4.11>

'올바른' 지방의정 실현을 위해 최선 다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충·효·예의 고장 이곳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에서 「2014년도 제3차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10만 충남도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 충청남도는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환황해권시대에 중추지역으로 비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년을 내다보며 도청을 이곳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도청이전신도시의 조기정착은 우리도의 최대 현안과제입니다.

지난 2차 임시회에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주신 의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우리 충청남도의 도청이전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도의회 의장님 여러분!

20세기까지는 중앙집권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21세기의 국가의 발전은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에 그 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지방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해 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질을 다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제도적 한계 속에 아직은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 보좌관제 도입, 사무처직원의 인사권 독립, 예산권확보 등을 주창하여 왔으나 결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방의회는 누가 보더라도 주민의 기관으로서, 주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올곧게 이루어야 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한 시·도의회의 긴밀한 협조 속에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각 시·도의회와의 교류협력과 협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장님 여러분, 올바른 지방의정실현을 위한 제도기반구축과 함께 21세기 지방행정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우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주민과 지역의 이익, 나아가서 국가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대의명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각 시·도의회간 정보교류는 물론 당면현안 협의와 대한민국 지방의회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 시켜 가기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충남을 찾아주신 시·도의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어느덧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6기 지방의회 임기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9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2012. 7. 12 ~
2014. 6. 30

이준우 의장
연설문집

도민과 함께
(2012년도)

제15회 보령머드축제 개막식

<2012.7.14. 보령머드광장>

전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인 보령머드축제의 성대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런 훌륭한 축제를 준비해 주신 이시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 그리고 김태흠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보령하면 머드, 머드하면 보령이 생각날 정도로 우리 고장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때문에 보령머드축제는 이제 충남과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축제로 당당히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맞으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령 머드축제는 이제 단순히 '보는 축제'를 넘어 내 몸에 직접 발라 그 효능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자랑스런 체험축제가 우리고장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제가 보령사람이라는 것이 한

없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축제 기간 동안 머드에 흠뻑 빠져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 놓고 뒹굴며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여러분들이 가진 젊음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 하십시요.

그리고 제 고향 보령에서는 머드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몸으로는 머드의 뛰어난 미용 효과를 느끼시고 가슴에는 아름다운 보령을 담아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보령머드는 이제 보령만의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오신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새농민전진대회 <2012.7.26. 홍주문화체육센터>

우리 농촌살리기 주역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의회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내포신도시에서 농업기술 보급과 지역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제1회 3농혁신 전진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석해 주신 '김종성' 교육감님, '김석환' 홍성군수님, '성효용' 전국 새농민회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선진농업기술 보급과 농업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표창과 감사패를 받으신 분들께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새농민회원 여러분!

지금 우리농업은 한·미, 한·중 FTA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화와 인구의 고령화, 글로벌 경제위기, 취약한 정주환경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어려운 우리농촌을 살리는데 앞장 서 주셔야겠습니다.

자립, 과학, 협동의 새농민운동 3대 정신의 확산·보급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연구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미래의 살기 좋은 우리 농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농촌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과 예산투입 등 여러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회원 상호간 최신 농업기술 정보를 교류하며 희망찬 농촌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전진대회 개최를 축하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농혁신대학 청정수산과정 교육
<2012.7.26.충청남도농업기술원>

수산업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우리 도 수산업발전을 위한 전문가, 어업인 및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하신 가운데, 3농 혁신대학 「청정수산과정」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은 수산업 관련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밝히고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소통의 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충남도의 수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며 교육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농민전진대회 <2012.8.10. 공주 곰나루관광단지>

먹거리와 식량주권확보를 위해 앞장서야

오늘 농업인들의 화합을 다지는 「2012 충남농민 전진대회」가 이곳 공주 곰나루에서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농촌현실 속에서 줄곧 우리농업을 지켜내고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강사용' 의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민회 회원 여러분!

지금 우리농업은 글로벌 경제위기, 농촌인구의 고령화, FTA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준 104년 만에 찾아 온 가뭄과 이상 고온현상에 의한 폭염은 우리 농업인들의 가슴을 더더욱 타들어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세계 각국의 식량자급률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수준은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이 5%, 전체 식량자급률은 25%정도로, 100%이상의 자급률의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지의 이상기후로 세계 3대 작물인 옥수수와 대두

그리고 밀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 2008년과 2010년에 이어서 글로벌 식량위기가 다시 올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농업인 여러분!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다가오는 식량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 밖에 없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충분한 생산량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작물개발은 물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먹거리 권리확보와 식량주권의 회복을 위해 우리 농업을 굳게 지켜내는 데 있어 여러분께서 더욱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농촌을 살리기 위한 여러분의 활동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시름은 잠시 잊은 채 희망찬 농촌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전진대회 개최를 축하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특전동지회 충남지부장 이·취임식
<2012.8.25. 보령 웨스토피아>

필사즉생(必死則生), 충혼(忠魂)의 정신에 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대한민국특전동지회 「충청남도 지부장 이·취임식」이 보령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제4대 충청남도 지부장」으로 새롭게 취임하신 '박창석' 지부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지부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전경철' 지부장님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대한민국특전동지회 '박용성' 중앙회장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한 남다른 헌신과 봉사로 감사패와 공로패를 받으신 분들께도 200만 도민과 함께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회원 여러분!

"안되면 되게 하라! 사나이 태어나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라는 필사즉생(必死則生), 충혼(忠魂)의 정신으로,

각종 재난·재해 구조 및 복구활동, 봉사활동, 환경 살리기 등

주민의 안전과 범 질서 확립에 앞장서 오신 여러분의 구슬땀이 있기에, 우리 도민들은 맘 놓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가뭄, 폭염, 폭우, 태풍, 지진 등 재난·재해가 갈수록 다양하고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과 주민의 안전을 남에게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특유의 애국·봉사정신을 발휘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회원 여러분 !

오늘의 이 자리는 도지부장 취임에 따른 축하뿐만이 아니라, 충남지부의 단결과 발전을 기원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충남지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예봉사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재난·재해 발생 시는 물론, 늘 도민들을 위한 변함없는 봉사와 헌신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도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특전동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서각예술대제전 <2012.9.5. 홍성군도서관>

선조들의 위대한 예술성과 소중한 전통문화

오늘 우리 충남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곳, 홍성에서 「제9회 충남서각예술대제전」이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마련해 주신 '김종일' 한국서각협회 충청남도지회장님, 그리고 우리 지역 서각예술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함께 참석해 주신 내빈여러분과 도민여러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문자나 회화를 목재나 석재 등에 기록하여 길이 후세에 전해 내려오는 서각은 우리 고유의 전통 종합예술로서,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며,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 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뜨거운 열정과 철저한 장인정신은 세계최고의 목판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인사 장경판전과 팔만대장경, 고궁이나 사찰의 현판 등 훌륭한 서각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서각예술이 세계최고로 인정받고,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께서 조상의 얼을 이어받아 전통예술 수호의 길을 꿋꿋이 걸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선조들의 위대한 예술성과 우수한 전통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충남서각예술대제전이 훌륭한 서각예술인과 우수한 작품의 발굴, 서각의 대중화로 도민의 문화의식을 고양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 문화예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한국서각협회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어머니생활체육대회
<2012.9.8. 아산 이순신 실내체육관>

우리사회의 위대한 중추, 어머니

오늘 우리 어머니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제10회 충청남도 어머니 생활체육대회」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온천 휴양도시 아산에서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안희정' 충청남도 생활체육회장님과 '윤정남' 아산시 생활체육회장님을 비롯한 각 시군 생활체육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어머니 생활체육인 여러분!

한 가정에서 어머니는 남편에 대한 내조로부터 자녀들의 뒷바라지까지 무한한 힘을 발휘하는, 가정의 중심이며 중추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도 위대한 어머니들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해 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잠시나마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평소에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뽐내며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승부욕은 건강보다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져와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모두가 승리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하여 서로가 화합하고 격려하신다면 건강한 어머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는 건강한 삶을 약속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매우 소중한 매개체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어머니 생활체육대회가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어려움은 모두 잊은 채 회원님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계기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어머니생활체육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보디빌딩대회 <2012.9.8. 보령문화예술회관>

참여하는 즐기는 스포츠 활성화해야

오늘 국민생활체육 전국보디빌딩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3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보디빌딩대회 겸 2012 뷰티바디코리아 챔피언쉽」 대회가, 서해안 대표 해양관광휴양도시 보령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도를 방문해 주신 각 시·도선수단 여러분!

20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먼저, 대회를 마련해 주신 전국보디빌딩연합회 '장보영' 회장님, 충남보디빌딩연합회 '박종만' 회장님, 각 시·도 보디빌딩연합회장님, 그리고 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함께 참석해 주신 '이시우' 보령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보디빌딩 회원 여러분!

보디빌딩은 과거의 엘리트 선수들과 근육남들만이 하는 특정스포츠에서 벗어나, 현재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국민들이 가장 즐겨하는 생활체육으로써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디빌딩은 다이어트 등 신체변화와 성장에 필수적인 운동임은 물론,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거둔다고 알려져 있어, 보디빌딩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빌딩은 운동과 더불어 적절한 식이섭취를 통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영양에 대한 유용한 정보제공과 함께 올바른 건강관을 심어주는 등, 생활체육인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회는 국민건강관리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대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꼭 부탁드립니다.

참가선수 여러분!

그동안 땀과 열정으로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그동안 운동에 매진하였던 수많은 시간과 노력에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경쟁과 순위에 연연하는 엘리트스포츠가 아니라 "참여하고 즐기는 스포츠", 국민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 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대회가 우리나라 보디빌딩의 대중화 및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장보영' 보디빌딩연합회장님과 '박종만' 충남보디빌딩연합회장님, 그리고 협회 임원진과 회원 여러분들께 충남도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디빌딩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기업인대상 시상식 <2012.9.10. 덕산 리솜스파캐슬>

급격한 세계경제 변화, 기업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의회의장 이준우입니다.

들판의 벼이삭이 고개를 내밀며 인사하는 수확의 계절에 「제19회 충남기업인 대상」 시상식이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먼저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과 '최호상' 충청남도 기업인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최승우' 예산군수님과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지역 경제와 기업의 발전에 남다른 공헌으로 표창을 받으신 우수기업과 기업인, 근로자 등 모든 수상자 여러분께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이며 핵심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우리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유럽 발 경제위기로 인한 세계 금융시장 불안의 확산과 고

유가, 원자재가 상승 등 글로벌 경기침체로 우리나라 경제 또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경제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인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조금 더 힘을 내어 우리 모두가 다가온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급격한 세계 경제상황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과 경영구조개선 등 경영혁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좀 더 힘을 내시어 우리경제를 지키고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중소기업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업 활성화는 물론, 우리지역 기업들이 당당히 세계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내 기업인들의 경영의욕 고취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협력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상자 여러분들께 축하를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사회복지의 날 <2012.9.12. 보령시 대천체육관>

행복한 나눔문화 확산의 디딤돌

오늘 중서부 해안 거점도시 이곳 보령에서, 지역 사회복지 가족들 간의 교류 및 화합을 도모하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제13회 충청남도 사회복지의 날 한마당」 행사가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시고, 지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수진'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 고통 받고 있는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봉사해 주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시는 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충남도가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아 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가족 여러분!

오늘날 산업의 발달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삶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나, 아직도 우리 주위엔 여러분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불만 하나

없이 숭고한 봉사의 길을 걸으며 오로지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만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십니다.

불우한 청소년, 장애아, 노인, 여성 등을 위한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을 해 주었으며, 특히 결식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사랑의 식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 사업추진으로 국민들이 골고루 잘사는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나눔문화의 확산을 통한 지속적인 자원봉사, 기부, 사회공헌으로 선진복지사회 구현의 디딤돌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도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책임을 나누고 힘을 합하는 자세로 소외된 이웃들의 어두운 삶을 밝혀 주기 위한 여러분의 활동에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제13회 충청남도 사회복지의 날 한마당」행사가 사회복지 가족들 간의 자긍심 고취와 상호 일체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 해주신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여러분과 시설, 기관, 단체 종사자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

<2012.9.14. 중앙소방학교 운동장>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오늘 우리지역 재난방재의 중추인 충남의용소방대원들의 화합의 한마당 「2012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가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번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류재남' 충청남도 의용소방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과, '성무용' 천안시장님, '최민기' 천안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와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 등으로 우리 주변에서는 인적, 자연적 재난·재해가 예고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사고로 이어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며, 재난·재해발생 역시 예전에 비하여 빈번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 및 대책의 강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해와 사고로부터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보존하고, 가족과 동료, 이웃을 지키기 위한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어깨는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헌신적인 봉사 활동으로 이웃사랑을 펼치며 자연보호와 재난사고 구조·구급활동에 앞장서 오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 늘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여러분들의 화재 및 구조·구급 등 헌신적인 소방 활동은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들의 무한한 봉사정신에 대해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화재와 각종 재난 현장에서 묵묵히 사명을 다하며, 지역사회의 한축을 맡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 자율방재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는 그동안 대원들이 평소에 갈고 닦은 체력과 기술을 뽐내고 대원 간 상호 교류와 화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소에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뽐내며 대원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남의용소방대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2012.9.15. 청양공설운동장>

도민 안전과 재산의 수호자

반갑습니다. 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자율방범가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축제인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가 청정지역 청양에서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범죄 없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만교'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정용선'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남다른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존경하는 자율방범 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취약지 순찰 방범활동, 학교 폭력 선도, 재해예방과 복구, 각종 행사지원, 거리질서 유지 등 도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에 기여를 해 오셨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느라 헌신하시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진정한 지역발전의 주역이며, 지역사회의

지킴이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밤낮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회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깊은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율방범연합회가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율방범대 정신으로 우리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밝고 건강한 사회의 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도민과 재산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부심과 긍지' 를 갖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드리며,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덕성회복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유림지도자연수
<2012.9.19. 온양그랜드파크호텔>

예의와 도덕이 바로서는 아름다운 충남만들기

유림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중부권 발전의 핵심도시 아산에서 「예절과 도덕성회복, 법질서 확립을 위한 유림지도자 연수」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연수를 마련해주신 성균관유도회 충청남도본부 '전해철'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종성' 교육감님, '정용선' 경찰청장님, '이명수' 국회의원님, '이수복' 충남향교재단이사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림지도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범도민 예의생활 확산, 충·효·예 교실 운영, 청소년 인성교육 등 도덕성 회복운동과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늘 앞장서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연수는 도내 36개 향교 유림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사회를 보다 밝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범도민 예의생활실천 운동과 가정문화의 재건을 위한 효의 재정립 및 실천운동의 확산 등 '살기 좋고 행복한 충남'의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예의와 도덕이 바로 서는 아름다운 충남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성균관유도회 충청남도본부」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의새마을운동촉진대회 <2012.9.25. 청양군민체육관>

선진인류국가 만들기 위한 열정과 희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풍요로운 계절 가을날에, 청정자연환경의 고장 청양에서 새마을운동의 변화·도전·창조를 다짐하는 「2012 도의새마을운동 촉진대회」가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늘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충청남도새마을회 '전영한' 회장님을 비롯한 23만 새마을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이석화' 청양군수님과 도의회 동료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와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존경하는 새마을가족여러분!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3대 기본정신으로 오늘의 선진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범국민운동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이러한 3대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여기에 변화·도전·창조의 가치를 더하여 보다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뉴

새마을운동의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도내 새마을가족 현장 대표단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이웃과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자는 신념으로,

녹색생활 실천, 에너지 자원재활용품 수집, 지구온난화 방지, 법·기초질서 지키기,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재난안전 지킴이, 새마을 협력사업 등 SMU뉴새마을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국가와 고장의 발전에 늘 앞장서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열정과 희생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촉진대회가 우리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의 고취는 물론 회원들 간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충남발전을 위한 기틀을 새롭게 마련하고 행복한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뉴새마을만들기「2012 도의새마을운동 촉진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끝으로 충청남도새마을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2회전국장애인체전결단식

<2012.10.4. 천안드라마웨딩홀>

진정한 승리는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 여러분과 승리를 다짐하는 결단식을 거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회 출전을 위하여 힘든 훈련을 이겨내신 선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늠름하고 밝은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 든든하고 뿌듯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수들을 정성껏 이끌어 주신 임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선수단 여러분에게 200만 도민과 함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선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신체적 불편을 이겨내면서 떳떳하고 값진 승리를 위해 오랜 시간 몸을 만들고 기량을 연마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갈고 닦아 온 여러분의 실력을 맘껏 발휘해 주시고, 지나치게 승부에 집착하기 보다는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과의 승부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포츠의 진정한

승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만 있다면 메달획득은 물론, 여러분 자신의 가슴도 황금빛으로 물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우리 200만 충남 도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모두가 여러분이 펼쳐 주시는 감동의 순간순간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응원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체전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뮤지컬 '성벽은 살아있다'
<2012.10.5. 서산해미읍성특설무대>

우리역사의 진면목을 확인

제11회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기간을 맞이하여 창작뮤지컬 「성벽은 살아있다」의 공연이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평소 충남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오늘 훌륭한 작품을 제작하여 도민에게 관람하게 해 주신 '양기철' 단장님을 비롯한 충청오페라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연 관람을 위해 해미읍성을 찾아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화예술인 여러분!

우리나라는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 이러한 소중한 것들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번 축제에서, 서산 해미읍성의 역사를 소재로 지금까지도 살아 숨 쉬는 해미읍성 이야기를 뮤지컬로 재구성하여 도민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미읍성을 무대로 우리 역사와 생활문화를 담아 실감나게 펼쳐 보이는 이번 뮤지컬 공연을 통해 역사의식을 재확립하는 소중한

계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뮤지컬 「성벽은 살아있다」의 공연을 보며 우리나라 역사와 인물 등 해미읍성의 진면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배우와 함께 호흡하며 뜻 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충청오페라의 훌륭한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충남의 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뜻 깊은 공연을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면서, '충청오페라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체험교육의 장이 될 이번 축제에도 관람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2012.10.5. 홍주문화체육센터>

밝은 미래를 꿈꾸어 보는 화합한마당

오늘 우리지역 지체장애인의 화합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2012 충청남도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가 충절의 고장 홍성에서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장애인 여러분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충청남도 지체장애인협회 '이건휘'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석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김석환' 홍성군수님을 비롯한 내빈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남달리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장애인복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체장애인 여러분!

그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체적 어려움을 이겨내며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주위엔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신체적 불편은 장애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힘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신체의 장애를 비관하고 주위사람들에게 의지만 하기 보다는 강한 재활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며, 여러분 스스로가 당당히 일반인과 경쟁하는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만남을 여러분들의 재활의지를 고취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보다 밝은 미래를 꿈꾸어 보고 다짐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욱 더 큰 자신감과 강한 의지로 열심히 살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는 그 동안의 근심과 걱정은 잠시 잊으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웃고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따듯한 마음과 깊은 사랑으로 늘 장애인들의 친구가 되어 보살펴 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지체장인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 <2012.10.5. 부여 구드래광장>

스스로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의 일부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10월에 「제21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가 백제문화의 중심지인 부여에서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200만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도 생활체육회 '안희정' 회장님, 각 시·군 생활체육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회에 참가하신 시·군 선수단과 임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생활체육인 여러분!

스포츠는 우리에게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길러 주고 닦아 주며, 서로의 마음을 열고 화합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단연 으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생활체육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될 국민스포츠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개인의 건강증진이나 여가선용의 차원을 넘어 서로 함께하는 스포츠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화합시키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생활체육회는 10여년 전부터 '도민 1인 1종목 갖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도민에 대한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화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 더욱 힘써 주시고, 200만 도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생활체육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대회에서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남도 생활체육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93회 전국체전 결단식 <2012.10.8. 충남도청 대강당>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의 진정한 정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자랑스러운 충청남도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체육 지도자를 비롯한 내빈 여러분!

오늘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에 앞서 선수단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각오와 필승을 다짐하는 선수단 결단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회 출전을 위하여 힘든 훈련을 이겨내신 선수단 여러분!

여러분의 늠름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하고 뿌듯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수들을 정성으로 이끌어 주신 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선수단 여러분에게 200만 도민과 함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선수 여러분!

올해로 93회를 맞은 전국체전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의 스포츠 대축제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을 배출한 대회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대회에 충남을 대표하여 출전하는 여러분께서는 충남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우리도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갈고 닦아 온 기량을 맘껏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승부에 집착하기 보다는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과의 승부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만 있다면 메달획득은 물론, 여러분 자신의 가슴도 황금빛으로 물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우리 200만 충남도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모두가 여러분이 펼쳐 주시는 감동의 순간순간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응원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선수단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체전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지구JC특우회 우정의 날 <2012.10.11. 서산 르셀>

열정, 봉사, 행동으로 미래를 견인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제22차 충남지구JC특우회 우정의 날 」 행사가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특우회의 활기찬 활동을 다짐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충남지구JC특우회 '지충규' 지구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회원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JC특우회원 여러분!

우리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는 충남지구JC특우회는 그동안 지역민을 위해 끊임없는 봉사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독거노인·장애우·다문화 가정을 보살펴 왔으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크고 작은 봉사 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흔적은 우리 지역 어디를 가더라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칠 줄 모르는 봉사활동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커다란 희망의 불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활동보다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둡고 소외되어 있는 곳을 찾아 봉사함으로써 어려운 분들에게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충남지구의 위상과 JC특우회 회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충남지구JC특우회가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열정으로 봉사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지역민들을 위한 열정적인 봉사활동과 헌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22차 충남지구JC특우회 우정의 날 」을 축하드리며, 특우회의 단결과 화합의 힘찬 메아리가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효 나눔 한마당 <2012.10.13. 대천체육관>

어르신은 우리시대 풍요로운 삶의 원동력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우리지역 대표 유적 성주사지의 복원과 보령의 발전 및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제3회 어르신 공경 효 나눔 한마당」이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가득한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정성껏 마련해 주신 반야선원 '혜선' 주지스님을 비롯한 우리지역 불자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석해 주신 '전윤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어르신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불자여러분!

평생을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땀과 희생은 우리나라를 세계 경제대국으로 만들었고, 오늘날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핵가족화, 이기주의,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사회의 윤리적 가치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도 갈수록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감사하고 공경하며, 효를 실천하며 살아가도 하해와 같은 은혜

를 갚기엔 턱없이 부족한데도, 갈수록 부모님을 모시고 받드는 것에 소홀해져가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를 실천하고 나누면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를 마련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해 주시는 불자여러분들께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반야선원은 효 나눔 한마당 개최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보호활동 전개, 우리 문화재 보존운동 전개 등 여러 방면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받고 있는 이웃과 고통을 함께 하고 나눔결사를 적극 실천하며, 시민을 위한 자비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를 어르신들께 큰 기쁨을 드림은 물론,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경로효친을 실천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하루 맘껏 즐기시고, 건강 하십시오.

다시 한 번 뜻 깊은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로움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지사기 농악대회 <2012.10.14. 서천 금강하구둑>

농악은 가장 한국적인 전통예술

오늘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이곳 서천에서 「제11회 충청남도지사기 일반 남·여 농악대회」가 개최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통예술 국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주형' 한국국악협회 충청남도 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악인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농악을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모심기, 논매기와 같은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신명나는 농악으로 고단함을 잊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 고유의 음악인 농악은 수 천 년 동안 조상들과 함께 해 온 가장 한국적인 전통예술입니다.

하지만 최근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한 산업화 등으로 우리 농악은 도시는 물론, 농촌에서조차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농악을 다시 살려내어 훌륭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농악을 살리는데 앞장서 주셔야합니다. 조상의 얼을 이어받아 전통예술을 꿋꿋이 수호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선조들의 위대한 예술성과 우수한 전통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농악을 비롯한 전통 문화예술 보존과 육성을 위한 여러분들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악인 여러분!

오늘 농악대회는 여러분께서 그 동안 갈고 닦은 신명나는 농악을 마음껏 펼쳐 보이고, 아울러 조상의 순수한 정신도 되새겨보는 뜻 깊은 시간입니다.

점차 잊혀져가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 풍물을 널리 보급하고 전통문화 계승·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해 출전한 풍물단원들은 지역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되 승패를 떠나 도민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장으로 승화시켜 주길 바라며, 이 자리가 농악인들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큰 마당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농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국악협회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회 충남농업축전 <2012.10.16.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농업을 경쟁력 있는 생명산업으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3농혁신! 살기좋은 농촌!' 을 주제로 「제4회 충남농업축전」이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뜻 깊은 자리를 정성껏 마련해 주신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 농업을 훌륭하게 이끌고 계신 '정등영' 농촌지도자회장님, '이영희' 생활개선 회장님과, '주영철' 4H 연합회장님,

그리고 '박권옥' 품목연구회장님을 비롯한 단체장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도의회에서 농촌과 농업에 지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도의원님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 가족 여러분!

우리농업은 한·미, 한·중 FTA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화와 인구의 고령화, 글로벌 경제위기, 취약한 정주환경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올여름 유난히 극심했던 가뭄, 고온,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농작물피해까지 입게 되어 우리 농업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 농업인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회, 품목연구회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충남농업축전의 개최는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축전에서는 농업기술 연구·보급 성과보고와 품평회, 친환경 농기자재 및 농산물 전시, 향토 음식·생활원예 콘테스트 등 과제경연과 참여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여러분께서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종개발과 친환경 농산물 재배 등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농업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으로 신기술·신품종 개발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농업인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뛰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행사가 우리 농업인들이 최신 농업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며, 살기 좋은 농촌의 미래를 설계하고 결의를 다지는 화합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3농혁신의 성공과 충남농업의 발전,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정책 포럼 <2012.10.16. 나사렛대학교>

희망찬 미래를 위한 노력과 헌신

오늘, 우리 지역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와 삶의 질 향상 모색을 위한「2012 장애인 정책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충남장애인신문 '탁정원' 사장님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해 주실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를 장애인 여러분들의 재활의지 고취와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고,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활발히 토론하는 기회로 만들어,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노력과 희생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 장애인이 신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열정과 헌신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2 장애인 정책 포럼」을 축하드리며, 12만 도내 장애인여러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평소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장애인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시는 「충남장애인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과 벼 그리고 생명나눔 한마당
<2012.10.17. 대전원평초등학교>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 강화해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사람과 벼 그리고 생명나눔 한마당 행사」가 대전원평초등학교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충남도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고계신 대전원평초등학교 '박중규'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주형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들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전원평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해맑고 씩씩한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하고 가슴 뿌듯합니다.

품질 좋고 영양가 높은 우리 충청남도의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섭취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촌은 FTA에 따른 수입농산물 개방, 국내외 경제 불안,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농촌을 살리고,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는 데 중점을 둔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지역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농민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의 확대 등으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찾아 주시고 소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지역농민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정성으로 재배한 농산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 많이 구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행사가 친환경 농촌마을과 도시학교간 도농교류와 협력의 확산과 어린이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어, 미래의 우리 농업발전을 위한 큰 힘이 되어 주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전진대회 <2012.10.19. 청양군민체육관>

가정과 지역사회, 국가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

오늘, '충남도정의 새로운 내포시대!, 바르게살기와 함께!'란 주제로 「2012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 회원전진대회」가 청정지역 청양에서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뜻 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 '문인규'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이석화' 군수님, '최효석' 중앙협의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르게살기운동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영예로운 수상을 하신 여러분께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존경하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더불어 사는 사회와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기위해 도민과 함께 자율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을 적극 추진해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화합을 이루어내며, 늘 보다 살기 좋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따뜻한 격려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이유로 각종 패륜과 비리 등이 넘쳐나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도덕성에 결핍과 흠이 있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 라는 기치 아래 도민의 윤리회복 운동을 활발히 펼쳐 주시는 것은 가정과 지역사회, 국가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만 충남도민의 선진의식의 함양과 화합, 그리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생활체육회장기 전국 국무도 무예대회
<2012.10.20. 보령정심학교>

국무도인 화합과 우정의 자리

오늘 우리지역 보령에서 「제12회 국민생활체육회장기 전국 국무도 무예대회」가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대회에 참가해 주신 선수 및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회를 준비 해 주신 국민생활체육 충청남도 국무도연합회 '강철호'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석해 주신 내빈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민생활체육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재미있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 생활체육이며, 우리에게 생활의 활력소와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국무도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무술을 현대무술로 체계화시킨 것으로, 최근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국민생활스포츠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회는 국무도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모두 모인 뜻 깊은 자리입니다.

그동안 남모르게 혼자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해 오신 분, 동호회에서 동료들과 함께 운동을 해 오신 분, 모두 오늘만큼은 함께 하는

생활체육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심신건강을 위해 애쓰는 의욕적인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회는 화합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승부도 좋지만 서로 손 잡아주고 이끌어 주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며,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를 그동안의 바쁜 일상은 접어두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웃고 즐기며,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남도 국무도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0회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2012.10.20. 논산 국민체육센타>

국가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 보육에 전력

오늘 도내 보육인의 화합과 새로운 보육비전 제시를 위한 「제10회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가 예학의 고장 논산에서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평소 보육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충청남도 어린이집 연합회 '김완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황명선' 논산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육에 대한 남다른 사명감과 투철한 교육관을 가지고 지역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영예로운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존경하는 보육교직원 여러분!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에 의한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가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나날이 보육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

어린 새싹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 어린이집연합회 회원 모두가 보육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국가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의 보육에 전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및 보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지역 보육발전을 위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결속의 강화는 물론, 미래의 새로운 보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제10회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충청남도 어린이집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업인과의 만남 <2012.10.31. 예산문예회관>

임업인은 녹생성장의 주역

반갑습니다! 도의회 의장 이준우 입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오늘, 도내 임업인의 결속과 3농 혁신의 희망을 다짐하기 위한「임업인과의 만남」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지역 임업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산림조합중앙회 충남도지회 '이수희' 회장님을 비롯한 임업인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림청 관계관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남다른 봉사와 희생으로 지역 임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업인 여러분!

현재 우리 임업은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의 불안과 한·미, 한·중 FTA의 체결로 인한 수입 개방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여건 속에서 선진기술과 전략경영 도입 등 우리 앞에 닥쳐온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임업경쟁력

강화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임산물을 다양하게 가공하여 상품화하고, 시장 점유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활발히 펼쳐 나간다면 현재의 위기를 미래의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도내 임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최하게 된 이번 행사를 지역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업인들의 교류확대와 화합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임업기술과 산림경영에 대한 정보를 활발히 교류하고,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기 위해 함께 고민도 하며,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가꾸며 지켜내고 있는 녹색성장의 주역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림소득 작목의 산업화, 휴양·문화 공간 구축 등 충남 임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임업인 여러분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 임업의 발전을 위해 임업과 산촌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임업인과 만남' 행사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어머니 교통문화강좌 <2012.11.6. 충남교통연수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미래의 희망을 지켜내는 일

오늘,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의 함양을 위한 「녹색어머니 교통문화강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녹색어머니 충남연합회 '김희영' 회장님과 회원여러분, 그리고 '양학순'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 참석하신 '김종성' 교육감님, '정용선'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남다른 봉사와 희생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여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녹색어머니 회원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오나 매일같이 녹색어머니 제복을 입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등하굣길을 지켜주고 계신,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해를 거듭할수록 관심이 더 높아져

스쿨존 지정 확대, 서행관리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7년 이후 2011년에는 2007년 대비 발생건수가 2.2배 증가한 751건, 부상자 수는 2.1배 증가한 783명으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녹색어머니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최하게 된 이번 강좌는 회원님들의 친목과 화합을 돈독히 함은 물론,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겨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분의 활동은 한 가정의 불행을 막는 동시에 나라의 미래와 희망을 지켜내는 막중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교통안전 의식의 함양과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분들의 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녹색어머니 충남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정부와 지역소재 대학 상생발전 의정토론회
<2012.11.6.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지역대학이 견실해야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 입니다.

오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소재 대학 간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상생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이기철' 충남도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지역과 지역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해 주실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졸업생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2020년 이후 졸업생 감소의 폭이 매우 커질 것이라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될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하여 지역대학 특성화 촉진과 지역의 우수인재 유치·지원 강화, 지역대학 연구 역량 강화 등 크게 3가지 축으로 지역대학 발전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그동안 지역대학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여

겨왔던 것에 비하면 좀 나아진 것이긴 하지만,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지역대학을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역대학이 견실하게 육성되지 않으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극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과 대학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스스로 찾아보고자 개최된 오늘의 토론회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생각됩니다.

모쪼록 상생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과 그 해법을 찾는 데 다양한 방향 제시는 물론,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지역과 지역대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틀을 새롭게 마련하고 행복한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생활 실천 협약체결

<2012.11.8. 충남도청 대회의실>

살기 좋은 저탄소 녹색충남 구현의 초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의회 의장 이준우 입니다.

오늘, 충남도와 도내 교육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저탄소 녹색정책에 활발히 참여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녹색생활 실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구는 그동안의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 수림 벌채의 증가 농·공업 등 각종 산업활동의 확대, 프레온 가스의 사용 등으로 대기 중에 온실효과 가스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온실효과가 더욱 증대하여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빙하·빙산이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라 예측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각종 환경회의를 통해 온실효과 가스 배출억제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현 정부들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지표로 제시하며 세계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녹색성장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도 몇 년 전부터 '충남기후변화 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녹색생활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작은 부분부터 조금씩 실천하고 참여하며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충남도의회와 충남도, 충남교육청과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들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뜻이 한데 모아진 이번 협약체결이, 도내 온실효과 감축 목표의 100% 달성은 물론, 녹색생활 실천운동이 범도민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저탄소 녹색 충남의 구현'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회 충남도지사배 장애인생활체육탁구대회
<2012.11.9. 서산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화합과 사랑을 더하는 생활탁구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아름다운 계절에 서산에서 「제4회 충청남도지사배 장애인생활체육탁구대회」가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대회에 참가해 주신 선수 및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회를 준비 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탁구협회 '신현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석해 주신 내빈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애인 생활체육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재미있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 생활체육이며, 우리에게 생활의 활력소와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탁구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회는 생활체육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모두 모인 뜻 깊은 자리입니다.

그동안 남모르게 혼자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해 오신 분, 동호회에서 동료들과 함께 운동을 해 오신 분, 모두 오늘만큼은 함께 하

는 생활체육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심신건강을 위해 애쓰는 의욕적인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회는 화합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승부도 좋지만 서로 손 잡아주고 이끌어 주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회가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를 그동안의 시름은 접어두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웃고 즐기며,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장애인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제4회 충청남도지사배 장애인생활체육 탁구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끝으로 충청남도장애인탁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012.11.23. 천안 NGO센터 5층>

재래시장의 부활과 안정적 정착에 지혜모아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재래시장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지역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유병국'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대형마트 규제와 대응, 문화컨텐츠 개발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점검과, 새로운 정책방향 설정을 위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해 주실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오랫동안 소매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재래시장은 몇 년 전부터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 등과 같은 현대적인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침체를 겪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05년 3월 재래시장에 대해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래시장의 상거래 현대화, 공동사업 활성화, 판로 및 홍보 확대 등과 같은 재래

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함께 곳곳마다 속속 들어서고 있는 대기업의 대형마트에 고객을 거의 다 빼앗기고 있으며, 갈수록 우리 재래시장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이러한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고자 시장경제 관련 전문가들과 상인들이 함께 모여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우리 지역 재래시장의 성공적인 부활과 안정적인 정착 등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 개선방향을 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충분히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가 우리 도내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상인들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방안과 해법을 도출해내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분들의 활동과 상인 여러분에 대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시조창 강습회 <2012.11.24. 부여 관광파크>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오늘, 우리의 소중한 전통예악을 더 잘 알고 배우기 위한「전국 시조창강습회」가 찬란한 백제문화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부여에서 열리게 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한국전통예악총연합회 정무화 충청남도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통예악을 지켜내고 이어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예악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악인 여러분!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우리 민족의 얼과 감정을 독창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시조창은 반드시 계승·발전시켜야 할 매우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최근 들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되살리고, 이를 보급·확산해 나아가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국 예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조창을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유능한 시조 지도자 양성과 심사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시조창 강습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뜻 깊

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강습회가 시조창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가 되어, 잊혀져가는 민족의 혼인 서려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소리를 보존하고 계승해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예악인 여러분들의 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시조창 문화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전통예악총연합회 충남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예악인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의 날 수출유공자 시상식

<2012.12.17. 대전 무역회관>

충남 경제성장의 동력은 바로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제 49회 무역의 날 기념 수출유공자 시상식」 이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며 '무역 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높여주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정성껏 마련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과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 참석해 주신 '박은용' 대전충남 무역상사 협의회장님, '이종웅'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님, 중소기업진흥공단 '김범규' 대전지역본부장님, '김현태' 본부장님, '이필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수출성과를 이루어낸 공로로 수출탑 및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무역인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일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제치고 영국에 이어 무역8강 신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1950~60년대 가장 힘없고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당당하게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충남의 올해 수출액도 10월말까지 510억 1,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96억 3,100만 달러에 비해 2.8%인 13억 8,400만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큰 폭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무역수지 흑자액도 크게 증가하여 216억 5,400만 달러로 경북에 이어 전국 2위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 기업인을 비롯한 200만 도민이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온 결과로, 우리도가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기업인과 무역인 가족 여러분!

충남 경제의 성장 동력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도내 수출기업 간 정보교류 및 협력 확대, FTA의 효과적 활용 및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등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세계 경제상황에 따라 수출여건의 악화가 전망되고 있지만, 세계인이 즐겨 찾는 상품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0회 충남 농어촌발전상 시상식
<2012.12.20. 도청 대회의실>

3농혁신의 리더, 행복한 농촌 만들기 앞장서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제20회 충청남도 농어촌 발전상 시상식」이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농업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와 함께 도의회에서 농촌과 농업에 지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도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영농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표창의 영예를 안으신 열여섯 분의 수상자 및 가족 여러분께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 가족 여러분!

현재 우리농업은 한·미, 한·중 FTA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화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며,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의 불안과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은 농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 등으로 농산물 품질과 농업경영을 혁신하고, 도농교류 확대로 소비자와의 연대 등에 의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우리농업의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역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농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3농혁신의 주체이며 지역리더인 여러분께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종개발과 친환경 농산물 재배 등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생명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 농업인들이 최신 농업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며, 살기 좋은 농촌의 미래를 설계하고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농업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으로 잘 사는 농촌,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도 여러분들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보다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3농혁신의 성공과 충남농업의 발전,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Y-SMU 충남포럼 창립대회, 뉴새마을만들기 업무협약
<2012.12.21. 논산국민체육센터>

「Y-SMU 포럼」은 지역의 미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예학의 고장 논산에서 21세기 새 시대의 '뉴새마을 운동' 전개를 위한 「Y-SMU(와이에쓰엠유) 충남포럼 창립대회」 및 「민·관 업무협약체결행사」가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늘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충청남도새마을회 '전영한' 회장님을 비롯한 23만 새마을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과 도의회 동료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Y-SMU 충남포럼'은 뉴새마을운동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청년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발족되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Y-SMU 충남포럼'의 창립은 우리 새마을운동이 다시 한 번 역동적인 국민운동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은 또 한 번 세계가 놀라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

운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3대 기본정신으로 가난과 싸우며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면,

앞으로 전개해 나아가야 할 뉴새마을운동은 3대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변화·도전·창조의 가치를 더하여 보다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뉴새마을운동을 적극 실천하며 선진통일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이웃과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녹색생활 실천, 에너지 자원재활용품 수집, 지구온난화 방지, 법·기초질서 지키기, 새마을 협력사업 등 SMU뉴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하며 국가와 고장의 발전에 늘 앞장서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열정과 희생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창립대회가 우리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의 고취는 물론, 충남발전을 위한 기틀을 새롭게 마련하고 행복한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Y-SMU 충남포럼 창립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청남도새마을회'의 무궁한 발전과 뉴새마을운동의 성공,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사진대전 <2012.12.22. 보령 문화예술회관>

사진예술은 사람과 자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

「제42회 충청남도 사진대전」이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지역 사진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협의회 '이춘배' 회장직무대행님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아름답고 다채로운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입상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훌륭한 작품을 선정해주신 심사위원님들과 소중한 작품으로 응모해주신 참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예술은 사람과 자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한 장의 사진으로, 극히 짧은 순간을 정지시켜 표현하는 가치창조의 예술로서, 한 시대의 역사와 삶속에서 피어나는 빛과 어두움 그리고 희로애락은 물론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왔습니다.

이번 대전에 출품된 한 컷 한 컷의 작품에도 도내사진인 여러분들의 우리민족 정서에 대한 예술가로서의 혼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도민들에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42회 충청남도 사진대전」이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사진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훌륭한 작가와 작품들을 많이 배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예술의 길을 걷고 계신 지역 사진예술인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다시 한 번 사진대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도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족통일 충청남도대회 및 통일문예제전 시상식
<2012.12.27. 청양군 문예회관>

자유민주 수호 의지를 더욱 새롭게 다짐

오늘, 상생과 공영을 위한 「2012년 민족통일 충청남도 대회 및 제43회 한민족통일 문예제전 시상식」이 충절의 고장 청양에서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해 오신 '김광석' 민족통일 충청남도협의회장님과 시·군협의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뜻 깊은 자리를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여러분을 비롯한 청양군민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민족통일협의회 회원여러분!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근래 들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청소년들을 비롯한 도민들의 올바른 통일관 정립을 위해 앞장서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남북청소년 교류의 장 마련, 대북지원 사업, 통일교육 및 강좌 등 통일의지의 고양과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펼침으로써 민족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지

킴이로써 확고한 통일관을 도민의 가슴에 새겨주시고, 통일의식 고취와 자유민주주의 실천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국가 건설에 이바지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조국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결속을 강화하고 자유수호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조국통일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우리 사회의 통일의식 확산에 앞장서 영예로운 수상을 하시는 여러분께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년사 <2012.12.31.>

도민의 정성과 역량을 한데 모은 한해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임진년(壬辰年) 한 해 동안 우리 충청남도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도민여러분의 정성과 역량을 한데 모아 세종시 출범과 도청이전사업 등 지역현안을 순조롭게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소중한 한해였습니다.

다가오는 계사년(癸巳年) 새해에도 200만 도민의 든든한 대변자로서 도민을 진정으로 섬기며,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충남도의회'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얼마 남지 않은 임진년(壬辰年) 한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 계획을 알차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도민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9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2012. 7. 12 ~
2014. 6. 30

이준우 의장
연설문집

도민과 함께

(2013년도)

신년사 <2013.1.1>

희망찬 내포시대 개막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희망찬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소망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공적 출범과 도청사 내포신도시이전 등 지역 현안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내포시대를 여는 계사년(癸巳年) 새해는 지역균형발전과 환(環)황해권의 중추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 해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내포신도시의 안정적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0만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 세계적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새로운 충남시대를 활짝 열어 갈 수 있도록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도민을 진정으로 섬기며, 잘 사는 충남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계사년(癸巳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일보사 주최 신년교례회 <2013.1.2. 도청 대회의실>

'일류충남'을 향한 희망을 가득 담아

희망찬 계사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계사년 새해는 지역균형발전과 환(環)황해권의 중추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내포에서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 해입니다.

올해 우리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민생활 안정과 더불어 잘사는 충남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일류충남'을 향한 희망과 마음을 가득 담아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계사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여성계 신년교례회
<2013.1.9. 예산 라뽐므 웨딩컨벤션>

새로운 충남시대 여성이 이끌 것

존경하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내빈여러분!

희망찬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계사년(癸巳年) 새해를 맞아 소망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공적 출범과 도청사 내포신도시이전 등 지역 현안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명남'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내포시대를 여는 계사년(癸巳年) 새해는 우리도가 지역 균형발전과 환(環)황해권의 중추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 해입니다.

올 한해,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내포신도시의 안정적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0만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 세계적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새로운 충남시대를 활짝 열어 갈 수 있도록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도민을 진정으로 섬기며, 잘 사는 충남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저는 여성지도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혜가 따뜻하고 행복한 충남을 만들고 선진 일류국가를 앞당기는 소중한 밑거름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활동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사가 우리지역 여성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의 고취는 물론, 충남여성발전을 위한 기틀을 새롭게 마련하고 행복한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충청남도 여성계 신년교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충우회 신년교례회 <2013.1.24. 예산 더 센트럴 연회장>

도민행복과 일류충남을 위해

희망찬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충우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우리 앞에 펼쳐진 계사년 새해는 지역균형발전과 환(環)황해권의 중추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내포에서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 해 입니다.

새로운 내포시대 원년을 맞아 우리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지로 성장할수 있도록

충우회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민의 행복"과 "일류충남"을 향한 희망과 마음을 가득 담아 만세삼창을 하겠습니다.

충남 사랑 만세!

충남 행복 만세!

일류 충남 만세!

감사합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장 이취임식
<2013.1.25. 도청 대회의실>

우리가 가야할 길, 농업과 농촌 발전의 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땀흘리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 연합회 제14대 집행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연합회를 잘 이끄시고, 충남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몸소 실천하신 '유근준' 전임회장님 및 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리더십으로 충남연합회를 이끌어 가실 '이두영' 회장님과 14대 임원 여러분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의 활로 개척과 연합회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1만 2천여명의 연합회 가족 여러분,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는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연합회는 오직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 한길을 매진해왔습니다.

우리의 농업을 책임지고 나갈 의식있는 후배들을 발굴하고, 급변하고 있는 농업 여건의 변화에 대해 올바른 농업정책을 수립하여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사회, 경제, 정치적 권익향상을 위한 대변자로서

충청남도의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할 길, 농민과 농촌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은 길고도 멀고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우리 앞에는 한중 FTA라는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현재 4차례 협상을 종료한 한·중 FTA 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가 바로 농업분야입니다.

우리道 농업 피해 예상액은 3,662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3농 혁신을 도정의 제일 목표로 설정하고 농업문제에 매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충청남도 의회에서도 3농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이 있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충청남도 의회는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늘 여러분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충남 농업발전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충청남도에게도 아주 중요한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충남의 역사는 새로 쓰여질 것입니다. 연합회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 14대 임원 여러분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계사년 새해 회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복싱연맹 회장 이취임식
<2013.1.26. 보령 종합터미널내 노블리안 웨딩홀>

복싱을 통한 용기와 투지를 기억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계사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충남복싱연맹을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끄시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매년 전국체전 상위입상으로 충남 체육 발전에 기여해주신 '박병후' 전임 회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리더십으로 충남복싱협회를 이끌어 가실 '한상정'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충남 복싱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충남 복싱연맹 회원 여러분, 우리는 복싱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속에서 세계 정상에 오르는 인간승리의 모습을 많이 봐 왔습니다.

선수들이 보여준 용기와 투지를 기억하고 있고, 희망이라는 의미를 도민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상정' 회장님의 취임과 함께 가일층 충남복싱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도립청양대학 학위 수여식
<2013.2.14. 충남도립청양대학 해오름관>

젊음의 패기와 뜨거운 열정 간직해야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충남도립 청양대학의 2013년도 학위 수여식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영예로운 학위를 수여받는 461명의 제14회 졸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졸업생들을 훌륭한 인재로 육성해 주신 '최석충'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과 정성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신 학부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학교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안희정' 지사님, '이석화' 청양군수님, '김정숙' 도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졸업이라는 큰 기쁨과 함께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한껏 부풀어 있을 줄 압니다.

더불어, 이 시대의 젊은이라면 누구도 겪고 있는 취업의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념과 의지가 벽에 부딪치고, 힘이 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졸업생 여러분! 인생은 좋은 날과 힘겨운 날이 반복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좌절하는 상황에서 절대 희망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젊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쉬운 일은 없을 것 입니다. 힘들게 얻은 것일수록 성취감은 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고 젊음의 패기와 뜨거운 열정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실패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 질 것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애쓰고 보살펴 주신 부모님들과 가족, 교수님들이 있었기에 이 자리는 더욱 소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학위취득과 졸업을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3농혁신전진대회 <2013.2.15. 도청 문예회관>

힘을 모으고 단결하여, 충남농업의 미래를 밝히자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시는 3농 혁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충남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1회 3농혁신 전진대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농어업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3농 혁신 가족 여러분!

저도 농사를 짓는 농업인입니다. 농촌을 지키며 농어업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존경하며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을수 있는 농업 발전 정책을 발굴하고, 최대한 지원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희정 도지사께서는 취임과 더불어 농어업과 농어촌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3농 혁신을 도정의 목표로 놓고 지난 2년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뒤돌아보면, 친환경 고품질 쌀인 청풍명월 골드 출시와, 당진 관내 89개 학교에 지역 농산물 공급, 3농 혁신 대학 운영으로 지역 리더을 육성하는 등 많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기계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3농 혁신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고 단결하고, 노력한다면, 충남 농업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 우리 도의회가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오늘 전진대회가 충남 농어업의 밝은 미래를 다짐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길 기대하며, 연이은 추운 날씨에 더욱 건강을 잘 챙겨주시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관리소 서산사무소 개소식
<2013.2.18. 충청남도 수산관리소 서산사무소>

깊고 깊은 바다의 가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우리도의 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충청남도 수산관리소 서산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청사 준공에 기여하신 관계자 여러분 !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어업인 여러분 !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빈 여러분 깊고 깊은 바다의 부가가치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산업의 가치는 단순한 '고기잡이 산업'이 아닌, 해양 바이오 산업, 국가 안보차원 문제, 환경보전 기능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도는 어업인구와 어선보유량 등이 전국 3위로 바다의 고장입니다. 특히, 서해안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산업은 FTA에 따른 수입개방, 자원감소, 연안오염등 어업 경영여건 악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에서는 수산업을 3농 정책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사업, 갯벌 참굴 양식 육성, 김 클러스터 구축, 해삼 특화단지 조성 등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최근 해양수산부의 충청권 유치를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도의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부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분명히 우리 수산업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오늘 개소한 서산사무소가 많은 어업인들이 이용하고, 활용해서 우리도 수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연이은 추운 날씨에 더욱 건강을 잘 챙겨주시고, 여러분 모두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개선 충청남도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2013.2.27.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대강당>

여성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희망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생활개선 충청남도연합회 제10대 집행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연합회를 이끌어 가실 '이숙하'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농업인들의 권익 향상과 연합회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연합회를 잘 이끄시고, 헌신적인 노력을 하신 '이영희' 전임회장님과 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합회 가족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과 농촌의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생활 구석구석에는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어머니, 아내, 며느리, 농사일 등 1인 4역을 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뵈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의 희망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봉사활동도 활발히 하시고, 충남향토 음식

명품화, 농촌의 건전한 생활문화 개선,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1만 4천 충남연합회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활동이 우리 농촌을 희망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농업의 경영자로서 행복한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한번, 생활개선 충청남도연합회 제10대 임원 여러분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도립청양대학 입학식
<2013.2.28. 충남도립청양대학 해오름관>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시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586명의 신입생 여러분! 오늘 우리 지역 인재 육성의 요람인 충남도립 청양대학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사랑과 정성으로 뒷바라지 해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오늘 입학식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초, 중, 고 12년간 여러분 인생의 기초공사를 했다면, 이제 성인으로써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을 시작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활에 대한 낭만, 기대감과 더불어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을 줄 압니다.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의 2년간 대학 생활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갈고 닦아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석충'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과 학교 관계자들께서 멘토가 되어 여러분들을 도와 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586명 모두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이끄는 큰 인재로 성장하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모쪼록, 자랑스러운 청양대학인으로서 여러분의 꿈과 끼를 캠퍼스 안에서 키우는 소중한 대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입생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청양대학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1절 기념행사 <2013.3.1.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3·1 운동 정신은 대한민국의 원동력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

뜻깊은 제94주년 3.1절을 맞아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94년 전 우리 선조들은 지역과 계층, 종교, 이념의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일제의 총칼에 맞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떨쳤습니다.

3.1운동의 고귀한 나라 사랑 정신은 조국 광복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어 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선조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일궈낸 우리 조국을 사랑하고, 3.1 운동의 정신으로 조국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잘 계승해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물려 주어야 하

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것을 바쳐 독립된 나라와 불굴의 민족혼을 물려주신 순국선열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중앙협의회 총회
<2013.3.13. 덕산리솜스파캐슬>

적십자사의 봉사로 만들어지는 살맛나는 세상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중앙협의회 총회가 우리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김유철 회장님을 비롯해 전국에서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국 각지에서 사랑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13만여 봉사회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봉사회원 여러분!

우리사회가 각박해 보이기도 하고, 사랑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가 살맛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 옆에는 항상 노란 조끼를 입은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활동은 우리 사회의 화합과 상생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위대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서로의 따뜻한 손을 맞잡고 사랑과 봉사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우리 지역을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좋은 추억을 간직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애인특장차량 키 전달식

<2013.3.15. 의회 야외주차장>

사랑의 마음을 전달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발이 되어줄 장애인 특장버스를 운행하게 되어 축하드리고, 구입하기까지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차량으로 도내 장애인들의 체육행사 이동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장애인 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선수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조심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운행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초 박학규 선생 수덕사 특별초대전
<2013.3.21.~4.10. 수덕사 선미술관>

장인의 혼과 정신을 맛볼 기회

따뜻한 봄, 추사 김정희 선생의 소박하고도 강건한 필치와 서각의 참 멋을 느낄 수 있는 해초 '박학규' 선생님의 서각 전시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추사체는 글씨이면서도, 글씨를 뛰어넘어 예술입니다.

이런 예술을 서각으로 재현한 해초 선생님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쓸모없는 나무도 서각가의 손을 거치면 예술품으로 되살아납니다. 해초 선생님의 혼과 정신이 깃든 서각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추사 선생님의 올 곧고 변함없는 정신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시된 작품 하나하나는 옛 선조들의 정신이 깃든 훌륭한 전통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서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각만이 가진 감동과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해초 박학규 선생님의 전시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활발한 작품활동으로 서각 예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주~청라 남북관통도로 준공식
<2013.3.28. 청라터널 입구 소공원광장>

소통과 지역발전의 통로가 될 것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의회 의장 이준우 입니다.

오늘, 성주~청라 남북 관통 도로의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준공식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보령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폐광이 많은 성주지역 발전을 위하고, 풍광이 좋은 성주산 자연휴양림의 관광 인프라 활용을 위해 본 도로가 하루빨리 준공되기를 고대해 왔습니다.

오늘 준공되는 성주~청라 남북 관통도로를 통해 성주면과 청라면의 인적·물적자원이 최단시간, 최단거리로 소통되고, 성주산 자연 휴양림, 심연계곡과 청라면 청천호 및 냉풍욕장 등을 많은 분들이 찾아 우리 지역발전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보령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주~청라 관통도로의 준공을 축하드리며,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전진대회
<2013.4.2. 도청 문예회관>

일미칠근(一米七斤)의 노력

우리 충남의 친환경 농업을 이끄시는 충남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친환경 농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전진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선, 새롭게 연합회를 이끌어 가실 '전양배'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충남의 친환경 농업 발전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우리도의 친환경 농업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이임하신 '주형로' 연합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옛말에 쌀한톨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일곱근의 땀을 흘린다는 일미칠근(一米七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더 많은 땀을 흘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과 농촌은 너무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찾은 "해답"이 바로 "친환경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업은 우리 농업의 발전 방향이자, 달성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도의 3농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과 관내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을 통해 우리의 식탁에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오후까지 친환경 농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유익한 토론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전진대회 개최를 축하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도청 신청사 개청식 <2013.4.4. 신청사 광장>

21세기 환황해권 중심으로, 도약의 기회

자리를 함께 하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 입니다.

성공적인 도청이전과 내포시대 출범을 기념하기 위한 개청식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10만 도민의 염원이었던 도청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오늘 개청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210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내포시대를 맞아 내포신도시가 21세기 환황해권 중심도시, 대한민국과 충청남도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도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드리고, 더 발전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개청식을 통해 15개 시·군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 21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따뜻한 4월의 봄햇살과 같은 따뜻하고, 행복한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충남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개청식에 참석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41회 보건의날 및 정신건강의 날
<2013.4.8. 도청 문예회관>

100세 시대 잃지 말아야 할 것, 건강!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향긋한 봄내음이 가득한 4월을 맞아 「제41회 보건의 날 및 정신건강의 날」 행사가 개최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시는 보건의료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신 공로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기관과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 가족 여러분!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는 말처럼, 건강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 칠십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100세 시대가 도래 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81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은 더욱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여러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만큼 도민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우울증과 자살 등 정신건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전예방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당부드립니다.

도의회에서도 우리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여러분들이 맡고 계신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행사가 도민들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계기로 발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한번「41회 보건의 날 및 정신 건강의 날」행사를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이·통장 체육대회
<2013.4.11. 아산시 신정호수 야외음악당>

주민과 행정의 연결고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시는 5,500분의 이·통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아산시민의 아름다운 휴식처인 신정호에서 「충청남도 이·통장 연합회 체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멀리서 찾아주신 '이중규' 중앙회장님과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정헌태' 도 지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통장연합회원 여러분!

지역의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을 위해 항상 앞장서서 봉사하시는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정과 의정이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 여러분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항상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야말로 주민이 뽑아준 진정한 마을의 리더이시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국가와 지역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해지고 있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주민과 행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 충남은 새로운 내포시대를 맞아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층 더 발전하는 충남을 만들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데 이·통장님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는 항상 이·통장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자리는 여러분이 주인공이니만큼, 오늘 마음껏 즐기시면서 서로의 친목을 다지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통장연합회 충남도지부'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 창립 1주년
<2013.4.12. 천안 신세계백화점 문화홀>

대한민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 기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한국여성경제인 연합회 충남지회 창립 1주년을 맞아 우리 도내 여성경제인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창립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지역 여성경제인의 역할 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을 수고하신 '박오순' 회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는 여성들의 역할과 비중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21세기를 "여성의 세기"로, 세계적 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여성이야말로 21세기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체'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여성의 역할과 잠재력의 적극적인 활용 없이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이나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경제부분에서도 이미 많은 곳에서 여성경제인들이 글로벌 경제가 침체의 늪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활약을 통해 경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계신 여성 경제인 여러분께서도 우리지역 여성경제인의 구심체로서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의 내실을 다지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 특유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유연한 사고, 풍부한 감성 리더십으로 지역 경쟁력을 더욱 높여 주시고,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기업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창립 1주년을 축하드리고, 여기 계신 여성경제인들께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3회 장애인의 날, 희망충남 어울림 축제
<2013.4.19. 아산시 신정호 야외음악당>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사랑하는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제3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의 모든 장애인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고, 큰 용기를 가지는 '희망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지극한 사랑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역경을 이겨내고 올해의 장애인 상을 받으신 열다섯 분의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장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장애를 극복하고,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열다섯 분을 보면서 희망과 용기를 느꼈습니다. 장애라는 것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도 더 큰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일어서는 데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이 넘지 못할 장벽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극복을 통해 인생의 축복으로 변화시킬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사회는 무엇일까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아무런 차별 없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단순한 지원을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조화롭게 더불어 사는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제도와 복지서비스가 한층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대로 열악한 장애아동의 교육여건과 장애인의 높은 취업의 벽 등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의회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노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우리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벽이 허물어지는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참석해 주신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 항상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정부패 없는 충남교육 만들기 의정토론회
<2013.4.24. 홍성도서관>

전화위복의 기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충남 교육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충남 교육계의 인사비리를 비롯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이은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지철'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주제발표와 토론을 해 주실 패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충남 교육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충남 교육계는 장학사 인사 비리 등으로 어려운 위기에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충남 교육이 작금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다시한번,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등이 모인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충남교육이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충남 교육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과 해법을 제시해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 행복한 충남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2013.5.4. 도청 문예회관>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따사로운 봄날씨가 좋은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개최를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또한, 오늘 상을 받으신 모범청소년과 청소년육성 유공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이성진 충청남도청소년 진흥원 원장님과 관계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한 능력과 모범을 보인 청소년들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올바른 정체성으로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청소년 여러분들을 보니,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여러분 중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배우는 것"을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는 과정동안 때로는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힘들더라도 배움의 과정속에서 삶의 지혜를 터득 하고 꿈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이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가장 왕성한 성장을 경험하는 변화의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은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충남도의회도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시한번,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6회 지적의 날 <2013.5.6. 문예회관>

땅은 소중한 우리 삶의 터전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도민들의 재산권을 책임지시는 지적인 여러분!

「제36회 지적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신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 가족 여러분!

땅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자, 삶의 터전이며 공간입니다.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지어 식량을 생산하고, 집과 건물도 지어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땅에 경계를 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호적과 주민등록이 있듯이 여러분들께서는 지적이라는 일을 통해 모든 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라의 지적 현실은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기초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국토의 15%가 지적이 불합치되어 지적측량에 따른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2030년 까지 새롭게 지적재조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측량한 지적을 바꾸는 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소유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은 들겠지만 도민 누구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만큼 도민들의 재산 가치는 상승하고 삶의 행복지수가 높아 진다는 걸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에서도 우리 도민의 재산권을 책임지시는 여러분들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행사가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우리 지적업무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제36회 지적의 날」을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4회 충청남도 장애인 합동결혼식
<2013.5.7. 공주 백제체육관>

서로에게 최고의 배우자가 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향긋한 봄내음이 가득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많은 분들의 축복속에 「제14회 충청남도 장애인 합동 결혼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희망과 꿈을 잃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인생의 새 출발을 기약하는 열일곱 쌍의 신혼부부 여러분께 우리 다 함께 큰 격려의 박수 부탁 드립니다.

또한, 지금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주신 부모님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결혼식 준비에 수고해 주시는 자원봉사자, 관계자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랑신부 여러분 !

오늘 제가 여러분을 보니, 신랑분들은 너무 믿음직스럽고, 신부님들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 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게 되고, 여러분이 이룬 가정은 값을 매길수 없고, 정말 소중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배우자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 하고 소

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한 선배로써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의 성공은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배우자가 되는 데에 있다" 는 말이 있습 니다.

항상 배우자를 배려하고, 배우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려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에 있더라도 두 사람이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며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가 된다면 그 어떤 시련과 고통도 이겨내면서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늘 처음처럼 서로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혼식이 새로운 용기와 희망으로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뜻 깊은 결혼식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열일곱쌍의 신혼부부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6회 전국남녀 내포제 시조경창대회
<2013.5.10. 대천문화원>

시조, 마음의 평온을 심어준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우리의 옛 음악이 생각나는 따뜻한 5월을 맞아, 역사와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이곳 보령에서 『제16회 전국남녀 내포제 시조경창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보령지역 전통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이처럼 의미 있는 대회를 준비해 주신 '김장국' 충남통합시우회 보령시 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의 전통 음악인 시조의 대중화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시조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조인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역사와 전통이 깃든 시조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조상들의 혼이 깃든 아름다운 소리를 보존하고 계승하신것에 대하여 매우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오히려 현대인들의 정신은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옛 조상들의 지혜와 정신이 깃든 시조를 통해

마음의 평온을 느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시조경창를 통해 시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건전한 정서함양은 물론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전승보급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저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시조인 여러분들의 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시조창 문화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통합시우회 보령시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시조인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4차 충남·세종지구 JC 회원대회
<2013.5.11. 천안 유관순체육관>

「젊은 생각, 젊은 행동」의 열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제44차 충남·세종 지구 JC회원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충남·세종 지구 '엄순천' 회장님과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동천안 청년회의소김기호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JC가족 여러분!

우리나라 JC는 1951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을 청년운동으로 재건하자"는 취지로 창립된 이래, 희생과 봉사의정신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체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또한, 충남·세종 지구 JC는 『젊은 생각, 젊은 행동』이란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해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앞장서고 계신 JC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충청과 세종은 대한민국의 중심지로써 역동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젊은 패기와 열정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JC회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충남과 세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젊음의 패기와 열정을 존경하고,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대회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고,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JC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만남의 광장' 행사
<2013.5.14. 유관순체육관>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의 마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제32회 스승의 날을 맞아 사제지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한 『2013 선생님과 만남의 광장』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선,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과 정성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충청남도새마을부녀회 '이희자'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

5월 15일, 내일이 "스승의 날" 입니다.

해마다 이 시기에는 학창시절의 감회가 문뜩 떠오르곤 합니다. 다들 학창시절에 한번씩은 선생님께 속썩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 내일 잊지 못할 은사님들께 찾아가거나, 혹은 전화 한통 드린다면, 선생님들께서 더 없이 기뻐하실 겁니다.

다들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옛말에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처럼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이라는 말로, 그만큼 스승의 감사와 은혜가 높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선생님들께서는 단지 학문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참된 가르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나라가 유지되고, 교육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사랑하는 제자들과 많이 웃고 즐기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2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

<2013.5.14. 도청 문예회관>

식품안전은 도민안전의 제1순위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제12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관리를 책임지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유공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 !

우리는 부정,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소식을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드디어, 새 정부가 출범하며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더불어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선정하고, 반드시 근절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이 먹거리 문제로 얼마나 불안해 하고 계신지, 큰 문제로 여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크게는 이웃과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킴이로서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12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를 축하하며,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관리를 책임지고 계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7회 충남시각장애인 체육대회
<2013.5.16. 보령종합경기장>

편견과 장애의 벽을 넘는 진정한 승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봄의 절정인 5월에 보령종합경기장에서 「제7회 충남시각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처럼 성대한 화합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많은 땀을 흘리셨을 선수단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저는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체육활동을 하시는 출전선수단 모두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출전하신 모든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 모두가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스스로 사회의 편견을 이겨내고 장애의 벽을 뛰어넘어 오랜 시간 고된 훈련을 이겨내신 진정한 승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 여러분 모두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210만 도민 모두는 여러분이 펼쳐 주시는 화합의 축제에 큰 격려과 박수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끝으로, 부디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건강한 체전이 되기를 바라며, 대회준비와 손님 맞이에 정성을 다해 주신 충청남도 체육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발전협의회 정기총회 <2013.5.22. 도청 대회의실>

충남발전의 동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충남발전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도민 화합과 충남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충남발전협의회 '임동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남발전협의회 회원 여러분 !

그동안 충남발전협의회는 충남도의 동반자로 충남지역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충남의 현안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개최, 치과의료봉사단 운영, 지체장애인 합동결혼식 및 자활정착사업 지원, 장학사업 등 밝고 건강한 충남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사랑과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는 내포시대를 맞아 새롭게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명실 상부한 최고 명품도시로 건설하고, 21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210만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총회가 회원 여러분들의 지혜가 모여 도정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많은 노고를 기울이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3농혁신 임산물 소득증대 교육과정
<2013.5.24. 보령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무한한 푸른 산림의 가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충남 임업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여러분들의 「3농혁신 임산물 소득증대 과정」 교육 입교를 축하드립니다.

임업인 여러분!

우리는 전후 산림녹화에 가장 빠르게 성공한 세계 유일한 국가로, 우리의 산림녹화는 세계적인 자랑거리이자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모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꾼 푸른 산림은 경제적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휴식처, 동식물의 보고, 나아가 지구 온난화로부터 인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꿔온 산림으로부터 얻을수 있는 임산물의 경우 과거에는 임업정책이 규제로 인해 개발을 하지 못했지만, 현대의 임업정책은 개발과 함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버섯 등 임산물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고 있고, 임산물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임산물을 활용한 농촌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여기 계신 임업인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에 우리도는 밤이나 표고버섯 등의 임업부문에 있어서 전국에서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도의 임업분야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도 임업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차게 교육을 받으시고 우리지역 보령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자 한마음 다짐대회 <2013.5.25. 도청 잔디광장>

210만 도민의 행복지기, 충남 도청가족 화합의 날

도청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이 좋은 계절과 좋은 날씨에 충남도청 가족들과 함께 한마음 다짐행사를 하게 되어 매우 반갑고 즐겁습니다.

그동안 도 청사 이전과 내포 신도시 조성사업, 3농 정책 등 210만 도민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 의장으로써 항상 도정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충청남도가 존재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더욱 정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수록 210만 도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푸른 잔디위에서 여러분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우리 도의 희망찬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뜻을 같이하고, 도민들과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충남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210만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 계신 도청가족 여러분들은 건강관리 및 자기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은 그동안의 업무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기념 행사 <2013.5.25. 도청 문예회관>

가정과 부부는 행복의 기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기념하기 위한 『가족사랑, 가족행복』 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범부부 및 가족복지 유공자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가족 여러분!

직장 등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가족이 있는 집에 오면 피로가 확 풀리고 편안해 짐을 느꼈을 겁니다.

이렇듯 가족은 늘 우리에겐 편안한 안식처죠.

하지만. 최근 통계조사에 의하면 가족들과의 대화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족보다 주변사람과 상의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귀찮더라도 가족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행복을 찾고, 행복해 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훈으로 많이 쓰고 있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말을 잘 아실겁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가족간에 늘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려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부의 날을 맞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는 행복한 가정의 기초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배우자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오늘 가족들과 즐겁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지도자 한마음 전진대회
<2013.5.27. 용봉산 주차장>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파수꾼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및 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전국에 계신 자유총연맹 회원들께서 충남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홍성의 명산인 용봉산에서 한마음 전진대회를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화합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기웅'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총연맹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대표적인 국민단체로 국민 안보의식 함양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는 나라사랑뿐만 아니라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나라사랑은 말로는 쉽지만 실천은 결코 싶지 않은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나라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일본의 우경화 등으로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럴 때 일수록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힘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충남도의회도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홍성에서 한마음 전진대회를 통해 한국자유총연맹의 단합과 화합이 더욱 굳건해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한국자유총연맹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충남 문화 대축전 <2013.5.31. 도청사 백제몰>

도민 대화합의 축제

자리를 함께 하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도청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15개 시·군이 화합하고, 210만 도민이 함께하는 『새충남 문화 대축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10만 도민 여러분 !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210만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의 한마당 축제가 될 것입니다.

충남 15개 시·군의 화합을 통해 210만 도민들이 행복해지고, 더 발전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간 한결같은 도정과 의정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장 군수님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모두 힘을 하나로 모아, 시·군의 발전을 통해 충청남도가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도민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도민 화합의 장을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장애인 체육대회 <2013.5.31. 서산시종합운동장>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희망의 에너지

자랑스러운 충남 장애인 선수 및 임원 여러분!

오늘, 내포문화의 중심이자, 서해안권의 중심인 서산에서 「제19회 충남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처럼 성대한 화합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완섭 서산시장님과 우리 선수들을 반갑게 맞아주신 서산시민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많은 땀을 흘리셨을 선수단 여러분께도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 시·군의 대표선수로 당당하게 출전하신 선수 여러분 모두 정말 장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출전하신 모든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 모두가 최고의 선수라고 믿습니다.

이미 스스로 사회의 편견을 이겨내고 장애의 높은 벽을 뛰어 넘어 오랜 시간 고된 훈련을 이겨내신 진정한 승자이기 때문입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 참가 선수들 중 최고령은 87세고, 최연소는 9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 여러분 모두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210만 도민 모두는 여러분이 펼쳐 주시는 감동의 순간마다 큰 박수와 격려를 보내드릴 것이며, 여러분이 발산하는 에너지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부디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건강한 체전이 되기를 바라며, 대회준비와 손님 맞이에 정성을 다해 주신 서산 시민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선수단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1회 전국연극제 개막식 <2013.6.1. 도청 문예회관>

열정으로 수 놓는 최고의 연극제

자리를 함께 하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연극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발하는 충남의 내포신도시에서 『제31회 전국연극제』가 개최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런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윤봉구' 연극협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수준 높은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노력하신 극단과 연극인 여러분의 충남 내포신도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극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

전국연극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연극 축제로 전국의 대표 극단들이 모여 대통령상을 놓고 경연하는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연극제가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최고의 연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펼쳐 주시는 연극을 통해 충남의 문화예술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210만 도민들은 여러분께 큰 성원과 격려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오늘부터 20일간 도청 문예회관, 홍성 홍주문화회관, 예산문예회관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연극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제31회 전국연극제가 많은 관객들이 찾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바라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회 전국실버 노래자랑 <2013.6.2. 대천체육관>

활기 넘치는 행복을 위해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숨겨진 노래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축하드리며,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향토음악인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

저는 당연히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생활을 더욱 건강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데는 춤과 노래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평균수명이 100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노년기의 세월을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노년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보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실버노래자랑 행사는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연하시는 열네분 모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맘껏 발휘하시고, 연말에 있을 전국대회에서 꼭 우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

니다.

이런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많이 많이 웃으시고,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확 푸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함께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돈독한 우정을 나누시는 화합의 장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대회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여 우리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7회 시설입소 어르신 및 근무자 한마음대회
<2013.6.4. 롯데부여리조트>

더욱 아름답고 살맛나는 사회 만들자

안녕하십니까 ?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초여름의 기운이 완연하고 신록의 향기가 깊어가는 오늘 『제7회 시설입소 어르신 및 근무자 한마음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어르신들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고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충남노인복지협회 '정 용'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열한분의 수상자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 관계자 여러분 !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묵묵히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사회가 더욱 아름답고 살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사회를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연세가 들면서 심신이 나약해 짐에 따라 부득이 시설에 입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드릴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취임사에서 『국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어르신께서 건강하고 즐거운 여생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한마음 대회가 어르신들과 근무자들이 하나가 되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0회 충청남도 서예대전

<2013.6.8. 공주 문예회관>

절제와 조화의 예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묵향과 같은 향기가 나는 계절을 맞아 「제20회 충청남도 서예대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한국서예협회 충청남도지회 '이일권' 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뜨거운 열정으로 작품을 출품하시어 입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서예인 여러분!

서예는 수천년을 우리 민족의 역사와 생활과 함께 발달해 온 가장 고유한 민족 전통예술입니다.

우리는 서예의 먹의 농담과, 점과 획이 빚어내는 절제와 조화의 아름다움으로 우리 민족의 선비정신과 풍류사상을 담아왔습니다.

또한, 지금은 개인의 정신 함양을 위한 평생교육의 한 분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서예대전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고, 그 의미가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의 품격높은 서예 작품들을 접하면서, 서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가해 주신 작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찬사와 격려를 보내면서,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고매하신 예술혼으로 우리의 서예 발전을 위해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충청남도 서예대전」이 210만 도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잔치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9회 재인천 충남도민체육대회
<2013.6.8. 인천대학교 도화동캠퍼스 대운동장>

고향사랑으로 하나 되는 날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인천에 살고 계신 출향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초여름의 기운이 완연하고 신록의 향기가 깊어가는 6월 재인천 충청향우회 여러분들의 한마당 축제인 『제9회 재인천 충남도민체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재인천 충남향후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한조' 재인천 충남도민회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천 향우 여러분!

항상 고향인 충남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의 고향 사랑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는 내포시대를 맞아 새롭게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발판으로 충남도는 100년 앞을 내다보는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21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만들고,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명실 상부한 최고 명품도시로 건설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향사랑의 마음으로 충남의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충남도의회는 항상 여러분들의 의견에 대해 눈과 귀를 열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가 그동안 못다한 고향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많은 정담을 나누시고, 가슴깊이 기억되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재인천 충청향후회의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SGI 특별 표창식

<2013.6.10. 한국SGI 홍성문화회관>

평화, 문화, 교육에 대한 공헌에 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에 많은 봉사활동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SGI의 이케다 다이사쿠 회장님과 이케다 가네코 여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SGI(SOKA GAKKAI INTERNATION, 국제창가학회 : 국제적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학회임. 일본에서 시작한 불교의 한 종류임)

또한, 누구보다 보령을 사랑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활동에 애쓰시는 보령 SGI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SGI 회원 여러분!

제가 알기로 SGI는 평화, 문화, 교육에 대하여 인류에 공헌을 하는 불교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빈부의 차이를 비롯해 사회에서 많은 갈등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인류의 위기를 SGI의 인간주의 철학에 기초한 불교의 가르침으로 우리 자신과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종교활동과 더불어 많은 사회봉사활동, 한·일 양국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계신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SGI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회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0회 은빛 페스티벌 <2013.6.11. 천안시청 봉서홀>

노년을 아름답게, 활기차게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문화를 제공하기 위한「제10회 은빛 페스티벌 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동규' 한국레크리에이션연구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빈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노인이 되면 건강과, 사회적 역할 등 많은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100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노년기의 세월을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노년기를 남은 인생이 아닌 새로 시작하는 인생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노년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살기위한 여가선용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춤과 노래 등 레크레이션을 통해 정신건강은 물론,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우리의 생활을 더욱 신명나게 하고 스트레스 해소와

치매·소외감 등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이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어르신들을 위한 은빛페스티벌 행사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행사가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끼를 마음껏 발휘하시어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가 되고 노인건강 증진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시는데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함께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돈독한 우정을 나누시는 화합의 장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대회를 주관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여 다양한 노인건강 증진사업을 펼쳐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65회 충남도민 체육대회 <2013.6.13. 홍주종합운동장>

충남의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한마당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수단 여러분!

오늘, 충남의 새로운 내포시대를 맞아 홍성에서 210만 도민 화합의 한마당인「제65회 충남도민 체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홍성의 꿈 미래로 , 충남의 힘 세계로 !』 라는 대회 구호와 함께 이처럼 성대한 도민 화합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석환 홍성군수님과 우리 선수들을 반갑게 맞아주신 홍성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많은 땀을 흘리셨을 선수단 여러분께도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우리는 매년 도민 체육대회를 통하여 도민의 단합과 화합으로 충남 발전을 위한 에너지를 결집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충남도는 도민의 품인 내포 신도시 이전을 했고, 충남의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내포신도시로의 이전과 새로운 충남의 미래는 도민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포신도시로 이전 후, 처음 개최하는 도민 체전이야 말로

도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충남의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고 하나된 충남의 힘을 대내·외에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도민의 한마당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 여러분 모두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후회없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4일간 펼쳐지는 이번 체전이 역대 어느 대회 보다 뜨겁고, 박진감 넘치며, 단결과 화합으로, 가슴벅찬 감동과 희망이 함께하는 최고의 체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회준비와 손님맞이에 정성을 다해 주신 홍성 군민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10만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2013.6.19. 덕산리솜스파캐슬 루비노홀>

상생발전을 통한 더 큰 도약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김기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내포신도시는 2020년 까지 인구 10만명의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대중국 교역의 전진 도시로서 충남 경제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통한 광역 도시권으로의 발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토론하신 내용은 앞으로 내포신도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포신도시가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통하여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과 해법을 제시해서 내포신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3회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2013.6.21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우리문화에 대한 자부심 느껴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오랜 전통으로 맥을 이어온 우리 민속문화를 볼 수 있는 「제23회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이시우 보령시장님과 김원식 중도일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군의 명예를 걸고 참가하신 선수단 여러분과 내·외 귀빈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민속놀이는 시대·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여러 민속놀이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속놀이는 민중이 다 같이 참여하여 만들었고 민중의 염원과 생활양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줄다리기, 씨름, 윷놀이 등 우리의 민속놀이들은 단순한 놀이가 아닌, 이웃간에 서로 정을 나누고, 마을의 협동심과 단결력 등 공동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민족의 전통이 사라져 가는 이 시대에, 오늘 민속 대제전을 통

해서 210만 도민화합의 장이 마련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을 통해 다시한번, 소중한 민속문화에 대해 되돌아보고, 우리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소중한 전통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민속대제전을 통해 시·군간의 승패를 떠나 15개 시·군의 화합으로 다 함께 즐기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 개원 14주년 기념식 세미나
<2013.6.21. 도청 대회의실>

충남여성정책의 싱크탱크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개원 14주년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지역의 여성정책 개발 및 교육을 통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경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에 참석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는 여성들의 역할과 사회적 기여도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21세기를 "여성의 세기"로, 세계적 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여성이야말로 21세기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체'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여성의 역할과 활동 없이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이나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들의 섬세하며 화합과 포용을 중시하는 여성적 리더쉽은 이미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인력을 양성하는 여성정책개발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정책개발을 통해 명실상부한 충남 여성정책의 싱크탱크로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성정책 개발과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오후까지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농업인의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그 역할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세미나가 여성을, 여성농업인을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개원 1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1회 충청남도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2013.6.22. 당진시 실내체육관>

어머니가 건강해야 가정이 행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여름의 길목인 6월, 날은 덥지만 우리 어머니들의 화합의 축제인 『제11회 충청남도 어머니 생활체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또한, 어머니들의 생활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해주신 충청남도 생활체육회 여러분을 비롯한 대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어머니 생활체육인 여러분 !

오늘, 생활체육으로 건강을 다져온 어머니 선수단 여러분을 뵈니 운동장에 활기가 가득찬 듯 합니다.

그동안 우리 어머니들은 살림살이와 육아, 자녀교육, 시부모 봉양, 그리고 가정의 버팀목으로서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버팀목인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가정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듯이, 저는 건강하게 사는 방법으로 생활체육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을 찾을 수 있고, 건강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많이 많이 웃으시고,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푸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도 어머니들이 손쉽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발휘하시고, 따뜻한 정을 나누시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대회준비와 손님맞이에 정성을 다해 주신 생활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과 당진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제20회 새마을여인상 시상식 및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성지도자 워크숍 <2013.6.25. 웅천 비체팰리스 그랜드볼룸>

우리사회를 아름답게 이끄는 따뜻한 손길

충청남도 새마을 부녀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우리고장 보령에서 제20회 새마을여인상 시상식 및 여성지도자 워크숍이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아내로, 며느리로, 어머니로, 새마을 부녀회원으로써 봉사와 희생을 통해 새마을 여인상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뜻 깊은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마을 부녀회원 여러분!

항상 지역에서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시는 '이희자' 충청남도 새마을 부녀회장님을 비롯한 부녀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같이 각박한 사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우이웃돕기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와 희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활동은 우리 사회의 화합과 상생을 이끌었고,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부녀회원 여러분들의 화합과 단합으로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지역사회, 충청남도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늘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우리 210만 도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충청남도 의회도 여러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일까지, 우리 지역에 머무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해변도 산책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워크숍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 여름은 예년보다 장마가 길고,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라며, 좋은 추억을 간직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6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마당
<2013.6.26. 정심체육관>

문화와 예술은 행복한 삶의 필수

사랑하는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장애인들의 숨은 재능을 볼수 있는『제16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마당』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되어 어울릴수 있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권광선' 충청남도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

신체의 불편함을 이겨내고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문화예술 활동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욕구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전한 여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도 문화예술 활동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생활에 활력을 주어 일상생활을 즐겁고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동료장애인들과의 우정, 비장애인과의 다양한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충청남도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여러분들께서 마련해 주신 자리는 매우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도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편히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끼와 재능을 오늘 맘껏 뽐내시고,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하는 장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참석해 주신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항상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7회 충청남도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2013.6.29. 공주시 종합운동장>

가장 행복한 사람들!

존경하는 자율방범대원 및 가족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자율방범가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축제인「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만교' 연합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방범대원 및 가족 여러분 !

남을 위해 도움을 준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은 아닙니다. 순수한 희생정신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기에, 그만큼 보람과 기쁨, 그리고 행복 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남다른 애향심을 갖고

범죄 예방 활동에 헌신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해 주신 가족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그동안 직장생활과 봉사활동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동료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고, 오늘을 행사를 통해 여러분의 단합과 화합이 더욱 굳건해지길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율방범대원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210만 도민을 위해 지속적인 범죄예방과 봉사활동으로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9회 도민합창제 <2013.6.29. 도청 문예회관>

210만 도민화합의 기폭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도청이전을 기념하고 도민들의 화합을 위한 「제39회 도민합창제」 개최를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먼저, 도민 화합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음악협회 충청남도지회 한상복 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합창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화음을 이루었을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합창을 하다보면 서로 마음을 합쳐야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제39회 도민합창제를 통해 15개 시·군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 21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210만 도민의 염원이었던 도청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내포신도시에서 충남의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내포신도시로의 이전과 새로운 충남의 미래는

도민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도민합창제가 210만 도민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 비상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기폭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시·군별 연습하신 노래실력을 맘껏 뽐내시기 바라며, 다함께 즐기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도민화합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0회 충청남도 여성대회 <2013.7.2. 도청문예회관>

여성이 미래를 이끌어 가는 세상

충청남도 여성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도내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고 신여성동력을 깨우기 위한「제30회 충청남도 여성대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여성의 권익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경옥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에 남다른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성가족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조선일보에 한국의 전체인구중 여성인구가 처음으로 절반이 되었고, 통계청에 의하면 2015년 부터는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많아지게 된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여초국가, 여성이 미래를 이끌어갈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회전반의 권력이 여성들한테 이동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혹자는 남성들의 후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전반에 여성들의 참여가 많아질수록, 여성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이 활력이 되고, 우리사회를 공정하고 더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성분들이 일과 가정에서 안전하고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대회를 통해 100만 충남여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교류와 만남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올 여름은 예년보다 장마가 길고,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8회 충청남도 4-H 한마음대회
<2013.7.4.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우리농촌발전의 견인차

4-H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젊음과 패기로 농촌 발전을 주도하고 계신「충청남도 4-H 회원 한마음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행사를 준비해 주신 유영철 충청남도 4-H 본부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4-H 가족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뵈니 매우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우리, 4-H 회원들께서는 어려운 농업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 갈 전문농업인으로서 우리 농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농업을 책임지고 나갈 후배들을 육성하고, 급변하고 있는 농업 여건의 변화에 맞춰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도의 역점사업인 3농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도적

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덕·노·체』 4-H정신과 우리 농업에 대한 애착으로 우리 농업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흘린 땀 만큼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1년 내내 쉴틈없는 일이 농사일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회원 여러분들간의 교류와 친목을 다지고, 즐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여름은 장마기간이 길고, 강한 태풍이 자주 온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습니다.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추진위원회 발족식
<2013.7.8. 도청 대회의실>

내포신도시 초기생활권 형성의 열쇠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먼저, 내포신도시에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애쓰시는 '서만철'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과대학 설립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200만 도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포신도시는 단순한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남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펼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포신도시의 조기조성을 위한 대학병원의 유치는 내포신도시의 초기 생활권 형성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내포신도시의 의료서비스 여건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야간 소아과 병원의 경우 홍성 시내에 1곳이 있는 등 이주한 입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를 둘러싼 인근 시·군 지역의 의료여건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고령화와 고된 농업노동으로 인해 만성질환

보유자가 도시지역의 1.5배에 달하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고로 인한 크고 작은 부상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포신도시에 국립공주대학교 및 병원 설립은 내포신도시의 조기 조성과 인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학과 병원이 하루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시작으로 내포신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뜻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개선충청남도연합회 화합대회
<2013.7.10. 유관순체육관>

우리농촌의 희망은, 여성농업인

생활개선 충청남도 연합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먼저, 오늘 처음으로 연합회원 화합대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합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올 2월에 취임하시어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과 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숙하 회장님과 행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개선 연합회원 여러분 !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과 농촌 생활 곳곳에는 여성 농업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여성농업인으로써 어머니, 아내, 며느리, 농사일 등 1인 4역을 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봉사활동, 농촌의 건전한 생활문화 개선,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1만 4천 충남연합회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중 여성인구가 처음으로 절반이 되었고, 2015년 부터는 여성인구가 남성

보다 많아지게 된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여성의 시대, 여성이 미래를 이끌어갈 사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으로써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기 좋게 만들고, 이끌어갈 분들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활동으로 우리 농촌의 희망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화합대회가 1만 4천여 회원분들의 화합을 돈독하게 하고, 여성 농업인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올 여름은 예년보다 장마가 길고,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6회 충남장애인 풋살대회
<2013.7.12. 아주자동차대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건강하게 사는 방법, 생활체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제6회 충남 장애인 풋살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대회에 참가해 주신 선수 및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회를 준비 해 주신 '김상석' 충남장애인축구협회장님, '권광선'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회가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자원봉사자께도 감사드립니다.

참가선수 여러분 !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건강하게 사는 방법으로 생활체육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을 찾을 수 있고, 건강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장애인 생활체육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체육시설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맘놓고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대회는 승패를 떠나 화합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승부도 좋지만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풋살 경기는 격한 운동이니 만큼 다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웃고 즐기며,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장애인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한「제6회 충남장애인 풋살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기원 대전·충청권 국민 대토론회
<2013.7.16.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

남북통일은 우리의 최우선 미래과제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먼저, 2013년 통일기원 대전·충청권 국민 대토론회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신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회 및 세계일보사 관계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개발 위협과, 금강산 관광중단,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간의 대화 단절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통일기원 대전·충청권 대토론회는 남북문제를 해결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북한이 분단된지 어언 70여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단상황이 지속되면서 통일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발전과 민주화 운동 속에서 이뤄낸 경제적 풍요속에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남침인지 북침

인지를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는 언론을 보도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며, 이러한 현상은 분단현실이 길어질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북 통일은 우리민족의 간절한 소망이며 동시에 우리의 미래 과제들 중에 제일 우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의 중심으로 나가기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뜻 깊은 토론회를 통해 500만 충청권이 통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이번 토론회를 마련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기독교총연합회 특별 구국기도회
<2013.7.17. 논산한빛침례교회>

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새로운 내포시대

여러분 !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우리 충청남도의 성장발전과 210만 도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특별 구국 기도회가 열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충남 기독교 총 연합회" 대표회장이신 '박종서' 목사님과 각 시군 회장님, 아울러 이렇게 훌륭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강신정 논산한빛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뜻 깊은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각 기관·단체장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충남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여, 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충남이 발전하고, 도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4H 연합회 수련대회
<2013.7.18. 보령 대천오성청소년수련원>

우리농촌과 농업발전을 이끄는 4H정신

4H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젊음과 패기로 충남의 농업을 지키시는「충청남도 4H 연합회 수련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행사를 준비해 주신 '박종진' 충청남도 4H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4H 가족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지만,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열정이 가득한 여러분들을 보니 매우 든든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우리, 4H 회원들께서는 어려운 농업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 갈 전문농업인으로서 우리 농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농업을 책임지고 나갈 후배들을 육성하고, 급변하고 있는 농업 여건의 변화에 맞춰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도의 역점사업인 3농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덕·노·체』 4H정신과 우리 농업에 대한 애착으로 우리 농업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흘린 땀 만큼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1년 내내 쉴틈없는 일이 농사일 같습니다.

이번 수련대회를 통해 회원 여러분들간의 교류와 친목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보령의 자랑이자, 대한민국 최고이며, 세계인이 함께하는 제16회 보령머드축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보령에 오신김에 머드도 바르시고, 많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으니 꼭 체험을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성교육 범국민실천연합 충남지부 창립출범식
<2013.7.20. 천안축구센터>

인성교육 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 없어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우선, 선생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인간중심의 교육운동 확산을 위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충청남도 지부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부 설립을 위해 애써 주신 '강동복'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합회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느순간 우리의 조상숭배와 경로사상 등 우리민족의 아름다운 전통문화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을 전인적인 인격형성과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입시교육에 몰두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인성이 결여된 채 오직 지식공부만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리더가 되었을 때 우리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의 배려하지 않고, 본인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올바른 인성교육 없이는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도,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학교마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입시 위주에 밀려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인성교육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충남지부의 창립은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인성교육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인성교육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도 우리 아이들이 참된 인성교육을 받을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충남지부의 창립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16회 보령머드축제 개막식

<2013.7.20. 보령머드광장>

대한민국의 자랑, 보령머드축제

보령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천해수욕장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인 보령머드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주신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런 훌륭한 축제를 준비해 주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귀빈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

지난 1년간 보령머드축제를 많이 기다리셨나요 ?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보령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세계인의 축제를 보면서 저는 보령시민으로써 큰 자부심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축제 기간 동안 "보령 머드"에 흠뻑 빠져 보십시오,

가장 좋은 천연 화장품으로써 안심하고 온몸에 바르시고 뒹굴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령은 머드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령시민들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올 여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55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회
<2013.7.26. 천안 유관순체육관>

스승은 진실과 정의, 사랑과 희생의 이름

대한민국 초등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전국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의 「제55회 한국초등교장 협의회 하계연수회」가 우리 고장 천안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또한, 이번 연수회를 준비해 주신 충청남도 초등교장협의회 최경섭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교육을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과 미래는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들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우리의 교육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사랑과 희생하는 스승님의 모습을 우리는 늘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왔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스승님의 얼굴을 생각하고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어려움을 이겨냈으며,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된 것도 바로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찾아내, 키워주고, 사람됨을 가르쳐주며,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 학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들에게 참 교육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수회를 통해 대한민국 초등 교육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협의회의 발전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드축제기념 제14회 충청남도 남·녀 궁도대회
<2013.7.28. 남포 종합운동장 내 국도장>

궁도사랑과 함께하는 보령머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제16회 보령머드축제기념 「제14회 충청남도 남·녀 궁도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대회 참가를 위해 보령을 찾아주신 선수 및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인 보령머드축제장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김경주' 보령시 궁도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궁도인 여러분 !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은 활과 함께 한 민족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활을 통해 나라를 지켜왔으며, 활을 사용하는 국궁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전통스포츠입니다.

이런 국궁을 계승한 궁도는 심신단련과 호연지기를 키우는 정신수양과 레저스포츠로 폭넓게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평소 갈고 닦으신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시기 바라며, 동호인 여러분들의 즐겁고 아름다운 만남의 장이 되는 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까지 보령의 자랑이자, 대한민국 최고이며, 세계인이 함께

하는 제16회 보령머드축제 기간입니다.

궁도 사랑과 함께 "보령 머드"에 흠뻑 빠져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보령은 머드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실컷 즐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과녁의 정중앙을 맞추는 궁도의 진수를 보여 주시고, 좋은 추억을 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보령을 찾아주신 선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3회 충청남도 농업경영인 대회
<2013.8.1. 아산시 곡교천시민체육공원>

충청남도 농업의 희망이자 미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땀흘리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농업경영인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우의를 다지는 제13회 충청남도 농업경영인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축하드립니다.

먼저 3농 혁신등을 통해 농업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이두영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 연합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급변하는 농업 환경속에도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켜가시는 농업경영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영인 여러분!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는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연합회는 오직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 한길을 매진해왔습니다.

우리의 농업을 책임지고 나갈 의식있는 후배들을 발굴하고, 급변하고 있는 농업 여건의 변화에 대해 올바른 농업정책을 수립하여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사회, 경제, 정치적 권익향상을 위한 대변자로서 충청남도의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할 길, 농민과 농촌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은 길고도 멀고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우리 앞에는 한중 FTA라는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한·중 FTA 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가 바로 농업 분야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3농 혁신을 도정의 제일 목표로 설정하고 농업문제에 매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충청남도 의회에서도 3농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이 있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충청남도 의회는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늘 여러분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충남 농업발전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대회가 농업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우리도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오늘 행사를 축하드리고,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보치아 실업팀 창단식
<2013.8.7. 충남도청 대회의실>

새로운 인생의 커튼을 힘차게 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세계 최초로 창단하는 「충청남도 보치아 실업팀」 창단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창단이 있기까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안희정' 지사님과, '박노철' 충남장애인 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경기단체 임원 및 장애인체육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치아 실업팀 창단을 축하 해 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신중식'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부회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도의 보치아 실업팀 창단은 단순한 스포츠 한종목의 실업팀 창단을 뛰어 넘어 타 자치단체와 기업에게도 최중증장애인 체육 실업팀 창단에 깊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와 경제적 자립,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자랑스런 선수단 여러분 !

우리도의 보치아 팀 구성 면면을 살펴보니 국내외 경험이 풍부

하신 감독님과 트레이너,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와 장래가 촉망되는 신인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좋은 성적과 함께 대단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선수단 여러분의 눈부신 활동으로 충청남도의 명예를 국내외적으로 드높일 것으로 확신하며, 250만 장애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불어 넣어 주게 될 것입니다.

강한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훈련에 매진하여 축하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

그 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우리 충청남도와 함께 용기와 열정으로 새로운 인생의 커튼을 힘차게 열어젖힌 이분들의 새로운 출발에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보치아 실업팀이 어려움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과 함께, 장애인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충남도청 보치아 실업팀」의 창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계 넘버원을 향하여! 충남도청 보치아 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농촌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2013.8.9. 금산 수통리 적벽강 오토캠핑장>

위기의 농업, 선제적 자세가 중요

우리 농촌에 희망을 일구어 가고 계신 농촌지도자와 농업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신비로운 인삼의 고장인 금산에서 농촌지도자 여러분들의 화합과 농업혁신의 의지를 다지는 「하계 수련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해 주신 김재일 농촌지도자 충청남도연합회장님과 공범식 금산군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주신 안희정 지사님과 이지역 출신 김석곤, 박찬중 도의원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촌은 FTA 등 농산물의 개방압력에 따른 가격 하락과 도농격차의 심화, 고령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슬기롭게 대처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안희정 지사님께서도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하여 3농혁신을 도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의회에서도 농어촌의 혁신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데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농촌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즐겨 두는 바둑에서 '기자쟁선(棄子爭先)'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미 던진 돌을 버리고 선수를 취하라는 것으로 새로운 곳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도 과감히 도전하여 가치 있는 것을 선점하고 더 빨리 기회를 만드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은 정부와 자치단체만의 몫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몫이지만, 농업인 스스로 일어서기 위한 피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영농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 여러분!

우리 모두 농촌과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쉼 없이, 지속가능한 농업경제를 달성하도록 치열한 노력을 합시다!

저희 충남도의회도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모쪼록, 1박2일 일정으로 소화되는 이번 수련대회가 건설적인 많은 의견과 정보교류의 장이 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행사를 축하드리고, 농촌지도자 충청남도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2회 한국쌀전업농 충청남도대회
<2013.8.27. 예산군 덕산면 온천관광지>

쌀은 식량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

쌀전업농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두번째 행사를 맞이하는 한국쌀전업농 충청남도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권혁진' 충청남도연합회 회장님과 '김해호' 예산군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회에 참가하신 쌀전업농 가족여러분과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쌀전업농 회원 여러분!

우리민족은 특유의 근면함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일구어 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GDP 2만달러, 인구 5천만명이라는 "20-50"클럽에 가입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20-50"클럽에 가입한 국가들은 예외 없이 "30-50" 클럽 진입에도 성공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촌은 빠른 산업화의 과정속에 희생되면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정주환경의 취약 등으로 도시와의 격차가 더욱 커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경제의 논리 앞에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당장 시장에 가면 우리밥상에 올라갈 농산물들은 수입품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7%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쌀을 제외할 경우에는 4.6%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우리 농촌의 문제에 대하여는 기존의 경제논리와는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먹는 것이 어려운 시절에는 쌀 한 톨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식량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우리의 주식인 쌀은 식량안보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쌀은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의 1/3, 농업소득의 50%, 농가소득의 약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만큼 중요하고 민감하게 생각해야할 문제가 바로 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는 쌀산업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약 1만 1천여호의 쌀전업농 충남연합회 회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 농촌과 쌀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이 활기차고, 농민들이 보람 있게 잘 살아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선진국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쌀전업농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인드로 우리의 농촌과 쌀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으고 단결합시다.

모쪼록, 1박 2일의 일정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가 쌀전업농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면서, 다시한번 이번 대회 개최를 축하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충청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2013.8.30. 아산시 이순신실내체육관>

건강 100세 시대, 생활체육이 정답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온천휴양도시 아산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화합의 한마당인 『2013년 충청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평소,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대회준비에 정성을 다 해주신 안희정 충청남도 생활체육회장님과 종목별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생활체육 어르신 여러분!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에서는 행복한 충남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첫 번째 열쇠는 건강일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다는 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100세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제2의 인생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하게 살며 무병장수 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면 운동하는 사람의 의욕을 고취시켜주고 정신적 긴장과 육체 피로를 풀어 줌으로써 기분전환을 하게 되어 정서를 안정시켜 주게 됩니다.

또한, 그룹 체육활동을 통하여 협력·책임감·공정 등 사회적인 매너를 평소에 익힐 수 있게 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생활체육은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켜 줄 뿐만 아니라 화합과 소통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여가활동을 위하여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등 어르신들이 손쉽게 생활체육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되 승부에 연연하시지 말고 자신의 건강함을 느끼고 기뻐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는 미덕을 쌓을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대회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4회 국무총리배 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 개회식
<2013.9.2. 청양군 공설운동장>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가스포츠

존경하는 충남도민과 청양군민 여러분, 게이트볼 생활체육 선수와 임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사계절 아름다운 칠갑산과 맑고 깨끗한 지천이 흐르는 이곳! 청정지역 청양에서 14회째를 맞이하는 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게이트볼 체육인 여러분!

우리 충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전국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김기환" 전국게이트볼연합회 회장님과 "유성현" 충남지역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완구" 국회의원님, "이석화" 청양군수님, 우리도의회의 청양지역 의원이신 "김홍열", "김정숙" 두분 의원님과 "윤종목" 청양군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남지역은 1,400년전 백제인의 기상과 얼이 살아 있는 기백의 지역이며, 예로부터 여유와 사랑이 넘치는 고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가 열리는 청양은 면암 최익현 선생과 같은

충신과 열사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으로 깨끗한 자연과 함께 훈훈한 인심이 살아있는 살기 좋은 웰빙지역입니다.

머무시는 동안 우리지역의 문화유적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사회입니다.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활동은 개인의 삶과 우리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게이트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생활체육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게이트볼은 우리 생활에 뿌리를 내리면서 각 지역마다 많은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으며 동호회가 조직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여가스포츠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최대 규모의 전국대회로 출중한 실력을 가지신 많은 동호인들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그동안 갈고 닦으신 기량을 맘껏 펼치시어 지역의 명예도 드높이고 성취의 기쁨도 누리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3일간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 전국 각 지역의 동호인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게이트볼의 저변확대와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새마을운동 촉진대회

<2013.9.3. 천안삼거리공원>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만들기

충남 새마을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요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새로운 새마을 운동의 실천의지를 다지는 「2013 충청남도 새마을운동 촉진대회」가 국제행사가 열린 이곳 천안웰빙식품 엑스포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심윤종' 새마을운동중앙회장님과 '전영한' 충청남도새마을회장님을 비롯한 25만 충남 새마을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성무용' 천안시장님, 그리고 도의회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큰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충남새마을가족 여러분!

우리민족은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 정신을 근간으로 하여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일구어 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은 유네스코가 인정하고, UN이 적극 권장하여 전 세계로 뻗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등지에서 현재 불고 있는 '글로벌 새마을운동'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라는 구호가 정말 대단한 것이었구나! 새삼 느껴집니다.

과거의 새마을 운동이 경제적 운동에 국한되었다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새마을 운동은 복지, 문화, 건강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그 의미가 확장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안국제웰빙식품 엑스포장에서 열리는 올해 행사는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애하는 새마을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내외빈 여러분!

오늘의 이 자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라는 새마을 운동의 이념을 실천하고, 시대정신에 맞는 새마을 운동의 추진의지를 다지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기(禮記)>에 나오는 말로 '대동사회(大同社會)' 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대동사회는 '더불어 번영하는 사회'를 말하는 것으로 서양에서는 유토피아로 일컬어지고 있는 말입니다.

새로운 새마을운동이 바로 다 함께 번영하자는 '대동사회'를 추구하는 운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함께 잘 사자는 대동사회를 만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새마을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과 희생을 당부 드립니다.

저와 충남도의회는 '나눔과 봉사, 배려'의 덕목을 바탕으로 여러

분들께서 펼치고 계시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 더 나은 충남과 더 행복한 국가건설에 초석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제2새마을운동의 추진의지를 다짐하는 「2013 충청남도 새마을운동 촉진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모쪼록, 이번 대회가 새마을가족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충청남도새마을회의 무궁한 발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4회 충남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2013.9.4. 덕산리솜스파캐슬>

서로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 되야

사랑과 봉사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하고 계신 사회복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새로운 내포시대에 충절의 고장 예산에서 「제14회 충청남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김수진' 충남 사회복지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충남의 사회복지 강화해 힘써 주시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평소 사랑을 나누며 솔선수범하여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어 상을 수상하시는 유공자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종사자의 어려움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 노인, 빈곤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선에서 몸소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내 약 8,500여개 사회복지 시설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종사하고 계신 1만 9천 여명의 충남 복지가족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한 활약을 부탁드립니다.

충남 사회복지가족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단체와 임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으나,

세계 15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할 정도로 우리사회도 경제적으로는 어느덧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복지분야에서 만큼은 더욱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1년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OECD 30개 국가 중 26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제활력도나 재정지속도 측면에서는 상위권이지만 복지충족도와 국민행복도에서는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위험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제적 관점보다는 복지확충과 제도개혁 등 복지정책에 더욱더 심도있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위의 소외된 계층의 편에서서 올바른 복지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많은 열정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먹는 독상보다 여럿이 먹는 두레상이 밥맛도 좋다"는 우리 속담처럼, 서로 함께하는 나눔의 문화가 좀더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랍니다.

저희 충남도의회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복지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의 활동에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14회를 맞이하는 사회복지의 날을 환영하고, 9월 7일부터 일주간 시작되는 사회복지 주간도 의미 있는 일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사회복지단체와 관계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이·통장 워크숍 <2013.9.5. 도청 문예회관>

지역사회 든든한 버팀목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이·통장님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정헌태' 이통장연합회 도지부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늘, 행복이 충만한 충남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통장님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30여년전 젊은 나이에 어떤 모습으로 이장을 하였는지 되돌아 보았습니다.

80년대 중반 4년여 기간 동안 이장을 하면서 추곡수매, 보리파종, 추심경, 퇴비증산 등을 하면서 식량증산과 안정공급을 위해 부단히도 애썼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지금은 아마도 경제발전 정도만큼이나 복잡성도 심해져 농촌업무뿐 아니라, 복지, 문화, 건강, 마을현안사업 등 다방면에서 수고로운 역할을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나 지금이나 일선에서 수고로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매 한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이통장님들의 애로사항과 역할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려시대 말부터 기원할 정도로 지방행정에서 실로 긴 역사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통장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긴 역사를 간직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 만큼 중요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가교역할과 함께 행정정보를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행정의 보조기관으로써의 중요한 역할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이통장 여러분들께서는 지방행정이 올바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동분서주하지만 그러면서 묵묵히 맡은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여러분의 수고가 있었기에 좀 더 발전된 우리충남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성과 헌신의 자세를 견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시한번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통장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통장님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개진을 통해 개선도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소통의 상징인 SNS가 발달해 가고 있지

만, 아니러니 하게도 행정관청과 지역주민과의 정보격차는 더욱 커져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실제로 농촌 지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도내에는 홀로 거주 어르신 인구가 8만1천여명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 인구 구조가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행정과 주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지역의 리더로서 이통장님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과 같은 워크숍 자리는 소통과 정보 교류라는 두 측면에서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옛말에 '시이불견 청이불문(視而不見 聽而不聞)'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는 바로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이 모이신 자리입니다.

잠시 뒤에는 사례발표도 있고, 특히 '안희정' 지사님과 토크쇼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이야기와 의견개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충남도의회에서도 진심을 담아 여러분의 어려움과 의견을 계속해서 귀담아 듣겠으며, 기회가 될 때마다 41분의 도의원님과 함께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뵙고 여러분의 고충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모처럼 모이신 자리인 만큼 속 깊은 대화들 많이 나누시고 서로 화합을 다지는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통장연합회 충남지부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인사(영상메시지) <2013.9.9. 접견실>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웃음 가득한 한가위

존경하는 210만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에 인사 드립니다.

황금빛으로 서서히 물들어 가는 들녘과 맑고 높아지는 하늘을 보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선조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하지만, 올 여름은 무척이나 길고 무더웠고, 경기침체와 함께 청년 일자리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어 답답함이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물가상승으로 추석명절을 맞이하는 마음이 무겁지는 않은지 걱정이 듭니다.

이렇게 마음의 짐도 있지만, 잠시나마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훈훈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잊고 지내던 지인들과, 소외된 이웃들도 뒤돌아 보시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절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민생의 현장을 지키고 계신 경찰과 소방 공무원 여러분과 휴일 없이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도민과 함께하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고민과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가위에도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환한 웃음 가득한 시간 보내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제20회 충남기업인대상 시상식
<2013.9.10. 도청 대회의실>

기업인은 담대한 기상이 있으신 분들

충남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곡물이 여물고 과일이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열심히 일하신 충남기업인들을 위한 「제20회 충남기업인대상 시상식」이 내포신청사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최호상' 충남기업인연합회장님, '구자옥'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역경제와 기업발전에 남다른 공헌으로 표창을 받으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께 큰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충남의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근로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충남의 지역내총생산(GRDP) 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올 상반기 도내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전국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이 자리에 계신 충남의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이 쉼 없이

달려온 결과로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몇몇 대기업의 벌이에 의한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해봅니다.

2011년 기준 충남의 전체기업수는 12만7천437개이며 이중 대기업은 0.1%인 100개 불과하며, 종사자수로도 중소기업종사자가 50만1천44명으로 전체의 8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수의 중소기업이 튼실해 질 때만이 비로소 충남경제가 잘 나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인의 더욱 힘찬 노력을 당부 드리며, 도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좋은 정책개발과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 충남도에서 실시한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도민들은 "경제산업 분야"를 투자의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경제하기 좋은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도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충남도의회에서도 이러한 도민들의 뜻을 잘 알고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지금의 경제여건은 대외적으로 이란 핵문제, 이집트, 시리아 사태 등으로 이어지는 중동문제와 함께, 아베노믹스로 강화된 엔저

기조 등으로 수출기업 들은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투자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등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회남자(淮南子)의 인간훈(人間訓)에 나오는 '새옹지마(塞翁之馬)'의 교훈처럼, 외부의 여건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마음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인은 담대한 기상이 있으신 분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무쌍한 환경속에서도 성공한다는 신념으로 꽉찬 기운을 가지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열심히 일하신 공로로 수상을 하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에 큰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추석명절도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모두 풍성하고 뜻 깊은 명절 맞이 하시기 바라며, 충남 기업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3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결단식
<2013.9.12. 도청 대회의실>

한계를 넘어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

존경하는 선수단 여러분!

충남장애인체육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선수단 가족과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우리도 대표 선수단의 첫걸음인 결단식에,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여름 무더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력을 다해 훈련에 매진해 오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신 선수 여러분과, 정성을 다해 선수들을 뒷받침 해 오신 지도자와 가족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수양성과 대회참가를 위해 수고하신 '박노철'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가맹단체장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대회에 참가하여 최고의 성적을 내고,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노력과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입니다.

「화엄경(華嚴經)」에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이 나옵니

다.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좋은 성적도 일구어 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결단식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다시금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선수단 여러분!

승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맘껏 발휘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저희 충남도의회도 210만 도민과 함께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개종목에 선수와 임원, 그리고 보호자로 참가하시는 400분 모두 대회기간 내내 건강에 이상 없이 무사히 마치시기 바라며, 모든 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출범회의
<2013.9.13. 신성대학교 태촌아카데미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실천력 있는 지혜모아야

존경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의 출범과 회의개최를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민족평화와 통일을 향한 열정으로 헌신 봉사하시는 '김병목' 충남지역부의장님을 비롯한 자문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전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48개국 중 25위로 지난해 보다 6단계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원인을 보면,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4월 8일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등 북핵 리스크에 악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경우나 그간 북한문제가 있을 때마나 폭락을 거듭하던 우리 증시 등을 보면, 보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북한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통일 문제라는 생각이 더욱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의 문제는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만 필요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민족상잔의 비극은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아니할 과제입니다. 현재 생존해 계신 이산가족은 7만 3천명 정도이며, 이중 70세 이상이 80%에 달하고 80세 이상도 50%가 넘는 다고 합니다. 남북의

문제를 인간의 자유와 존엄의 문제로 생각하면 이산가족 문제는 더 이상 시기를 놓쳐서는 아니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벌써 민족분단의 역사가 6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 치면 한평생이 다 흘러갔고, 세대로 치면 2세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더욱 분단의 역사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도 정부출범 초기의 남북위기 관계가 극복되고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소중한 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의 합의가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져 한반도 평화구축을 향한 든든한 신뢰 프로세스의 선례가 되어, 남북이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과 지방이 따로 일 수 없습니다.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윗세대와 아랫세대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만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의 충남지역회의가 평화통일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지역 통일여론 확산을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남의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여러분!

법정 스님께서는 「산방한담」에서 '원행(願行)'의 중요성을 언급한바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하기만 해서는 안되고 또한 맹목적인 '행'만 있어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강한 용기와 의지인 '원'과 틀림없는 실천인 '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더욱 실천력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제16기 민주평통 충남지역 자문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자문위원님들의 노고에 보탬이 되고자 아낌없는 지원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출범식을 축하드리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의회교실(내포중) <2013.9.16. 본회의장>

미래를 향한 인성을 겸비한 지성인으로 성장하길

내포중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계절을 맞이하여 내포중학교 학생 여러분의 충남도의회 방문과 청소년 의회교실 입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을 훌륭하게 가르치시면서 청소년들에게 의정활동 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우리도의회의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선생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오늘 도의원이 되어 의회활동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곳은 210만 도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41명의 도의원이 모여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민의의 전당'인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방금 전에 시청하신 영상에서 보셨듯이, 도의회에서는 충청남도의 자치법규인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도의 살림살이에 대한 계획인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그 살림이 잘 운영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는 등 재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의회 가장 중요한 기능은 도청과 교육청이 도민을 위하여 사무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

입니다.

이 모든 권한은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41분의 도의원에게 주워진 것입니다.

청소년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도의회 의원들의 의사진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의장선거, 조례제정, 건의문 채택, 5분 발언 등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행과정 속에서 투표도 해보고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까지 직접 체험해 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란 것이 토론과 합의에 의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의사결정 원리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미국 화이자의 제프킨들러 회장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두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준 것은 「말하는 것의 2배 이상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경청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말로써 저 역시,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민주주의의 실천의 핵심 원칙은 『경청』의 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더욱 많은 공부와 경험을 쌓으면서 다른 사람의 소리에 꼭 기울여 보는 습관을 들일 것을 권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래를 향한 큰 꿈을 갖고 인성을 겸비한 청년으로 성장하시길 바라며,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자율방법연합회 워크숍
<2013.9.25. 부여박물관내 사비마루 대강당>

치안과 안전의 파수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충남 지역의 '치안 파수꾼'이신 자율방범대원님 들을 위한 「워크숍」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범죄 없는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데 헌신하고 계신 '정만교' 道자율방법연합회장님을 비롯한 대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하신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자율방범 가족 여러분 !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은 많지만, 자신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위협 받을지 모른다고 한다면 결코 인간답게 산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펼치시고 계신 자율방범활동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회봉사활동입니다.

얼마전 정부에서 실시한 한국사회의 '안전체감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사회가 안전하다' 고 대답한 비율은 2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치안수준은 그래도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줄곧 5대 범죄가 전국에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某 일간지에 지난달 보도된 '3대 강력범죄 지도'에 따르면,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충남 서북부 지역의 살인 범죄 빈도수가 전국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치안문제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도시화되고 경제수준이 높아져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지 않도록 주위를 살피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이웃의 안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자율방범 대원 여러분들의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을 위해 묵묵히 봉사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16개 연합대, 223개 지대의 9,000여 명의 우리지역 자율방범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일들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안전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 변함없는 열정과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도의회에서도 여러분께서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워크숍을 통해 좋은 정보도 얻으시고 회원님 간에 화합도 다지는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대원 여러분의 건승과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0회 충남서각예술대전
<2013.9.26. 홍성군도서관 3층 전시실>

문학과 철학이 미술과 조우하여 탄생한 종합예술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요와 낭만의 계절에 「열번째 충남서각예술대제전」이 개최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도민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와 신비로운 예술세계를 맛 볼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종일' 한국서각협회 충청남도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수한 작품들을 출품하시여 전시장을 빛내주신 작가님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유구한 서각예술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최초의 목판인쇄물을 탄생시켰고, 「팔만대장경」은 전세계가 감탄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각예술은 단순히 글을 나무나 돌에 새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품들 하나 하나를 들여다보면, 소재와 내용, 구성 등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마음을 움직이는 좋은 사상과 글귀가 있고, 독특한 서체와 그림도 있으며 그것들이 입체감이 있는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습니다.

문학과 철학이 미술과 조우(遭遇)하여 탄생한 종합예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서각예술인 여러분!

한국서각예술전통은 선조들의 지혜와 예술혼이 전승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널리 세계에 우리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고품격 자산입니다. 훌륭한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총4회의 순회전시로 진행되는 이번 서각예술대전 기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전시장을 찾으시어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기 바라며, 관람객의 가슴에도 감동의 물결이 아로 새겨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서각예술과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더불어서 각인 여러분과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
<2013.9.27. 춘장대 해수욕장>

안전한 충남 만들기에 앞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충남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님 들의 화합 한마당인 「2013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먼저,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오늘의 뜻 깊은 행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류재남'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나소열' 서천군수님과 '서형달', '조이환' 도의원님 그리고 '김창규' 군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예측하지 못한 재난사고가 빈번하고, 도시화와 산업화의 심화로 그 유형도 매우 복잡해 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하여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수요는 커져 가고 있습니다. 설문결과, 국민의 81%가 소방·재난분야의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을 한 것이 이를 반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道 소방인력의 약70%를 자치하는 1만1백여명 의용소방대원의 비중은 실로 막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생활 주변 곳곳하게 사고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자율봉사의 정신으로 묵묵히 활동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생깁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90년대 초반 약 3년여간 보령시 주포면의 의용소방대장직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생업과 함께 활동하시는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는 것일 테지만, 불교 경전에 「자리이타(自利利他)」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먼저 이롭게 하면 그 이로움이 반드시 결국은 나에게 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쌓으신 덕이 앞날에 반드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변함없는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용소방가족 여러분,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재해로 한순간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흔히 하는 "예방이 치료보다 최선"이라는 말처럼 재난을 방지하려는 노력과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안전의 생활화를 위해 '안

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더욱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관심도 함께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안전한 충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원여러분,

오늘 행사에서는 소방기술 경연대회와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쌓인 피로를 풀어 버리시고, 대원님들 간에 화합도 다지는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용소방대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59회 백제문화제 개막식(영상메시지)

<2013.9.28. 공주 금강신관공원>

충청인의 소중한 문화유산

제59회 백제문화제 개막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00년 고대 백제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은 우리 충청인이 계승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찬란하였던 대백제의 역사와 정신이 백제문화제를 통하여 계승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하면서 행사기간동안 백제인의 기상과 멋 그리고 흥으로 자리를 수놓아,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제12회 충청남도지사기 농악대회

<2013.9.29. 홍성군청 후정>

풍장 치는 흥겨운 농악인의 날

가을의 청취가 묻어나는 시기에 내포문화의 중심지인 이곳 홍성에서 「제12회 충청남도지사기 남녀 농악대회」가 개최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시고 평소 우리나라 전통예술과 국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주형' 한국국악협회 충청남도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악인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을 중시하고 협동을 미덕으로 여겨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농악을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흥겨운 가락에 맞춰 모심기와 김매기와 같은 힘든 농사일을 할 때면 고단함도 있고 모두가 함께하는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또한 각종 명절이나 마을행사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흥겨운 농악 가락이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농촌에서 농악의 풍습도 많이 풍화(風化)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농악은 우리 민족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전통 문화인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의 경연대회는 잊혀가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되살리고 그 정신을 아로새기는 매우 의미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충청도에서는 농악을 '풍장 친다' 다고 말하지요.

올해로 열 두 번째 맞는 「충청남도지사기 농악경영대회」에도 제대로 풍장 치는 우수한 농악인 들이 나올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경연에 참가하신 우리지역 농악인 여러분!

모두 그동안 갈고 닦은 흥겨운 가락을 마음껏 펼쳐 보이시고, 우리 선조들의 협동 단결하였던 미덕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도 농악을 비롯한 소중한 전통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보존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를 준비하시고 우리 농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국국악협회 충청남도지회'의 국악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하신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고덕초, 구만초)
<2013.9.30. 본회의장>

미래의 '반기문'으로 성장기대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황금빛 들판으로 물들어 가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오늘 충남도의회 소재지인 예산지역에 거주하는 고덕초등학교와 구만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께서 우리도의회에 방문하셔서 대단히 기쁩니다.

충남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입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을 훌륭하게 가르치시면서 청소년들에게 의정활동 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도의회의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선생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덕초, 구만초 학생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오늘 일일 도의원이 되어 의회활동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곳은 210만 도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41명의 도의원이 모여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민의의 전당'인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아시겠지만, 도의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사항을 다룹니다.

첫째로, 조례 제·개정입니다. 충청남도의 자치법규인 조례를 만들고 수정하고 폐기하는 일입니다.

둘째로, 충남도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다룹니다.

도와 교육청의 예산이 연간 약8조원이 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심의하고 필요에 따라 삭감도 하여 최종결정을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셋째로, 그 예산이 도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 졌는지 결산검사도 하고,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 제대로 업무수행을 했는지 살피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등 견제기능을 수행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도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현장을 방문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많이 움직입니다.

도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통해 의장선거도 해보고 조례제정도 하고, 또 2분 소신 발언도 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유익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고덕초등학교, 구만초등학교 학생여러분, 얼굴을 보니 모두 이다음에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손자도 중학교 3학년인데, 우리 어린 손자들을 보는 기분입니다.

여러분들, 유엔사무총장이 누군지 아시죠?

'반기문'이 학생때 미국에 가서 케네디를 만나고 꿈을 키워서 지금 세계의 살림을 하는 유엔의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충남도의회 방문을 환영하고, 여러분들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다음에 도의원이 될 수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으며 반기문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과 가문의 희망이고, 우리 충남도의 보배이며, 그리고 대한민국의 큰 일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날에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함께하신 선생님들, 거듭 고맙습니다.

모든 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청소년의회 교실' 입교를 환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정역사관 개관식 <2013.10.1. 구)도청현관 앞뜰>

충남도정 80년 역사의 숨결이 간직된 곳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충청남도의 80년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는 옛 청사에서 열리는 「충남도정 역사관」 개관식에 참석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충남도정 역사관」 개관을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더불어 발전해야할 형제인 '대전시의 역사박물관' 개관을 360만 대전·충남인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열 한분의 역대 도지사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니 역사관의 존재가치가 살아 숨 쉬는 듯합니다. 반갑고 자리를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옛 충남도청사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굴곡을 담고 있으며 대전시의 중심부로써 긴 역사를 간직한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충남도청이 있던 주변은 옛청사의 역사의 깊이만큼 다양한 문화와 추억이 간직된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정 역사관과 시박물관의 개관은 아주 잘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희정' 도지사님과 '염홍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

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많은 이의 지혜가 모여 옛청사와 주변지역이 대전시민에게 웃음을 줄 수 있도록 소중하게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동반 상승을 바라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도 축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계룡군문화축제(영상메시지) <2013.10.2. 계룡대>

육·해·공군의 패기와 기상 확인

첨단국방문화도시 계룡시에서 화려하게 펼쳐지는 「2013 계룡軍문화축제」의 개막을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조국의 안녕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국군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축제를 통해 더욱 견고해 지길 바랍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는 육·해·공군이 함께 어우러져 패기와 기상을 선보이는 계룡軍문화축제가 전세계인이 주목하는 軍문화엑스포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제1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2013.10.2. 보령 세영뷔페>

'호모 헌드레드 시대' 눈앞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노인의 날」을 210만 도민과 함께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의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항상 지역 어르신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김기성' 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65세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12.2%를 자치할 정도로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인구가 많은 우리충남지역은 16%를 넘어섰으며, 보령시의 경우 20%에 달하여 초고령사회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사회는 이제 어르신들을 빼고는 이야기를 논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OECD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수준이 최고수준이라는 안타까운 분석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된 정치인과 행정가, 지식인들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지 인프라 구축과 함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합니다만, 더욱 많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저희 충남도의회에서도 항상 어르신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이제 100세 장수가 보편화 되는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1903년 25.8세에 불과했던 평균수명이 2012년 81.3세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장수는 축복이지만 얼마큼 건강하고 안락하게 삶을 영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시대입니다.

여러 통계들을 종합해 볼 때,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사회적인 모임과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제 노인세대를 생산적이고 활력 있는 "사회주력계층"으로 바라보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다가오는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행사가 노인 공경의 전통사회의 정신을 계승하

면서도, 노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뜻 깊은 행사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대한노인회보령시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령통합RPC 유통시설 기공식

<2013.10.4. 보령통합RPC 옆>

생산-유통 일원화시스템 구축 중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령지역 미곡 가공유통의 거점시설이 될 「보령통합RPC 유통시설」의 "첫 삽"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11만 보령시민의 일원으로써 오늘의 행사가 너무나도 기쁘다는 소감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보령통합RPC 유통시설」 기공식이 열리게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 '이시우' 시장님, 그리고 '조양희' 대천농협조합장님 등 여덟 분의 조합장님과 보령통합RPC'김영환'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명성철' 도의원님 그리고 '김정원' 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의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보령통합RPC 가족여러분, 농민여러분! 그리고 내빈여러분!

저는 농사꾼의 자식이자 농군으로써 농사는 진실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땀 흘린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농사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잘 익은 논의 벼를 보면 보기 만해도 배부른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시장경제 논리와 연결된 농업은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잘 대처하는 슬기로운 자세가 우리 농업인과 농업 관계자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3농 혁신에 열심 이신 '안희정'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는 싱싱한 것을 찾아 산지로 나가면서 농산물은 서울 갔다가 다시 지역으로 내려오는 왜곡된 유통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시면서 유통과정에서 산지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역설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쌀산업에서 '생산-유통 일원화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것이 바로 충남도와 생산농협RPC 등이 협력하여 탄생한 충남 명품쌀 브랜드 '청풍명월 골드'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우리 충남의 '청풍명월 골드'가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지역특산물 부분 "대상"으로 선정되는 소중한 결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충남도와 충남농협 관계자 여러분께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삽을 뜬 보령통합RPC 유통시설에서도 보령지역 쌀이 '청풍명월 골드' 브랜드로 생산될 것입니다. 보령시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쌀을 체계적으로 가공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 쌀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통합RPC의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긴 안목을 가지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행정기관과 쌀 생산농가, 그리고 보령통합RPC, 이 삼자간 굳건한 협력과 신의를 가진다면 보령지역 쌀 산업은 더욱 튼실해 질 것입니다.

우리도는 도민의 20%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우리의 주식인 "쌀"에 있습니다. 모두 위기의식을 갖고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충남도의회도 쌀 산업을 비롯한 우리농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보령통합RPC 유통시설 기공식」을 축하드리고, 아무런 사고 없이 준공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통합RPC의 무궁한 발전과 쌀 농업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자리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2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
<2013.10.11. 청양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은 우리사회 윤활유

생활체육인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생활체육인 여러분의 화합 한마당인 「제22회 충청남도민생활체육대회」가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어 가는 가운데 청정지역 청양에서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에 노력하시며, 오늘의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황선만' 생활체육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생활 체육인 여러분!

"체력은 국력" 이라고 외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의도하는 바는 달라졌을 지라도, 「100세 시대」가 성큼 다가온 지금에도 그 뜻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수명 100세 시대에 규칙적인 스포츠 활동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누구나 누리고 권장해야하는 중요 덕목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충남생활체육회에서 "운동은 밥이다." 라는 슬로건 아래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자는 "스포츠

7330" 캠페인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참으로 잘 하시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체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이상의 국민이 운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체육인 여러분께서 보다 많은 사람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손을 이끌어 주셔야 겠습니다.

저는 축구도 좋아합니다만, 꾸준히 등산을 즐겨 왔습니다. 운동을 하면 처음엔 힘이 들지만 하면 할수록 힘이 솟습니다. 단련할수록 강해지는 쇠붙이처럼 사람의 몸도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단체 스포츠를 하면 동료애도 생기고, 한마디로 사람 사는 냄새를 느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생활체육은 사회를 건강하게 굴러가게 하는 "윤활유"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가 필요함에도, 우리도의 생활체육시설수는 2012년말 현재 전국광역시도 중 9위 수준입니다.

'손에 닿는 생활스포츠'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좋은 시설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인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대회가 치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연습하며 갈고 닦은 실력 맘껏 발휘하시되, 부상 없이 대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늘 그래왔듯이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동호인 간에 화합과 정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대회를 준비하신 충청남도생활체육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5회 대한민국생활음악 경연대회
<2013.10.11. 천안예술의전당>

음악은 마음을 치유하는 심령치료사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흥겨운 음악제전인 「제5회 대한민국생활음악경연대회」가 흥타령의 고장 천안에서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충남지역 천안에서 태동한 대회가 벌써 5회째를 맞이하면서 규모나 예술적인 측면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낸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사단법인 한국생활음악협회의 발족부터 대회의 구상과 준비를 위해 그동안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하신 '전두환' 이사장님을 비롯한 협회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생활음악인 여러분!

유명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음악이 있는 곳에 악이 있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음악은 인간의 영혼을 맑게 해주는 심령치료사와 같습니다.

그런 좋은 음악을 전도하시며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시는 여러분의 삶은 더욱 맑을 것입니다.

음악을 통해 세상과의 소통의 장을 넓혀가고 있는 여러분과 협

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3일간의 일정으로 6개 부문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오랜 경륜과 실력을 겸비하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연마하신 실력들 맘껏 뽐내시고, 생활음악인들 간의 만남에서도 하모니를 발산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생활음악경연대회'의 지속적인 성공개최와 '사단법인 한국생활음악협회'의 계속되는 발전을 소망합니다.

다시한번, 「제5회 대한민국 생활음악경연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단 결단식
<2013.10.16. 도청 문예회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우리道 대표선수단의 출정식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깥 날씨가 제법 싸늘한 가을날인도 불구하고, 문예회관에 들어서니 여러분의 열기 때문에 훈훈한 기운이 감돌아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대표선수단 여러분!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道대표 선수여러분의 늠름한 면면을 보니 힘이 쏟는 느낌입니다.

지난여름은 유난히 뜨겁고 힘들었습니다.

더위와 싸우면서 훈련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함께하신 감독님과 코치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흘린 굵은 땀방울만큼 좋은 결실로 이어져 도민들에게 기쁨을 드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충남의 명예를 걸고 국내 최고의 스포츠 종합체전에 출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로 당당하고 자랑스러워 보입니다.

행여 전국대회라는 중압감이 들면 어떡하나 하는 기우(杞憂)도 있지만 충분히 가지고 있는 실력 충분히 발휘할 거라 믿습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훈련한 만큼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발판으로 더욱 큰 무대로 뻗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는 임원진 여러분도 같이 동행 하셔서 행복한 체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충남도의회도 210만 도민과 함께 여러분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체전에 참가하시는 46개 종목의 1,600여명의 선수와 임원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체전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충남자활한마당 대회

<2013.10.17. 보령시 대천체육관>

희망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요의 계절에 우리지역 자활계층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기 위한 「2013년 충남자활한마당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굳센 의지로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자활참여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와 함께 힘찬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해 주시고, 어려운 이웃의 자립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송영팔' 협회장님을 비롯한 도내 14개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활가족 여러분!

우리사회가 기적 같은 경제발전을 이루어낸 것은 사실입니다만, 달이 차변 기울 듯이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저성장 기조 속에 실업률도 높아지고 비정규직이 높아지는 등 취업구조가 불안정해 진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의 끝을 놓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꿈을 버리면 기회마저 빗겨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보람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하는 처지를 한탄함을 비유하는 "비육지탄(髀肉之嘆)"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삼국시대 유비가 한때 신야(晨夜)라는 작은 성에서 4년간 할 일 없이 지내며, 허벅지에 살만 찌는 자신의 처지 돌아보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탄식 속에서도 유비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훗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꿋꿋하게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일구어 가기 위해 자활사업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좋은 삶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활참여자의 곁에서 늘 함께하시며 지원군이 되어 주시는 센터가족 여러분들은 우리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십니다.

항상 고맙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충남도의회에서도 지역의 자활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열한 번째 충남자활한마당」 행사를 축하드리며, 자활참여 가족여러분 모두 일과 가정에서 보람과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정성껏 행사를 준비해 주신 '충남지역자활센터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영상메시지)

<2013.10.17. 온양온천>

역사와 휴양이 함께하는 힐링축제

역사와 휴양이 공존하는 힐링 도시 '아산'에서 화려하게 펼쳐지는 「2013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210만 도민과 함께 환영 합니다.

1300년 역사의 대한민국 최고(最古)의 온천지역 온양은 자연이 빚어 준 훌륭한 선물이었습니다.

임금이 머물며 안식 했던 행궁(行宮)이 있던 고을, 빛바랜 사진 속 신혼여행과 수학여행의 온기가 따스하게 남아 있는 온천의 고장은 많은 이의 마음속에 낭만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온양·도고·아산의 3대 온천지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제를 통해 진한 열기와 향수는 다시 전달될 것입니다.

바쁜 일상이겠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이야기와 추억이 서려 있는 우리지역의 온천문화를 즐기시고, 삶의 여유로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2013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의 개막을 축하드리면서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2013 제32회 대한민국 국악제

<2013.10.23. 도청 문예회관>

소중한 우리의 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낭만과 결실의 계절에 「2013 대한민국 국악제」가 내포신청사에서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미 있는 행사를 32회째 지속하고 있는 (사)한국국악협회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행사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홍성덕'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악인 여러분! 그리고 관람객 여러분!

국악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예전 TV 광고에서 故 인당 박동진 명창께서 "우리의 소리는 소중한 것이여!"라고 외치던 그 모습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바로 그분은 공주가 고향이신 우리 충남인 이기도 하셔서 더욱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젊은 친구들도 많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지금 매스컴을 뒤덮고 있는 서양음악이 귀에 더욱 익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구화된 환경으로 우리의 소

리인 국악을 들을 기회가 없어진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것에 길들여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국악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악제'와 같은 많은 국악공연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악은 현장에 함께 할 때 제 맛이라고들 합니다.

내포에서 열리는 「2013 대한민국 국악제」는 여느 해도 그랬겠지만 다양한 우리의 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공연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문화적 갈증이 있는 도민들에게 현장감 있는 소리의 감동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시한번, 「제32회 대한민국 국악제」 공연을 환영하고 우리 소리의 계승발전을 위해 정진하여 주실 것을 국악인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리는 소중한 것"이라는 인당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보령시 자원봉사자대회
<2013.10.23. 보령시 대천체육관>

나눔의 행복 전도사

보령지역 자원봉사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화합한마당인 「제2회 보령시 자원봉사자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하시고 1년 365일 자원봉사를 실천하시며 애쓰시는 '김동윤' 보령시자원봉사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이시우' 보령시장님과 '김정원'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보령 자원봉사가족 여러분!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누구나 도우며 살도록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살며, 행복을 위해서는 "덕"을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모두에게 행복을 주며 덕을 실천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세계의 각종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전적 가치보다 자원봉사의 가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하면 자원봉사자의 '시간 기여'의 가치는 기부에 의한 금전적 가치보다 최소 50% 이상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높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참여율은 19.8%에 불과하고, 34개 OECD회원국 중 자원봉사 활동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보령지역의 수준도 비슷할 것인데 경제수준에 걸 맞는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지역의 봉사와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는 보령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력은 실로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거듭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11만 보령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자율봉사문화 확산 운동에 적극동참하며 아낌없는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의 행사가 보령지역에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는 의미 있는 자리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화합을 도모하고 심신의 피로를 덜어내는 즐거운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한번, 「제2회 보령시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오신 기업과 단체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보령시자원봉사센터'의 무궁한 발전과 오늘의 의미 있는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원을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충청남도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 <2013.10.25. 부여군청소년수련원>

좋은 생각이 좋은 결과를 낳는 법

지체장애인의 용기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2013 충청남도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 개최를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이건휘' 회장님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체장애인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도민 여러분!

열세 번째를 맞이하는 지체장애인의 날도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념일이 되면 어려운 분들을 되새기는 마음을 갖지만,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많은 제도와 정책이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이 우리사회에서 살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장애인가구의 소득수준은 전체평균의 53.4%수준에 불과하며, 장애인들의 68.5%가 스스로 느끼기에 하층민에 속한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더 장애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도의회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별 없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여러분!

좋은 생각이 좋은 결과를 낳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장애가 때론 스스로의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울까 걱정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밝은 생각, 긍정적인 사고로 자신감 있게 생활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며 즐기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행사를 준비하신 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민족통일충청남도대회 및 제44회 한민족통일 문예제전 시상식 <2013.10.25. 보령시 문예회관>

민족평화통일 의지 더욱 확고히

민족의 평화와 상생을 염원하는 「2013 민족통일 충청남도대회」와 「제44회 한민족통일문예제전 시상식」이 관광휴양도시 보령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민족통일을 향한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광석' 도협의회장님과 도내 16개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1,500여명의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조국이 분단된 지도 벌써 60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봉의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이산가족 여러분들의 상처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생존해 계신 7만 2천여 명의 이산가족 중에 70세 이상이 80%에 달하고 80세 이상도 50%가 넘는 현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개성공단이 정상화 되면서 순조롭게 추진되던 이산가족상봉 문제가 지연되고 있는지도 한 달여가 되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산가족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권의 문제로 그 어떤 정치적 이유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우리민족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

입니다.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하루빨리 정착되어 민족끼리 자유로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날을 소망해 봅니다.

충남의 민족통일협의회 가족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내빈여러분!

분단의 시간이 길어져가는 현 상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통일의지가 우리사회에서 희미해져가는 현실입니다.

정부의 설문조사 결과,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1997년 85%에서 2010년 66.6%까지 낮아진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지역사회에 민족통일의 당위성을 확산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쉼 없이 달리고 계시는 '민족통일협회'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올해 마흔네 번째를 맞이하는 한국통일문예제전은 자라나는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올바른 통일관을 심어 주는 뜻 깊은 행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통일협의회가족 여러분, 앞으로도 민족통일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꾸준한 활약을 부탁드리며,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충남도의회에서도 민족통일협의회의 노고에 도움이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통일문예제전에 훌륭한 작품을 출품하시어 수상의 영예를 안으시는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의 「통일대회」가 우리지역에 통일의 의미를 되새겨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한민족통일문예제전」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족통일 충청남도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1회 교육행정연합 체육대회
<2013.10.26. 보령아주자동차대학>

충남 교육, 밝은 미래 이끄는 주역들의 날

교육행정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요 며칠, 완연한 가을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날씨였는데 어제부터 반짝 추위가 찾아와 몸을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위도 충남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열정의 기운으로 운동하기 좋은 날씨로 느껴집니다.

오늘, 제 지역인 이곳 주포에서 충남교육행정연합 체육대회가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또 우리지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바른 품성, 알찬 실력, 미래를 여는 충남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도의회 의장으로써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충남 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높은 관심과 함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교육행정 지원으로 학생들은 즐겁게 배우

고 마음껏 꿈을 키울 것이며, 선생님들은 긍지와 보람으로 신나게 가르칠 것이므로 우리 충남교육의 희망찬 미래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시간을 내어 체육대회를 갖게 된 만큼 맑은 공기 마음껏 마시면서 팀웍 경기를 통하여 부서의 단결력을 키우고, 직원 상호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지역 방문을 환영하면서, 오늘, 하루 이곳 아주자동차 대학에서 업무 추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걱정을 내려 놓고 즐거운 시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충청남도협의회 출범식
<2013.10.28. 도청 대회의실>

돌다리도 두드리고 살피는 지혜의 소중함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첫발걸음을 내딛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충청남도협의회」의 출범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사람들을 만나면 "안녕들 하셨는지" 확인하듯 묻고 인사를 합니다. 침략을 많이 받은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인사말이지만, 안전을 우선시 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동의하는 말이 "안전제일"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안녕"을 이야기하면서도 사회 전반에 안전불감증이 만연되어 있다는 현실입니다.

우리지역 서해상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나 지난 여름에 있었던 사설 해병대 캠프사고의 사례와 같이, 안일한 안전의식과 욕심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돌다리도 두드리고" 살피는 지혜를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가 분들이 모여 「안전한 충남,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해 훌륭한 민·관협의체분 구성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4대 사회악 근절과 사회, 생활, 환경, 산업, 교통 등 각 분야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시어, 지역사회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강일구'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한 65분의 위원님 여러분께서 안전한 충남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안전문화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아낌없는 지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전문화운동 추진 충청남도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보육정책 평가 및 발전방안 의정토론회
<2013.10.31.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착안대국 착수소국(着眼大局 着手小局)의 자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道의 보육정책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미 있는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장기승'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장옥'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과 '박정현' 정무부지사님, 그리고 방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과거 7,80년대에 '산아제한', '가족계획'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결정으로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의 원인이 되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국가적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보육정책도 30년 전의 선택을 '타산지석' 삼아 면밀히 살피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착안대국 착수소국(着眼大局 着手小局)』이라는 말처럼, 오늘의 토론회 자리는 큰 틀에서 정책방향이 올바른지 멀리 내다보되,

작은 틀에서는 집행내용이 제대로 이루어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따져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道의 보육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역량 있는 우수한 패널 분들께서 모이셨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평소의 의견을 부담 없이 나누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똑똑함보다 열사람의 어리석음을 조합하여 보완하면 더욱 훌륭한 「집단지성」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활발한 토론의 자리를 통해 보육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진단과 발전방향이 도출되는 소중한 자리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어느새 입동(立冬)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5회 충남농업축전 <2013.10.31.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전화위복 인패위공(轉禍爲福 因敗危功)의 지혜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사년을 맞이하며 풍년을 소망하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의 정취가 정절에 치닫고 있지만, 한편의 들녘에선 수확을 마무리하는 농가의 일손이 한창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쁜 시기지만 충남농촌의 희망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한마당인 「제5회 충남농업축전」이 개최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행복한 충남농촌을 가꾸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오늘의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남농업축전의 내용을 풍성하게 꾸며주시고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道품목농업인연구회 '김태훈' 회장님과 회원님, 농촌지도자道연합회 '김재일' 회장님과 회원님, 생활개선道연합회 '이숙하' 회장님과 회원님, 그리고 道4-H연합회 '박종진' 회장님과 회원님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충남도의회에서 농업과 농촌에 커다란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올 한해 무더위와 싸우며 흘린 노력과 땀의 결실로 평년 이상의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신 농업인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충남농업 가족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농촌과 농업에 대한 우려와 걱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위기의 농업이다."라고 하는 문구처럼 여전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바로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다가오는 한·중 FTA 등 개방화 확대의 요구,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 등의 문제로 안팎으로 어려운 것이 우리의 농촌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 공감하시듯이 '화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고 실패한 것을 바꾸어 성공으로 만든다.'는 "전화위복 인패위공(轉禍爲福 因敗爲功)"이라는 옛말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적극적인 자세와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道와 4개 도내 민간 농업연구 학습단체가 함께 하여 열린 오늘 같은 행사가 더욱 뜻 깊게 다가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농업에 대해 지혜를 모아 주셔야 합니다.

道와 선도 농업단체에서는 정보통신·생명과학기술 (ICT·BT)이 발달하고, 삶의 질 향상과 건강·휴양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는 등의 변화하는 시대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을 앞장서 이끌어 주셔야겠습니다.

또한 농가에서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안목과 실천력을 키워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는 농촌과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두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반드시 좋은 시절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부터 3일간 펼쳐지는 농업축전을 통해 우리충남 농업의 기술과 정보를 함께 나누시고, 살기 좋은 농촌에 대한 미래설계와 희망의 결의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충남 농업과 농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바르게살기운동 보령시 협의회 회원대회
<2013.11.4. 대천시민체육관>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끄는 "마중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의 정취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낭만과 결실의 계절에 보령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들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2013년 회원대회」가 개최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밝고 희망찬 보령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며 헌신하여 오신 '김지덕'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바르게살기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내빈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보령 바르게살기운동 가족여러분!

콩나물국이 맛있으려면 콩나물 자체가 싱싱해야하 듯이 우리사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사회자체가 건강해 지려면 구성원들의 정신이 튼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향에서 정신운동을 펼치시고 계신 여러분의 노력이 건강한 우리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소중한 "마중물"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환경보호와 거리질서 캠페인을 펼치셨듯이, 여러분의 지역사회 봉사와 이웃사랑, 건전한 생활문화 운동 등의 많은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사회는 산업화의 시대를 거쳐 오면서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만,

가치관의 왜곡과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도처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고, 윤리와 도덕이 빛을 바래면서 불신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들이 다방면에서 표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성숙한 시민사회 건설을 위해 여러 가지 운동을 펼치시고 계신 여러분의 노력이 더욱 고맙고, 그 대열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전부 시루 밑으로 빠져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콩나물이 서서히 자라납니다.

같은 이치로, 여러분의 운동도 결국에는 우리 사회저변에 스며들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그동안 늘 열심히 활동해오셨듯이 앞으로도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행복한 보령을 만드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의 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아낌없는 지원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원대회」가 여러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면서도 바르게살기운동의 위상을 높이는 의미 있는 자리로 거듭나길 바라며, '바르게살기운동 보령시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연차대회 <2013.11.6. 도청 문예회관>

'인도주의는 행동이다'에 공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창립 108주년'을 기념하고 충남적십자가족 여러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마당인 「연차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시고 적십자의 정신을 실천하시며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계시는 '민경용' 대전·충남·세종지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내빈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랑과 봉사를 실천한 공로로 표창의 영예를 안으신 유공자 여러분께 힘찬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충남의 대한적십자사 단원과 봉사원 여러분!

1905년 인도주의 구현을 목표로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올해 108주년을 맞이하였고, 우리 충남지사도 1949년 발족하여 6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질곡을 함께하며 사회봉사활동과 재난구호활동, 국제협력사업 등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돌보아 오신 적십자 단원과 봉사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십자사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십니다만, 저는 "인도주의는 행동이다" 라는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세워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도주의"라는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는 여러분의 활동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최근에는 "희망풍차"라는 이름으로 우리주변의 소외된 어린이와 다문화가족, 북한이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희망심기 캠페인을 펼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상에 맞게 다양한 활동을 펼치시는 노력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연차대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정신을 다시 되새기고,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시는 단원여러분에게도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의 고귀한 정신이 우리사회 저변에 스며드는 계기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해단식
<2013.11.6. 천안드라마웨딩홀>

'선과 악이 모두 나의 스승', 긍정의 마인드 필요

「제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선수와 임원, 그리고 가족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결단식 때 몸 건강하게 대회 잘 치르시라고 당부 말씀드렸었는데, 큰 부상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27개의 메달을 획득한 선수단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참가 선수 중에는 목표한 메달 입상에 성공하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논어에 보면 "선과 악이 모두 나의 스승"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비록 이번 대회에 아쉬움이 있었을지라도 소중한 경험이 되어서 다음 대회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선수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수육성과 뒷바라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박노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체육회 관계자여러분과 선수가족 여러분께도 고마운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빛내 주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은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매우 유익한 활동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체육을 통해 '건강'과 '자립, 자활'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8월의 보치아실업팀 창단과 같은 의미 있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맘껏 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개선도 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번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충남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신 선수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많은 영광과 행운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길 바랍니다.

입동(立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여러분 모두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의회교실(대명중)

<2013.11.7. 본회의장>

우연을 붙잡아 행운을 만드는 힘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 주포면에 사는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늦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시기지만, 벌써 오늘이 입동(立冬)이라고 합니다. 좀 쌀쌀하지만 오늘 학생여러분들의 열기가 우리도의회 본회의장에 가득 차 훈훈한 느낌입니다.

보령의 대명중학교 학생여러분, 충남도의회 방문과 「청소년 의회교실 입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을 훌륭하게 가르치시면서 청소년들에게 의정활동 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유영민'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명중학교 학생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앉은 자리는 도의원님들이 앉는 자리고, 또 한쪽은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10만 도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41명의 도의원이 모여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민의의 전당'인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청소년의회 교실을 통해서 일일 도의원이 되고, 도지사가 되어 의회활동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지만, 도의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사항을 다룹니다.

첫째로, 조례 제·개정입니다. 충청남도의 자치법규인 조례를 만들고 수정하고 폐기하는 일입니다.

둘째로, 충남도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다룹니다. 도와 교육청의 예산이 연간 약8조원 정도인데,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심의하고 필요에 따라 삭감도 하며 최종결정을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셋째로, 그 예산이 도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 졌는지 결산검사도 하고,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 제대로 업무수행을 했는지 살피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등 견제기능을 수행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도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현장도 방문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많이 움직이는데, 도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의원 여러분!

옛날에는 지방의회가 없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등 공무원이 일하는 곳인 도청과 교육청을 '집행부'라고 하는데, 집행부를 견제할 세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생긴 가장 큰 목적은 그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일처리 하는 것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제하고 필요할 땐 협력해서 지방자치가 잘 굴러가게

하는 수레바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라는 양 수레바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굴러갈 때야 만이 충청남도가 가다가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통해 의장선거도 해보고 조례제정도 하고, 또 2분 소신 발언도 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유익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대명중학교 학생여러분들, 면면을 보니 모두 이 다음에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손자도 중학교 3학년인데, 우리 어린 손자들을 보는 기분입니다.

"세렌디피티(Serendip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동화 '세렌디프의 세왕자들'에서 유래된 말인데, 우연을 붙잡아 행운으로 바꾸는 힘, 생각지 못한 귀한 것을 우연히 발견하는 능력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유엔사무총장이 누군지 아시죠?

'반기문' 사무총장이 학생때 미국에 가서 케네디를 만나고 꿈을 키워서 지금 세계의 살림을 하는 유엔의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대명중학교 학생들이 우리 충남도의회를 방문해서 반기문 사무총장과 같이 미래를 향해 좋은 꿈을 꾸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시한번 오늘 충남도의회 방문을 환영하고,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다음에 도의원이 될 수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으며 반기문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대한민국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함께하신 교장선생님과 선생님여러분, 거듭 고맙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우리 충남도의회 '청소년의회 교실' 입교를 환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 여성지도자 워크숍

<2013.11.7. 보령 비체팰리스 동백홀>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변해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가을의 정취가 바다의 풍광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이곳 무창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도내 여성단체 지도자 여러분의 리더십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결속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2013 여성지도자 워크숍」이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의미 있는 자리를 준비하시고, 평소 여성의 활동과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경옥' 道여성단체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단체 지도자와 관계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신 웃으게 소리입니다만, 남자는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일상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머니 말"이고, "둘째는 아내의 말"이며, 그리고 "셋째는 내비게이션 말"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 식구한테 자주 듣는 말은,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었습니다.

반평생 넘게 함께 살아보니, 솔직히 그런 면이 없다고 부인은

못하겠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하며 여성의 역할과 비중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정치권과 공무원 등에 여성의 진출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3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性) 평등 수준은 전 세계 136개국 중 111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랍·중동국가와 비슷한 수준인데 세계가 바라보는 객관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은 처참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 참여 기회지수가 118위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권익 신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저를 비롯한 남성의 노력과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 뿐 아니라, 여성 자신들의 권익개선 노력도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가족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1박 2일로 치러지는 이번 워크숍은 여성단체 지도자와 관계공무원 등이 함께 모여 여성의 역할상(像)에 대하여 서로 고민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특강과 교육의 시간도 갖고 바다사랑 캠페인도 펼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로 꾸며지며,

특히, 소통의 시간에는 우리 도의회의 윤미숙, 김장옥 두 분 여성 의원님께서 여러분과 소중한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 좋은 시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2013년도 여성지도자 워크숍」 행사를 축하드리며, 충남여성단체와 여성인 여러분의 결속을 다지고 여성의 권익신장과 역할을 강화하는 소중한 계기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아울러 충남여성단체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성인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3차 충남지구JC특우회 우정의 날 <2013.11.10. 논산문화예술회관>

JC특우회 회원의 열정과 봉사노력에 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JC특우회의 「제23차 우정의 날」 행사개최를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JC특우회원들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충남지구 JC특우회 '지충규' 회장님과 행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김종완' 논산JC특우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특우회원 여러분!

젊은 시절 참봉사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시고도, 계속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JC 특우회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청년회의소는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앞장서며 오직 청년의 패기로 그 소명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충남JC회원님들은 우리지역의 크고 작은 일이 있을 적마다 함께 하였습니다.

'한결'같은 여러분의 자세가 보다 나은 우리사회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JC를 전역하고 특우회원이 되셨지만, 여러분

에게 참정신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바로, JC의 사회에 대한 사랑과 화합, 그리고 봉사의 정신이 깃든 젊은 기상이 그것입니다.

어릴 적 시골 부엌문 같은 데를 보면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라는 좋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귀한 정신을 적선하신 여러분과 JC특우회에는 그 문구처럼 반드시 경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열정적인 헌신과 봉사의 노력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번 '우정의 날' 행사에서도 회원님들간에 돈독한 정과 추억을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충남지구JC 특우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모든 들의 건강과 행운을 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3회 충청남도사진대전 <2013.11.13. 당진문예의전당 전시관>

순간 포착을 통해 세상의 의미를 전달

「제43회 충청남도사진대전」의 개최를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사와 전통을 더해가는 사진대전을 준비하시며, 도민들에게 사진예술의 아름다움을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충청남도지회' '최영근' 회장님을 비롯한 사진 동호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진작가 여러분!

손을 대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기술로 출발한 사진의 역사는 불과 200년도 안되지만, 눈부신 과학발전의 속도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하지만 세상을 보는 작가의 시각이 네모의 프레임에 투영되어 예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만물유전(萬物流轉)이라는 말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이 멈춰있지 않는 세상이치에서 순간의 포착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사진의 매력이라고 나름의 해석을 해 봅니다.

특히 사진은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만 얻을 수 있는 진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 컷의 사진이 생동감 있게 사건의 전말을 대변하기도 하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아 사각의 창에 표현된 작가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매 순간순간 마다 세상과 사물에 관심을 갖고 카메라에 담아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깨달음을 주는 작가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애정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금번 '충청남도사진대전'에 우수한 작품을 출품하시어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사진작가와 동호인 여러분께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진에 대한 열정으로 많은 의미 있는 작품들을 선보이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제43회 충청남도사진대전」을 축하드리며 사진동호인과 관람객들에게 기분 좋은 행사로 성황리에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사진작가협회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충남축산인 한마음대회
<2013.11.14. 논산시 논산대교 둔치>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공존현상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축산농가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2013 충남축산인 한마음 대회」가 계백의 혼이 살아 숨쉬는 충절과 예학의 고장 논산에서 개최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평소 축산농가의 활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시며 오늘의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병문'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내빈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올 한해 무더위 등 많은 악 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신 축산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축산가족 여러분!

지난 '10년도는 구제역 한파 속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올 여름에는 찜통더위 속에 많은 피해를 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은 매번 축산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FTA 확대 등 시장개방화의 문제는 더욱 큰 위협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기(危機)의 동양적 해석은

"위험(危險)과 기회(機會)가 공존하는 현상"으로,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가축질병과 분뇨처리, 친환경 축산기술 개발 등 당면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품질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축산관계자와 농가의 연구협력과 실천노력이 필요합니다.

축산가족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항상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축산인 여러분들과 고민을 함께 나누며 축산업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가족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화합을 다지는 즐거운 자리입니다.

잠시 뒤 부터는 '좋은 가축 선발대회'와 시군별 대항놀이 등 한마음행사가 흥겹게 펼쳐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을 향한 고민의 짐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간 쌓아온 스트레스는 날려 버리는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2013 축산인 한마음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축산인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여군 원도심 유입 대책 의정토론회
<2013.11.15.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세상을 지탱하는 단어 "상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여는 방문할 때마다 느끼지만, 백제의 고도답게 숭고한 역사의 혼과 차분함이 색다른 감정을 줍니다.

부소산 낙화암이나 정림사지 5층석탑, 사계절 아름다운 궁남지… 어딜 가나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는 문화도시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도에 세계대백전이 성황리에 개최되기도 했습니다만, 지속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부여는 지난 60년대 20만 명에 달하던 인구가 현재는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7만3천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침체된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9월에 오픈한 롯데 부여아울렛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역의 중요한 관심사 인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롯데 아울렛 고객의 원도심 유입을 위한 토론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자리를 함께하신 부여군 상인회와 지역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롯데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토론에 참여하시는 '유병기', '유병돈' 두분 도의원님을 포함한 패널 여러분을 비롯하여, 행사준비에 많은 신경을 쓰신 '이용우' 군수님과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상생"이라는 두 글자로 귀결될 것입니다.

지자체는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많은 투자를 한 기업에게 고마움이 있고, 포화상태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아울렛 상권을 선점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기업에게도 분명 이득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야 볼 때 소외된 계층이 발생한다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들도 있지만, 부여에서 고민하는 오늘의 숙의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역상생발전의 모델이 도출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소하지만 결코 누추하지 않은 곳, 아담하면서도 옛 왕도의 기품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부여입니다.

부여군의 큰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해단식
<2013.11.19. 온양관광호텔>

전국체전은 화합과 희망의 제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인천에서 펼쳐진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청남도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신 선수와 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선수단 전체를 무난하게 이끌며 상위권 재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 부으신 '서용제' 선수단 총감독을 비롯한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종합우승을 기록한 '카누'와 '요트' 선수 여러분!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60개의 금메달과 67개의 은메달, 또한 94개의 동메달을 목에 걸으신 선수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가장 박수를 받아야 할 분들은 매 경기 투혼을 발휘하며 최선을 다하신 선수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자 여러분!

전국체전은 단순히 힘과 기량을 겨루는 경기만은 아닙니다.

바로 백년의 역사에 근접해 가는 지역의 화합과 희망을 노래하는 전통의 제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곳 충남 아산에서 2016년에 개최되는 제97회 전국체전은 도민을 하나로 묶어 충남발전의 새로운 기틀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체육관계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열정으로 성공개최를 주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엇보다 체육대회의 주역이 될 선수여러분에 대한 지원노력에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해단식에 참석하시어 충남체육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의 장학금을 전달하신 '이인구' 계룡장학회 이사장님의 온정의 손길에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충남도의회도 성공적인 체전개최와 체육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선수단과 충남체육회, 그리고 가맹경기단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발전하는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벌써 첫눈도 내리고 날씨가 무척 쌀쌀해 졌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행복 국제 컨퍼런스
<2013.11.22. 리솜스파캐슬 루비노홀>

행복한 삶은 최고의 가치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대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옛날 강조하지 않았더라도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것에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문제는 행복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고, 그 가치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실천의 문제가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적 가치"를 넘어선 "행복한 삶"이라는 묵직한 주제로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지역의 민생현장과 행사장을 찾다 국제컨퍼런스 장소에 와보니 조금은 색다른 느낌이 듭니다.

오늘의 논의 자리가 당장 무얼 도출해서 바로 적용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충남도가 나아가야할 가치를 생성하는 토대가 되길 기대합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행사를 알차게 준비하신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행사를 함께 개최하신 한겨레 경제연구소와 충청투데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께도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참석 하신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몇가지 지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2012년도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5위인데 반해, 2013년 OECD에서 발표한 행복지수는 36개국 가운데 27위이며, 자살률은 세계1위라는 오명도 있었습니다.

우리 충남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6.25전쟁 직후에 69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국민소득이 2010년도에는 2만 달러를 넘어설 만큼 압축 성장을 이룩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나아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2000년대 들어 OECD 등 국제기구와 영국, 부탄,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행복지수를 만들고 이를 정책적으로 적극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차원의 일이라고 생각되지 쉽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을 일선에서 접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노력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행복컨퍼런스 자리는 더욱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쉼 없이 달려온 도민의 피로도는 어느 때보다 큽니다. 노인과 복지문제에 대한 관심과 눈높이는 무척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한 바로미터로써 충남의 행복지표가 필요하다고 이해됩니다.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행복지표의 설정과 정책의 연계를 통해 도민의 행복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에 있는 우리 충남도의회도 행복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회의에 함께하시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부탄에서 온 '다쇼 카르마 우라(Dasho Karma Ura)' 부탄연구센터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OECD의 '코널 스미스(Conal Smith)' 웰빙·생활조건부서장님과 중국 운남성사회과학원 '장지에(Zhang Jie)' 부연구위원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또한 충발연의 고승희 책임연구원님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자리를 통해 좋으신 말씀과 의견을 서로 경청하며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어느 해 보다도 겨울이 조바심을 내며 빨리 찾아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투자유치설명회 <2013.11.26. 메리어트호텔>

충남의 새로운 100년은 투자유치로 부터

우리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투자가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10만 도민과 함께 '충청남도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창출되며 소비가 살고, 또 그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의 지역경제가 창출됩니다.

충청남도는 수도권에 비해서 양질의 공장부지와 풍부한 인력을 가지고 있고,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유치하여 성공한 저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전국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매년 생동감 있게 성장하는 충남경제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은 내포지역에 신도시를 만들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였습니다.

충남이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충남도의 공직자와 15개 시·군은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기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기업이 우리지역에 찾아올 수 있도록 지원방안에

대하여 항상 관심과 고민을 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자리가 우리 기업인을 비롯한 투자가에게 상세한 설명으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투자선택이 탁월한 선택이 되어 모두에게 새로운 도약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선택으로 도민에게 새로운 행복을 주고 환황해권 시대에 중심지로 동북아 경제물류 허브로 입지를 탄탄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한번, 투자유치설명회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기업인과 여러 투자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행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또 도움을 주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들 유의하시고, 따뜻한 겨울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보령문화의전당 개관식

<2013.11.29. 보령문화의전당>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문화에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보령시는 산과 바다와 들이 아름다운 천혜의 관광휴양도시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보령시와 시민에게 새로운 힘이 될 「보령문화의전당」 개관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1세기는 "문화감성시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문화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화를 안다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보령문화의전당」은 바로 보령의 역사와 문화와 예술이 한데 어우러져 숨 쉬는 공간입니다.

앞으로 알찬 운영을 통해 시민에겐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문화-관광휴양도시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는 장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대천역 이전과 함께 힘들었던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개관이 있기 까지 수고하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

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한번, 「보령문화의전당」 개관을 축하드리며, 보령시의 보물로 소중이 가꾸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1회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2013.11.30. 서산 농어민실내체육관>

보육은 미래를 위한 핵심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충청남도어린이집연합회 '김완희' 회장님을 비롯한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제11회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개최를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지역의 6만9천여 명의 아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오신 1만3천여 충남 보육교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육가족에 대한 애정으로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귀빈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보육가족 여러분!

보육은 미래를 위한 핵심투자라고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그 중요성은 더합니다. 그리고 보육은 '돌봄'과 '교육'이라는 총체적 서비스로 인식되며 갈수록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도 충남의 영유아의 약 57%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은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든든한 버팀 목이 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장인에 비하여 낮은 보수와 높은 평균근로시간을 보이고 있으며, 격무와 스트레스로 이직률이 높아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적절한 논의를 통해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해맑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처우와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열한 번째 충남 보육교직원들의 한마음대회'를 축하드리며, 오늘의 행사가 상호간에 친목과 결속의 강화는 물론, 정보교류와 의견교환을 통해 보다 나은 보육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생성하는 유익한 자리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들 잘 챙기시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충남자원봉사자대회 <2013.12.6. 도청 문예회관>

행복공동체를 만드는 든든한 힘

충남 자원봉사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눔, 봉사, 배려라는 자원봉사의 참뜻을 기리고자 마련 된 「2013 충남자원봉사자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평소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오늘의 대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지순관'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묵묵히 손길을 건네 오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따뜻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남다른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큰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자리를 빛내기 위하여 함께 하신 내빈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자원봉사가족 여러분!

최근 장기 경기침체와 함께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 졌고, 사회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진 느낌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원봉사는 보다 수준 높은 복지혜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땀을 흘리며 인간과 인간이 만나게 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창구가 마련됩니다.

그럼으로써 사회의 벽을 허물고 행복공동체를 만드는 든든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복지정책'과 차이나는 점입니다.

이렇게 자원봉사는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는 소중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자원봉사가족 여러분들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도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과 함께 자율봉사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3 충남자원봉사자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충남의 행복공동체를 향한 희망찬 미래를 다짐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 따뜻한 연말연시 맞이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5회 충청남도지사배겸 전국장애인탁구종합선수권 대회 <2013.12.7. 당진실내체육관>

작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탁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장애인 탁구선수인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며, 실력을 겨루는 「장애인탁구선수권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5회 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가 전국대회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회에 참가하신 선수와 임원여러분, 그리고 자원 봉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체육과 복지에 늘 힘써 주시며 뜻 깊은 대회를 준비하신 충남장애인체육회 '박노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와, 대한장애인탁구협회 '이일규' 부회장님과 '신현달' 道장애인탁구협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며 대회까지 참석하신 선수여러분께 힘찬 격려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체육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서 건강을 위해 중요한 활동입니다. 더구나 장애인체육은 스포츠를 통해 자활의식을 고취시

키고 사회활동 참여와 인간으로서의 자존감도 키울 수 있어 1석 4조입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탁구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며 동료와 함께 운동하여 오셨듯이 꾸준한 스포츠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도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과 고충을 이해하고 개선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탁구 가족여러분! 탁구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공을 다루는 운동지만, 민첩함과 영민함을 요구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작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운동이 탁구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렇게 "작지만 센" 운동을 하시는 전국의 장애인 탁구 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펼쳐질 경기를 떠올리니 벌써부터 흥미진진함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여러분 모두 늘 그랬듯이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성취의 기쁨 누리시고 스포츠 인으로써 우정도 돈독히 하는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추운 겨울날씨입니다. 주위에선 온도탑 제막식도 열리고 많은 행사가 열립니다만, 장애인 여러분 들이 기쁘고 행복할 때 사회의 행복온도도 상승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탁구경기 열기처럼 훈훈한 겨울맞이하시기 바라며, 다섯 번 째 충남도지사배와 전국대회를 겸하여 열리는 '장애인탁수선수권대회' 개최를 거듭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탁구체육인을 비롯한 장애인과 복지가족 모두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호국영웅기장 수여식 <2013.12.9. 도청 대회의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영웅

존경하는 6.25 참전용사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이 땅위에서 우리가 자유와 평화,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6.25 전쟁이 끝난 지도 벌써 60년이 되었다는 것에 새삼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닌 정전이라는 현실에 안타까움 마음이 크지만, 정전협정을 통해 전쟁을 막고 평화를 가져 왔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과거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눈 역사적 비극은 씻을 수 없는 일지만, 전쟁의 폐허 속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무역규모 8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참전용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참전용사 여러분의 헌신에 210만 도민과 함께 무한한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수많은 순국선열과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정전협정 60주년을 계기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자 마련된 '호국영웅기장' 수여행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써 또 도의회 의장으로써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호국영웅기장'을 받으시는 151분의 참전용사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간 6.25 참전용사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 예우에 관하여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더구나 60년이라는 긴 세월의 흐름과 함께 세대가 바뀌면서 참전용사의 희생정신이 자꾸 잊혀져가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특히 한국전쟁을 북침으로 오인하고 있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전용사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보훈인식 향상을 위해 사회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도의회에도 6.25 참전용사의 예우향상과 함께 도민의 보훈인식 제고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6.25 참전 유공자여러분, 다시 한 번 오늘의 '호국영웅기장' 수여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함께 빛내 주신 여러분께도 반가운의 인사말씀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충청남도 생활체육인 한마당대회
<2013.12.17. 덕산리솜스파캐슬>

운동의 생활화, 100세시대 필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대 속에 시작하였던 계사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의미 있는 시기에 생활체육인의 성과를 나누며 화합을 위한 「2013 생활체육인 한마당 대회」가 개최된 것을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 한해도 "운동은 밥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충남생활체육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무엇보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몸소 실천하신 공로로 표창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힘찬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충남생활체육인 여러분!

우리사회는 어느덧 기대수명 '100세 시대'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1957년 50.7세 불과했던 평균수명이 2012년 81.3세로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건강수명' 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삶은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행복한 삶의 전제조건이라고 말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생활체육'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남생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일주일에 세번, 하루 30분이상' 운동하자는 「스포츠7330」 캠페인은 매우 간단명료하면서도 의미 깊은 건강실천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올 한해도 도민의 건강한 삶과 튼튼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오신 생활체육인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좀 더 쉽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와 여건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도 도민의 생활체육 확대와 체육편의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인 여러분! 이제 계사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희망찬 갑오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충만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생활체육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력발전소의 사회·경제적 피해 관련 의정토론회
<2013.12.20. 보령웨스토피아 동백홀>

사회갈등문제에 현명한 대처 있어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토론회」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장에 오면서,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입장이 달라서", 그리고 "의견이 달라서" 마음의 리모콘을 꺼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익광고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광고에서도 보여주는데,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사회갈등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27개 회원국 중 2위의 높은 사회갈등순위와 그 비용도 많게는 연간 246조에 달한다고 하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전적으로 맞다고 할 순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갈등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혹시나 귀담아 들어야 할 것들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잠가 놓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의정토론회 주제는 도내 화력발전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문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설비용량의 약49%를 우리충남에서 보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미처 간과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시급이 개선해야할 사항도 많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하신 패널 분들이 모인만큼, 각자의 입장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함께 숙의 과정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토론회 자리가 마련되기 까지 많은 신경을 쓰신 '명성철'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맹정호' 의원님과 바쁘신 중에도 토론에 응해 주신 환경·시민단체와 한전, 시·군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호명하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관심을 가지고 토론장을 방문하신 도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사무처직원과 충발연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올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질 않았습니다.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미리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인천충남도민회 제26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2013.12.23.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

수구초심(首丘初心)의 마음

재인천 충남도민회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속에 시작된 계사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되돌아보며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시기에 재인천 고향 선후배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물여섯 번째 정기총회'가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사년은 충남도가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내포신도시에 이전하여 도약을 시작한 한해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좀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언제나 고향을 잊지 않고 성원해 주신 향우님들 덕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두해 동안 「재인천충남도민회」를 탄탄하게 이끌어 오신 '장한조' 제13대 회장님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년 전 취임하면서 회원의 권익신장과 충청인의 충·효·예의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조직의 화합과 결집을 도모하며 장학재단도 튼실하게 만들겠다는 다짐을 열과 성을 다하여 그대로 실천하여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남 농특산물 판매 등 여러 가지 고향사랑활동을 활발히 펼치셨습니다. '장한조' 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임 '전달수'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 취임하는 '전달수' 제14대 회장님에 대한 회원님들의 기대와 믿음은 매우 단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성군민회장을 역임하면서 충남향우와 고향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온 모습을 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년간 고향발전과 충남향우를 향한 열정으로 '재인천충남도민회'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도 회원 여러분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향우님들이 고향에 대하여 남다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충남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구초심(首丘初心)'의 마음으로 항상 태어나고 성장한 곳을 잊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또한 타지에서 고향사람을 만나면 그것처럼 반갑고 기쁜 일이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모처럼 자리를 함께하여 고향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우고, 충남의 미래와 「재인천충남도민회」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알찬 한해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충남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26회 정기총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장한조' 회장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신임 '전달수' 회장님에 대한 환영의 마음을 함께 전하여 드립니다.

「재인천충남도민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1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시상식
<2012.12.31. 도청 대회의실>

하늘의 도는 부지런함에 보답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의미 있는 날에 「제21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시상식」이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의회 의장으로써 지난봄부터 얼마 전 늦은 가을까지 도내 여러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장과 산지유통센터, RPC, 작목반, 그리고 들녘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의 농어촌 현실이 매우 척박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농어업인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구나 하는 점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묵묵하게 우리 농어촌에 열정과 애정으로 열심히 땀 흘리신 농어업인 여러분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농어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남우용'님을 비롯한 농어업인 여러분, 기관·단체 대표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어업인 여러분!

어려움을 딛고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대한민국이지만 농어업이 뒷받침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선진국 언저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농어업道인 우리 충남에게 농어업과 농어촌 문제는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농혁신」을 바탕으로 농어촌과 농어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농산시책 종합대책분야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도 농어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오늘로써 계사년 한해가 마무리되고, 내일부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갑오년 한해 여러분들 건승 하라는 의미로 사자성어 하나를 전하고 축하인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천도수근(天道酬勤)」이라는 사자성어인데, 잘 아시듯이 '하늘의 도는 부지런함에 보답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늘 그랬듯이, 열심히 하신 만큼 결실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9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2012. 7. 12 ~
2014. 6. 30

이준우 의장
연설문집

도민과 함께
(2014년도)

신년사 <2014.1.2.>

초심을 잃지 않고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甲午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도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지속된 경기침체여파와 극심했던 무더위로 가계와 생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신 도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회는 도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새해에도 충남도의회는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먼저, 지난해 출범한 내포신도시가 명품도시로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아물지 않은 서해안유류사고피해 배·보상문제 등 많은 지역현안 사항에 대하여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뛰어다닐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환(環)황해권 시대에 충

남이 중추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 도민과의 대화 창구를 더욱 다양화하고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충남의 발전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 받는 '충남도의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도민 모두에게 2014년 갑오년은 밝은 미래를 향해 달리는 기운 센 청마(靑馬)처럼 활기찬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도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전일보사 주최 신년교례회 <2014.1.2. 도청 대회의실>

청마(靑馬)의 기운으로 힘차게 뛰는 한해

존경하는 충남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해 지역발전에 많은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은 '푸른 말(馬)'의 힘찬 기운을 받아 역동적으로 성취해 가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작년에 우리는 도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내포신도시가 출범하고 힘찬 도약을 다짐 했습니다.

아직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만,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우리충남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흔들림 없이 방향을 잡고 제대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지역정가에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 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잊지 않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충남도의회의 도의장직을 맡고 있습

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도의원들의 맡은 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시고 계신 훌륭하신 충남의 기관·단체장 여러분을 비롯하여 도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 봅니다.

지난 역사속에서 역량에 비해 저평가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충남을 비롯한 충청지역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커지는 지역경제력과 인구수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환황해권 시대에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2014년 갑오년은 대한민국이 나아가할 방향을 결정하고 판세를 바꾸는 변화의 중심에 우리 충남이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길에 우리 충남인이 중심이 되어 열심히 뛰는 한해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2014.1.23. 보령 비체팰리스>

빛나지만 겸손하신 분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지체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지도자분들이 모인 「2014년도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가 충남보령에서 개최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미 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한국지체장애인 협회 '김광환' 중앙회장님과 '이건휘' 충남협회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체장애인 지도자여러분!

도덕경(道德經)에 나오는 말로 '광이불요(光而不耀)'란 말이 있습니다. '빛나되 번쩍거리지 않는다.'는 말인데,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이 네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실로 빛나는 일을 묵묵히 하면서 요란스레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임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된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여러분들께서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 장애인 예술제, 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일들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정부도 외치고 지자체도 외칩니다만, 그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지어진 건물에 계단하나 없애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아직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제도개선과 함께 점차 나아질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이 그 힘을 모아야 할 것인데, 그 중간지점에서 지도자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지방의원들도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종사자 여러분의 여건개선을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자 여러분!

'사랑은 장미가 아니라 함께 핀 안개꽃'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확실한 방법은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신년인사를 겸하여 모인 이 자리에서 장애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서로 함께 하며 좋은 정 나누시고 뜻 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행사를 축하드리며 우리지역 방문을 환영합니다.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쌀전업농 충남연합회 회장 및 임원 이·취임식
<2014.1.24.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대강당>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지혜

쌀전업농 회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오년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취임하는 전임 '권혁진' 회장님과 신임 '이은만' 회장님, 두 분 회장님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의 쌀 농업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원진 여러분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내빈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쌀 전업농회원 여러분!

지금은 분명 쌀 산업에 어렵고도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올해로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이고, 정부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의 가입추진과 FTA 대상국 확대 움직임도 우리의 쌀 산업에는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쌀 소비는 최고 수준이었던 1970년의 반토막 수준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개방화의 물결과 경제논리에 의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농업과 쌀 산업입니다.

60-70년대 최고의 아시아농업부국이었던 필리핀이 90년대 농업투자액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세계최대의 쌀 수입국으로 전락한 사례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이 스크린쿼터의 보호막 속에 자생력을 싹틔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중요한 가치에 대하여는 보호와 육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일 8년간 묶여있던 쌀 목표가격이 10.5%인상되어 18만8000원으로 인상되긴 했습니다만, 최소 20만 원 이상을 바랬던 입장에선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우리 쌀과 농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절실하며, 함께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쌀 전업농 여러분!

우리 농촌과 쌀 산업을 생각하면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우화가 떠오릅니다.

어리석은 자가 산을 옮긴다는 다소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불가능한 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공'의 자세처럼, 우리 농업과 쌀도 대대손손 그 가치를 이어받아 우직하게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어제의 수고가 영글어 오늘의 결실로 나타나듯이 오늘의 수고가 영글어 내일의 결실이 됩니다.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을 지라도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지만 내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도 여러분과 고민을 함께하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두 분 회장님과 임원진의 이취임 행사를 축하드리며, '한국쌀전업농충남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4학년도 충남도립청양대학 입학식
<2014.2.26. 충남도립청양대학 해오름관>

무한한 가능성의 문에 들어섬

도립청양대학 신입생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오늘 생기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입학식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난 스무 해 가까운 시간동안 헌신과 사랑으로 이렇게 늠름한 청년으로, 또 아름다운 숙녀로 길러주신 부모님과 가족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립대학을 튼실하게 가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청양대학 이사장이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우리 청양대학에 대한 애정으로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585명의 입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12년간의 긴 학업시간을 거쳐 새로운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조금은 두려움도 있겠지만, 정말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스물살의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도 해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춘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광스러운 입학식의 자리에 함께하며, 여러분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충남도의회 의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자신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두려움을 떨치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2년간 여러분의 꿈을 찾고 준비해서 우리 충남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성의 문을 열기 위해 늘 즐겁게 책과 함께 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이야기인 데, 유명 연설가인 '찰리 트리멘더스 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자신과 5년 뒤의 자신의 차이는 그 기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과 읽는 책들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들과 책을 통해 다양한 간접경험을 하고 늘 공부하는 습관을 가짐으로써 나도 모르게 달라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즐겁게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며 행복한 대학생활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충남도립 청양대학인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고 지역을 위해, 또 국가발전을 위해 성장하는 젊은이가 되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충남도의회도 항상 여러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영광스런 입학을 축하드리며 여러분들의 앞날에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5회 충청남도 장애인합동결혼식
<2014.4.2. 공주 백제체육관>

신성하고도 소중한 인연

여러분, 반갑습니다.

꽃피는 아름다운 계절에 소중한 축하의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축복 속에 출발하는 열여섯 쌍의 신랑·신부들을 위한 「제15회 충청남도장애인 합동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의 소중한 결실이 있기까지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주신 부모님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이건휘' 회장님을 비롯한 도내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오다 만나 사랑으로 맺어지는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이자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결혼하는 신랑신부를 '천생배필'이라 부르고 '하늘이 점지해 주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삼세의 인연'이라고 하여 '현세의 두 사람의 만남은 전생에서부터 맺어왔고, 내세에도 소멸할 수 없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양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또는 은총'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결혼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신성하고도 소중한 인연으로 맺어지는 일입니다.

신랑신부 여러분! 사랑은 '본질적으로 의지하는 행위'라고 유명한 사회학자가 이야기 했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각자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 기쁠 때나 지치고 힘들 때나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가 부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예쁜 사랑 알콩달콩 나누시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열여섯 쌍의 복된 만남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신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4회 장애인의 날, 희망충남 어울림축제
<2014.4.18. 논산공설운동장>

차별과 편견의 벽을 넘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의회 의장 이준우입니다.

33년 전 UN에서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한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년 맞이하게 되는 '장애인의 날' 태동의 계기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서른네 번째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희망 어울림축제'를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장애인의 날' 제정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아울러, 어려움 속에서도 장애를 극복하고 희망의 모습을 보여줘 「올해의 장애인상」을 수상하신 열다섯 분에게도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충남장애인과 가족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도민여러분!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던 개발시대를 거쳐 오면서 빛나는 경제성과를 이룩했지만 더욱 소외되었던 분들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사회의 관심은 너무나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일일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성찰하고 경제수준에 걸맞게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건휘' 회장님을 비롯한

장애인단체 회원님들이나, 존경하는 봉사자 여러분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온전히 이루어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올바른 정책집행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 껌 딱지처럼 붙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번 달 우리도의회에서는 '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만, 등록장애인의 90.5%가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후천적 장애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잠재장애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장애인을 배려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우리사회가 다해야한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13만 충남장애인과 가족여러분! 아직도 계단하나 없애기가 참으로 어려운 우리사회 현실이지만,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좀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함께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더 나은 장애인 복지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한 날입니다. 서로 격려와 정을 나누며 자립의지를 되새기는 흥겨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행사를 알차게 준비하신 충남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장애인단체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며, 여러분의 앞날에 신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2회 충남연극제 <2014.4.24. 홍주문화회관 대강당>

복제될 수 없는 생동감의 매력

충남연극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2회 충남연극제의 개최를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연극의 매력은 결코 복제될 수 없는 생동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도 닮아 있습니다.

인류역사와 함께 오랜 세월동안 종합예술로 사랑받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연극을 실제로 접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마도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던 시대의 산물일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 여건 속에서도 연극예술에 대한 열정을 쏟아 붓고 있는 우리지역 연극인 여러분들에게 깊은 애정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올해도 충남연극제를 훌륭하게 준비하신 '전인섭' 한국연극협회 충남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남연극인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도내 5개 극단에서 연극제 기간 동안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홍성·내포지역을 비롯한 충남 도민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연극제에 참가하시는 연극인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며, 그동안 연습하신 대로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연극의 4대 구성요소 중 하나는 관객이라고 합니다. 관람객이 없는 연극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많은 도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 연극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연극예술문화의 저변확대와 연극예술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1회 충청남도 서예대전 <2014.5.9. 공주문예회관>

조화로움의 예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고장 서예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저변확대에 도움이 될 '제21회 충청남도 서예대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훌륭한 작품을 출품하시어 입상의 영광을 안으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에게 서예의 깊은 멋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시는 한국서예협회 충청남도지회 '이일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예인 여러분!

비록 컴퓨터가 인간의 손 글씨를 대체하고 문방사우(文房四友)란 말이 낯설어진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서예의 가치는 결코 폄하될 수 없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예술임에 틀림없습니다.

바로 서예는 붓과 종이, 먹의 조화 속에 작가의 정신세계가 담겨져 3천 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동양예술의 긴 역사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물질만능주의에 길들여진 안타까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여유와 정신수양의 수단으로 인정받는 예술이 서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한국과 중국의 이름난 서예가들은 대부분 장수하였고, 많은 서예인 들이 붓글씨를 적극 추천하는 점 등을 볼 때 심신단련에 정말 좋은 예술 활동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고장 서예인 들의 대표무대로 그동안 지속되어 온 '충남 서예대전'이 앞으로도 도민에게 서예의 기품을 느끼게 하고 전통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매개체가 되길 기대합니다.

'스물한 번째 충청남도 서예대전'의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며, 한국서예협회 충남지회의 번영과 서예인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발전협의회 정기총회 <2014.6.16. 도청 대회의실>

대화와 연대의 참맛

충남발전협의회 회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아 붓고 있는 「충남발전협의회」의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애향심이라는 순수함으로 충남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동규'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600여 지역 오피니언 리더 여러분께 깊은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 이론이 있겠지만, 정부와 대의민주주의로는 충족되지 못하는 시민사회의 욕구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성된 것이 NGO로 대변되는 시민·사회단체일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지역사회에 이슈를 제기하고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나은 지역발전을 논의 하는 충남발전협의회를 통해 바람직한 NGO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해 내포신도시 출범 이후의 지역현안 과제에 대해 4개 분야에 걸쳐 지상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에게 충남의 현실을 알리고 지혜를 모으는 모습이 그러 했습니다.

특히, 도내 152개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충남사회단체 대표자회의' 결성을 제의하고 의미 있는 회의결과를 도출하는 추진력도 엿 볼 수 있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충남발전협의회의 지역발전 논의를 지역주의로 편협하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토론을 통해 모으고 표출함으로써 결국 균형 잡힌 발전방향을 도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연대를 통해 지역현안을 풀고자 노력하는 충남발전협의회의 추진방향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우리 도의회도 다양한 의견에 경청하며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 해야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충남발전협의회 가족여러분!

이제 곧 출발선상에 설 제10대 충남도의회와 민선6기 충남도정은 도청이전 이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전환기에 선 충청남도가 올바르게 나아 갈 수 있도록 올해도 알찬 사업추진과 함께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회원님들의 소중한 지혜가 모여 충남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충남발전협의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1회 은빛페스티벌 <2014.6.17. 천안시청 봉서홀>

'건강' 한 장수를 위해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은빛페스티벌의 개최를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르신 모두에게 흥겨운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우리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원조국가였던 가난한 나라가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고, 경제수준이 높아지는 속도보다 빠르게 평균수명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충남도만 해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6%를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제 인생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하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 버팀 목은 바로 폭풍 같은 변화의 시기를 감내한 현재의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며 더욱 더 어르신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르신들에게 여가문화를 접하고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은빛페스티벌」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게 됩

니다. 아울러, 이렇게 뜻 깊은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한국레크리에이션연구협회' '임동규'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장수는 분명 축복이지만 얼마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느냐가 더욱 중요한 시대입니다. 아시겠지만 매일 30분간 즐겁게 몸을 움직이면 마약보다도 강력한 기분 좋은 엔돌핀이 생성되어 우울증을 차단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즐기시는 노래와 춤, 악기연주와 그리고 동료들과의 어울림의 자리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신 실력을 맘껏 뽐내시고 다함께 즐기며 화합하는 신명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11회 은빛페스티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어르신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9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2012. 7. 12 ~
2014. 6. 30

이준우 의장
연설문집

언론사 등
창간·발간 축사

내포신문 창간 <2012.8.15>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 되어 주길

건전한 내포문화의 창달과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내포신문의 창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창간에 이르기까지 갖은 수고와 열정을 다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정보화 물결시대에 정보 습득의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남도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기대도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언론의 바른 역할은 나날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창간을 맞이하는 내포신문은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독자와 호흡하며, 지역민의 희망을 찾아주는 지역 정통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포신문이 다양한 지역민의 여론형성과 함께 비전을 제시하고 생생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200만 충남도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는 내포신문, 충남도의 발전과 늘 함께하는 내포신문이 되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내포신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내포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충남장애인신문 창간 10주년 <2012.10.7>

지역장애인의 진정한 대변자

우리 지역 12만 장애인의 대변지 「충남장애인신문」 10돌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애써 오신 '탁정원' 사장님을 비롯한 충남장애인 신문사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충남장애인신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만들며,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장애인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그 소명을 다해주시고 신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창간 10돌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12만 도내 장애인은 물론 200만 충남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신문으로 거듭 발전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제신문 창간 13주년 <2012.11.1>

지역민의 희망되는 정통언론 되길

우리지역 대표적인 종합시사지로서 올바른 여론의 형성과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온 백제신문의 창간 13주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갖은 참 언론을 추구하는 열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 해주신 '이정우' 회장님을 비롯한 백제신문 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백제신문은 '밝은 생각', '좋은 소식'이라는 기치로 지역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며, 참 언론의 모습을 추구해왔습니다.

알찬 정보, 생동감 넘치는 기사, 독자 중심의 열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중심이라는 새로운 지방언론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충남도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기대도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 언론의 올바른 역할도 더욱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창간 13돌을 맞이하는 백제신문은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독자와 호흡하며, 지역민의 희망을 찾아주는 지역 정통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지역민의 여론형성과 함께 비전을 제시하고 생생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200만 충남도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으며, 충남도의 발전과 늘 함께하는 백제신문이 되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백제신문의 창간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백제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내포시대 창간 2주년 <2012.11.16>

충남도의 발전과 함께하는 내포시대

우리지역 대표적인 지역 언론으로서 올바른 여론의 형성과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온 내포시대의 창간 2주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 언론을 추구하는 열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 해주신 '박해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내포시대 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내포시대는 알찬 정보, 생동감 있는 기사, 독자 중심의 열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 중심이라는 새로운 지방언론의 모습을 보여 주어 왔으며, 다양한 지역민의 여론형성과 함께 비전을 제시하고 생생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등, 어느덧 도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지역대표언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충남도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 언론의 올바른 역할도 더욱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창간 2돌을 맞이하는 내포시대가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독자와 호흡하며, 지역민의 희망을 찾아주는 지역 정통 언론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만 충남도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으며, 충남도의 발전과 늘 함께하는 내포시대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귀사의 창간 두 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16호 충남문화발간 <2012.11.30>

지역문화 소통과 교류의 장

우리지역 다양한 문화재를 알아보고 교류하기 위한 「제16호 충남문화」의 발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준호' 충청남도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따뜻한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는 지역문화의 지킴이로써 우리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의 계승과 새로운 문화의 창달로 도민의 삶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열정을 다해 주셨습니다.

21세기 세계화시대에 접어들어 세계 각국에서는 문화산업을 국가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삼아 자국의 문화발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가발전을 위해 우리가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꾸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지역 문화의 특성과 독창성의 개발은 세계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1400년 전 찬란하고 융성했던 백제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백제문화는 지역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밑거름이자 자랑입니다. 훌륭한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또한, 갈수록 도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문화원과 회원여러분의 역할도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 열여섯 번째 발간을 맞이하는 「충남문화」가 지역 문화인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과 도민 문화의식수준을 고양하는 계기를 만들고, 지역문화유산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가 향토문화자원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헌신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역문화의 발전과 지역문화인 여러분의 활동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충남 문화」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홍성신문 창간 24주년 <2012.12.3>

지역발전에 비전 제시하는 언론이기를

우리지역 대표적인 지역 언론으로서 올바른 여론의 형성과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온 홍성신문의 창간 24주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 언론을 추구하는 열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 해주신 '윤두영'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홍성신문 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홍성신문은 생생한 정보, 생동감 넘치는 기사, 독자 중심의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 중심이라는 새로운 지방언론의 모습을 보여 주어왔으며,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정신을 유지하며 지역주민과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함께 나누면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지역대표언론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갈수록 충남도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지역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독자와 함께 호흡해 온 홍성신문과 같은, 곧은 언론사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고 크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민의 올바른 여론형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신속한 정보 전달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지역정론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늘 충남도의 발전을 선도하여 200만 충남도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는 홍성신문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며, 홍성신문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충청남도의회 60년사 발간 <2013.2.>

역사에 길이 남을 귀중한 자료

충청남도의회 의정활동의 역사를 담아 후대에 물려주고 충남의정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 줄 『충청남도의회 6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뜻깊게 생각 합니다.

지방의회는 1947년 7월 17일 제헌헌법에 지방자치 조항을 규정하면서 근대적 지방 자치제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어 지방자치제가 추진되었으며 1961년 5.16과 함께 지방의회가 해산된 후 30여년간의 암흑기를 거쳐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격랑 속에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 온 역대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은 물론, 지방자치의 도입과 중단, 부활과 정착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변천사와 충청남도의회의 출범 및 발전 상을 자세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60년사에 수록했습니다.

그동안 의회자료실과 문서고에 의회관련 속기록 및 회의록 등은 보존 되었으나 충청 남도의회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아쉬움이 많았으나, 체계적이고 역사성 있는 금번 +%년사 발간은 충남의정의 발자취를 뒤돌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제1대부터 제3대까지의 기록은 6·25 한국전쟁과 각종 정

치적 파란을 겪으며 그 기록들이 대부분 소실되었으나 신문자료와 문서고에 보관되어있던 회의록 등이 60년사에 수록됨으로써 그 빛을 보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청남도의회 60년사』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어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넓히고, 새로 출범한 내포신도시를 통해 우리 충남이 환황해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방의회가 부활 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완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번 발간되는 60년사가 지방자치체계를 확립하고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고 지방자치발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이번 60년사 발간을 위하여 그동안 노력하여 주신 전·현직의원님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자분과 집필 및 감수 교정 및 편집에 이르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보령투데이 창간 2주년 <2013.4.11>

지역민의 진정한 귀와 눈이 되는 역할을 담당해야

보령의 대표 언론인 「보령투데이」의 창간 2주년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년간 보령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올바른 지역 여론 형성에 앞장서 오신 보령투데이 가족 여러분에게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보령투데이는 정론직필(正論直筆)의 모습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히도 애써 주셨습니다.

특히,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기사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보도는 정도를 걷는 지방언론의 참 모습을 보여 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두 보령투데이 가족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 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령투데이는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독자와 호흡하며, 지역 언론의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짚어내는 선구자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보령투데이의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대변하여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부여뉴스 창간 7주년 <2013.5.>

성숙한 지역 여론형성에 앞장서길

부여지역 주민의 올바른 여론 형성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정론직필 하여온 부여뉴스의 창간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 언론을 추구하는 열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 해 주신 부여뉴스 김종만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은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생생한 기록을 제공하며, 후손들에겐 값진 기록을 남겨주는 역사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언론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심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다양해 지고 있어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때에 창간 7주년을 맞이하는 부여뉴스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독자와 호흡하며, 독자들이 혜안을 가질 수 있도록 보도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한번 부여뉴스의 창간 7주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홍주신문 창간 6주년 <2013.6.5>

행복 전하는 언론, 커 가길

새 충남도청의 내포시대를 맞아 홍성의 희망언론, 행복신문인 「홍주신문」 의 창간 6주년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6년간 홍성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올바른 지역 여론 형성에 앞장서 오신 홍주신문 가족 여러분에게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홍주신문은 정론직필(正論直筆)의 모습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히도 애써 주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여, 새로운 충남의 역사를 시작하는 원년으로 앞으로, 홍주신문은 도정을 지역민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기사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보도를 통해 정도를 걷는 지방언론의 참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홍주신문의 창간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대변하여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천안저널 창사 2주년 <2013.6.21.>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지역언론

지난 2년간 천안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올바른 지역 여론 형성에 앞장서온「천안저널」의 창사 2주년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천안저널은 정론직필(正論直筆)의 모습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히도 애쓰고, 특히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기사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보도는 정도를 걷는 지방언론의 참 모습을 보여 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두 천안저널 가족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 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대변하여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창사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충남장애인 행복뉴스 창간 11주년

<2013.7.20>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참 언론

장애인들에게 정보제공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의 역할을 다하는 충남장애인 행복뉴스의 창간 11주년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1년간 장애인들의 알 권리 충족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서 오신 충남장애인 행복뉴스 가족 여러분에게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충남장애인 행복뉴스는 정론직필(正論直筆)의 모습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손잡고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도 애써 주셨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배려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제도와 복지서비스가 한층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교육 여건과 높은 취업의 벽 등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보도를 통해 정도를 걷는 지방언론의 참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충남장애인 행복뉴스의 창간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대변하여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굿모닝 충청 창간 1주년 <2013.8.1.>

창간 1년 200만 도민과 함께 축하

먼저 지방화 시대의 우리고장 언론문화를 창조하고 밝은 사회를 선도하는 『굿모닝 충청』 창간 1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굿모닝 충청』은 그동안 우리 충청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담아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독자들의 눈과 귀가 되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충청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올바른 언론으로서의 소명을 다해 오신 노고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굿모닝 충청』은 창간이래 올바른 여론형성과 건전한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해 왔음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을 생생히 그려냄으로써 충청인의 자부심을 높여주고 생활의 굳건한 길잡이가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하고, 지역민들의 생생한 생활상을 담아내는 등 진정한 충청인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리며 해를 거듭할수록 충청인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언론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포타임즈 창간 1주년 <2013.8.14>

내포시대를 선도하는 중심언론으로 거듭나길

「내포타임즈」의 창간'첫돌'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간 「내포타임즈」는 충청역사의 새로운 중심지인 내포신도시 지역의 생생한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충남의 독자들에게 충실하게 제공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폭넓게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왔고 공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언론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충남도청 이전으로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시작된 내포시대에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어느 한쪽이 왜곡되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지혜와 슬기를 모으고 지역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셔왔습니다.

우리 내포지역은 앞으로 순탄한 신도시의 개발과 정착을 위해 산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최대 현안인 내포신도시가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변하여 주시고 지역민의 희망과 기대를 한껏 심어줄 수 있

도록 내포시대의 커다란 핵심 역할을 맡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언론을 둘러싼 환경은 스마트 기기의 발달, SNS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전과는 다른 환경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언론은 그 어려움이 더욱 클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가진 정보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 언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볼 수 있는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언론이 「내포타임즈」의 현재와 미래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포타임즈」의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리며 해를 더할수록 충청인의 신망과 사랑을 받은 언론으로 발전하시여 내포시대를 선도하는 정론지로서 거듭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포타임즈」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중도일보 창간 62주년 <2013.9.2.>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신문

충청권을 대표하는 언론으로 생생한 소식과 유익한 정보들을 독자들에게 제공해온 「중도일보」의 창간 62주년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충청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왔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언론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세상을 아우르는 "중도(中道)"의 길을 꾸준히 걸어 온 것입니다.

중도일보의 오늘이 있기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으신 중도일보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중도일보는 각계 계층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요구를 대변하고, 독자들에게 공정하고 개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론지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중도일보」의 창간 62주년을 축하드리며 더욱 독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신문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충남장애인신문 창간 11주년 <2013.10.>

장애우의 빛과 소리가 되는 전문지로 거듭나길

충남의 유일한 장애우에 대한 언론으로 생생한 소식과 유익한 정보들을 독자들에게 제공해온 「충남장애인신문」의 창간 11주년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사회, 복지, 경제,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장애우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왔고 사회적 편견을 타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충남의 장애우에게 "빛과 소리"가 되어 힘차가 달려 오셨습니다.

「충남장애인신문」의 오늘이 있기까지 장애우에 대한 남다른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신 「충남장애인신문」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우들의 다양한 요구를 대변하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우에 대한 "사회인식개선"이라는 창간 정신을 실현하여 저명한 전문지로 확고히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충남장애인신문」 창간 11주년을 축하드리며 더욱 독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희망언론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보령시민신문 창간 17주년 <2013.10.30.>

시민의 중심 '참 언론'으로 변함없는 발전을 바랍니다!

보령지역 중심언론인 「보령시민신문」의 창간 17주년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령시민신문」은 그동안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신속하게 생생한 정보, 알찬소식을 전달하며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또한 보령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공정하게 알림으로써 지역의 화합과 소통에도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지난 17년간 쉼 없이 달려오신 「보령시민신문」 가족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시민중심 건강한 언론'이 될 것을 다짐하였던 초심을 잃지 말고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하는 정론직필(正論直筆)의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역의 건전한 여론문화를 선도하여 성숙한 시민문화형성에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창간 17주년을 축하드리며 해를 거듭할수록 독자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사랑받는 신문으로 더욱 발전해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계룡일보 새출범 <2013.11.>

새 발걸음 축하

2010년 창간 이후 대전과 충남지역 독자에게 유익하고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던 「계룡일보」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창간이후 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좋은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계룡일보」 임직원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계룡일보」는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지역의 독자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소식을 생동감 있게 전달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함은 물론 공정한 자세로 지역의 소통과 화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룡일보」의 새로운 발걸음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독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중심 지역 언론으로 뚝심 있게 발전해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충남 의정회보 창간 <2013.11.>

의정활동의 새로운 소통창구 될 것

2013년 우리 충남은 80년의 대전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며 내포시대를 열고 힘찬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의미 깊은 내포시대 개막원년이 지나기 전에 충남의정의 소식창구가 될 「충남의정회보」가 창간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도의회는 1952년 5월에 첫 문을 열어 진갑(進甲)의 세월동안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충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견제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충청남도 의정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과 충남의 내일을 주도할 「내포신도시」건설 추진, 그리고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2010 세계대백제전」,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 개최에도 큰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지역 발전과 도의회가 본궤도로 자리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210만 도민들에게 지면을 빌어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의정회보」가 지속적으로 발간되면 의정회의 활약상과

도의회 모습을 도민에게 온전히 알려 의정활동의 새로운 소통창구로 충남도의회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의정회보」의 창간과 함께 나날이 발전하는 '충청남도의정회'의 모습도 그려집니다.

다시한번 「충남의정회보」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충남 의정회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신문 창간 25주년 <2013.12.2>

내포시대 중심 지역언론으로 우뚝서길

홍성지역 대표언론으로 올바른 여론형성과 유익하고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여온 「홍성신문」의 창간 25주년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홍성신문」은 그동안 독자들의 눈과 귀가 되어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면서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참언론의 자세를 보임으로써 지역의 화합과 소통에도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창간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결 같은 마음으로 주민의 알권리와 지역발전에 힘써 오신 '윤두영'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홍성신문」 가족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정론지로서 주민과 독자들을 위해 책임성 있는 자세로 건전한 여론문화를 선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소외된 이웃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유도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한번, 「홍성신문」의 창간 25주년을 축하드리며, 새로이 시작된 내포시대의 중심 지역 언론으로, 또한 독자들에게 더욱 신망이 두터운 신문으로 더욱 발전해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충남음악 60년사 발간 <2013.12.13.>

도민과 함께한 음악역사의 기록

충남음악협회의 창단 60주년을 기념하는 「충남음악 60년사」 발간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남음악협회는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던 1953년에 창단되어 질풍과 같은 현대사의 궤적 속에서도 도민들에게 음악을 통해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되어 오셨습니다.

의식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음악과 같이 살아갑니다. 즐겁고 기쁠 때나 마음이 울적하고 슬플 때나 위로받고 싶은 때나… 음악이 없다면 세상은 정말로 삭막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즐거운 시절도 있었지만, 충남음악협회의 순수한 활동은 도민과 언제나 함께 하며 큰 힘이 되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60년 세월동안 꾸준히 활동하신 충남음악협회 회원 모두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충남음악 60년사」의 발간은 인간으로 치면 환갑의 나이인 긴 세월 동안 충남음악협회의 활약상을 책으로 모두 담는 일인데 다소 벅찬 일이기도 하지만, 빛바랜 사진처럼 낡아버리기 전에 기록물로 오롯이 담아 후세에 남기는 것은 음악사적으로나 기록물의 가치로도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더구나 문화감성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세대에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도민들의 감성충족을 위해 변함없이 음악활동을 하는 충남음악협회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충남음악협회의 창단 60년과 「충남음악 60년사」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책자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음악과 충남음악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7호 충남문화 발간 <2013.11.>

'충남문화의 힘'은 '행복충남'의 밑거름

우리지역의 소중한 문화를 담아놓은 「제17호 충남문화」의 발간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인간이 이룩해낸 물질적·정신적 모든 것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가 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다양하고 풍성한 양질의 문화를 통해 우리사회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지역의 향토문화발굴과 뜻 있는 문예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치시고 있는 '15개 문화원'과 '충남문화원연합회'의 활동은 실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충남의 문화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준호'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장님을 비롯한 도내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에서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시며, 문화의 힘은 우리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정부도 '문화융성'을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찬란했던 고대 백제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5천년의 한민족 역사만큼이나 깊고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곳곳에 살아남아 숨 쉬고 있습니다. '문화의 힘'을 펼칠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충남문화의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실천하는 것일 것입니다.

도내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토문화자료 수집과 발굴, 각종 문예행사와 문화참여·교육사업 등의 다양한 노력이 '충남문화의 힘'을 강화하여 '행복충남'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문화원 가족여러분의 노력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풍성한 충남문화가 발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충남문화의 융성과 문화원의 활동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열일곱 번째 「충남문화」 발간을 축하드리며, 우리지역의 소중한 문화를 소개하고 도민의 문화의식을 고취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와 '15개 도내 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문화원 가족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향우보 발간 <2014.4.>

700만 충청향우와 500만 충청인의 소통의 장

「충청향우보」의 발간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충청지역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정수도로, 첨단과학 선도지역으로, 최첨단 의료산업단지로 그리고 환(環)황해권시대에 전초기지로 발 돋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남과 호남 간의 고질적인 지역대립구도 속에 소외되었던 곳이 우리 충청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지역주의는 구시대의 유물로 폐기되어야 마땅하지만, 지역의 역량에 걸맞게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동시대의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충청향우보」의 발간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700만 충청향우들과 500만 충청인의 소식과 의견을 담아 소통의 폭을 넓히고 지역발전을 위한 건전한 여론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충청향우와 충청인의 정보전달 매개체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충청향우보」 발간을 축하드리며, 충청지역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신 '오장섭' 제7대 충청향우회 중앙회 총재님을 비롯한 충청향우 가족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충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길에 충청향우회의 역할이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충청향우회 중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향우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안신문 창간 24주년 <2014.5.27.>

정도를 지키는 올곧은 지역신문으로 계속 정진하길

태안신문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알찬 소식을 전달하며 지역의 건전한 여론형성에 이바지 해 오신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의 전합니다.

사실 우리사회의 많은 지역 언론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부활과 태동을 같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만큼 자치민주주의와 많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중앙언론의 위력, 디지털 방송미디어의 발달, SNS의 활성화 등으로 대변되는 언론매체의 환경변화 속에서도 지역신문이 존속하는 이유는 지역 특유의 관심과 이슈를 전달하며 비판과 감시를 하는 등 지역 언론의 순기능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태안신문은 지방자치의 부활과 맥을 같이해 오면서 지나온 24년의 세월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 내 존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올바른 정보전달을 하며 지역 언론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독자들의 편에 서서 지역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더 낮은 곳을 바라보며 지역사회에 더욱 많은 온정이 흐를 수 있도록 대중매체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도정과 의정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태안신문의 창간 24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지역의 정론직필 언론으로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신문사로 지속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1C 부여신문 창간 10주년 <2014.6.24>

초심을 잃지 않고 공명정대한 신문으로 정진하길

백제의 혼이 살아 숨 쉬는 고도(古都) 부여에서 정론직필의 지역 언론으로 정진하고 있는 「21c 부여신문」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력한 고대국가로 성장했던 백제의 힘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생하는 데 있었습니다. 백제인의 당차지만 온화한 성품, 자신의 개성 있는 문화를 신라, 가야, 왜에 전해준 국제성과 개방성은 우리의 자랑이며, 오늘의 우리가 이어가야할 역사이고 기풍일 것입니다.

「21c 부여신문」은 그런 대백제의 역사와 정신을 밑바탕으로 창간하여 10년의 세월을 한 결 같이 보내왔습니다. 바로 독자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산업 등 폭넓은 분야에서 올바른 정보제공과 함께 날카로운 비평과 담론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지역여론 형성에 큰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황규산' 대표님을 비롯한 「21c 부여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더 나는 지역 언론으로서의 소임을 고민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10년을 넘어 100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신문으로 발전해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제9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2012. 7. 12 ~
2014. 6. 30

이준우 의장 연설문집

언론보도 기고문

금강일보 <2012.11.20.>

지방자치의 주체는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 된지도 벌써 21년이 지나고 있다. 중간에 4년을 쉰 것을 제외하면 무려 20년 가까이 지방의회에 몸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1년의 지방자치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변한 게 없다'라고 말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 같다는 얘기다.

지방의원의 힘만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철저를 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충남도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이 되면서 시작한 일이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주민의 제보를 받아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 달간 기간을 정하여 주민 제보를 받아 보았지만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은 제보는 겨우 3건에 불과했다.

35개 일간지와 방송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와 도민들이 즐겨보는 도정신문을 통해 홍보를 했지만 결과는 낙제점 수준이었다. 인근 대전시의회도 시민 제보를 받았지만 제보는 십수 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풀뿌리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정작 주민들은 지방자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주민들이 방관하는 지방자치는 발전이 없다.

그렇다면,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지방자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된 데서 찾을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을 받지 않으면 당선되기 어

렵다보니 지역구 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예속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방정치가 중앙 정치에 끌려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둘째, 우리 의원들의 책임도 크다. 전국의 지방 의원은 3649명(시·도의원 761명, 구·시·군 의원 2888명)에 이른다. 많은 의원들이 전국에서 활동하다 보니 별의 별 사건(?)사고가 수시로 일어난다. 좋은 일 보다는 나쁜 일, 잘한 일 보다는 잘 못한 일이 더 확산되고 회자되는 것이다.

셋째, 전문적인 보좌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9명에서 13명 정도의 보좌관을 두고 있지만 지방의원은 보좌관이 없어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 지역구의 작은 민원부터 정책적인 커다란 현안사업까지 일일이 챙겨야 하는 것이다.

넷째, 언론의 보도태도와 주민들의 성향이다. 언론은 잘한 일보다는 잘 못한 일에 대한 보도 비중이 높다. 주민들 역시 잘한 일보다는 잘 못한 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오래 기억하게 된다. 이러한 주민들의 성향에 맞추어 언론사는 잘한 일보다는 잘 못한 일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보도하는 경향이 많다.

우리는 흔히 지방자치를 주창하지만 중앙 정치에 너무 많이 학습되어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성향을 우리 지방 정치인의 힘으로 바꾸기란 그리 녹녹한 일이 아니다. 선거와 주민소환이라는 방법 외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먼저, 중앙당의 정책에 의해 지방의원의 당락이 좌우되는 현상부터 없애야 한다. 이런 일은 지역주민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당선시켜야 한다. 중앙 정치에 예속된 고리를 하루 빨리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만이라도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또 최소한의 전문적인 보좌 인력도 지원해야 한다. 대다수의 주민은 지방의원에게 보좌관을 두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되돌아가는 편익이 훨씬 확대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제도적 보완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이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충청투데이 <2013.3.14.>

내포신도시의 첫 봄을 맞으며

봄 냄새가 가득한 냉이를 넣어 끓인 된장국이 한층 식욕을 돋우는 희망의 춘삼월이다.

여기저기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충남도청이 80년 만에 대전 시대를 마감하고 도민의 품으로 돌아온 내포신도시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치고 있다.

도청과 교육청에 출근하는 공직자들, 새로이 개교한 내포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 각종 공사차량의 이동, 아파트 건설 현장 등 내포의 봄은 생기가 살아있고 역동적이다.

내포신도시는 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 충남의 행정중심지를 옮긴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 발전전략이 한계에 달했고 나라 전체적으로 폐해가 나타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더불어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된 중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내포신도시는 충남의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21세기 환황해권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충남 발전의 백년대계를 펼친다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지역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도청과 교

육청 등 중추 행정기관이 이전하였지만, 내포신도시 개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지역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타운과 더불어 이전해오는 공무원이나 도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교육·의료·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이 빠르게 조성돼야 한다.

그 중에서도 우수한 학교를 유치하고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갖추는 일은 '나 홀로'가 아닌 가족 단위의 이주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우선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반시설을 토대로 체계적인 투자 유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자족도시로 커 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개발계획 또한 마련돼야 할 것이다.

신도시의 초기 입주가 완료되고 안정한 후, 기업 입주나 외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도시 발전 유인책을 수립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변도시와의 동반성장 발전 전략과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홍성·예산 구도심 공동화 방지 대책 등을 통해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광역도시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내포신도시 중심의 광역 교통망을 서둘러 구축하고,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항만과 물류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내포신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아무리 면밀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들의 힘만으로는 다양성 있는 환경을 만들기 힘들다"는 미국의 건축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말처럼 도시계획은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주민들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편안하고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이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옷을 잘 입을 수 있고, 마지막 단추를 끼울 수 있다. 올해 내포신도시의 봄은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충남 재도약의 첫 단추이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내포신도시를 210만 도민 행복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인 첫 단추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춘삼월의 따스한 햇볕이 이 땅의 모든 생명체에게 골고루 비치듯이, 충남도의회는 210만 도민들에게 희망과 따뜻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내포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역량과 지혜를 모을 것을 다짐한다.

충청투데이 <2013.5.1.>

효도하면 모두가 행복해 집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으로 아름다워지는 '가정의 달, 5월'이 돌아왔다.

가족 구성원이 사랑으로 뭉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효를 실천하는 마음에서 시작 된다. 효는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이요 인류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보배이다. 우리나라는 효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 가족과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근간을 이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안에서 가장 큰 어른이며, 집안의 기둥인 노인이 그 역할과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사회의 제1 덕목이었던 효 사상에 대해 새삼 되돌아본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을 삶의 터로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은 허전하다 못해 외롭기 그지없다.

자식들의 전화 한통이라도 기다려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며, 별일 없이 오순도순 살기를 바라는 것이 끝없는 어버이의 마음이다. 10달 동안 좋은 음식 가려먹고, 좋은 생각만 하며,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해도 한없이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과 달리 우리들의 부모님에 대한 효의 현실은 어떠한가?

부모는 스스로가 돌봐야 한다는 '효도는 셀프'라는 말이 생길 정도다.

노후준비를 철저히 해 아프지 말아야 하고, 늙어서도 돈이 있어

야 존경과 대우받는 부모가 되는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민족은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 신체의 모발과 피부는 부모님에게 받은 것)라는 가르침과 같이 부모에게 드리는 '효'를 모든 덕목의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조상숭배와 경로사상 등 '효'에 뿌리를 둔 우리 민족의 전통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필자는 평소에 늘 관심이 많았던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인 효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자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에 걸쳐 효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효'의 가치를 재발견했다.

효는 어떤 종교의 주장도 아니며, 어떤 특별한 사상도 아니다. 인간이면 행해야 하는 기본 상식이요, 도리이다.

孝(효)라는 글자는 老(노인노) 아래 子(아들자) 가 합쳐진 것으로 자식이 노인을 떠받드는 모양이다.

우리는 효를 단순히 부모를 봉양하는 것으로 부모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효는 부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을 다하는 효는 자식들이 덕을 받게 해주기 때문이다.

물질주의를 추구하던 서구사회도 다시 전통사상의 중요성을 느껴 회귀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그와 반대로 전통사상을 버리고 물질만 추구하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 사상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나 최고의 사상적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다.

이처럼 효라는 것이 부모를 모시는 가정의 규율만이 아니라, 사회통합,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인류를 통합해낼 수 있는 위대한

가치인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세대 간에 대화가 단절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효의 중요성이 간과되면서부터 세대 간의 단절현상이 더 심화했다고 생각한다.

효를 통해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고, 가정의 복원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정의 달 5월, 효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

시사종합신문 News21 <2013.8.7.>

발전소 주변 거주자에 대한 지원과 배려 필요

유난히 더위가 예상되는 올 여름 일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국내 전력 생산의 '최후의 보루'로 떠오른 화력발전소는 그 어느 때보다 쉴 틈 없이 전력을 생산 하고 있다.

충남 도내에는 보령, 서천, 당진, 태안, 4개 시군에서 총 29기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또 신보령화력 1, 2호기와 당진화력 9, 10호기가 건설중으로, 전국 화력발전설비의 50,5%에 달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화력발전소가 입지하고 있다.

화력발전소의 경우 인근 주거지에 대기오염, 전자파, 송전탑 설치에 따른 경관훼손 등의 피해를 주고 있으며,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온갖 공해의 종합백화점이다.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독성 수은 분진을 배출한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노출될 경우 농작물, 가축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사람에게는 천식이나 각종 호흡기 질병과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 대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반경 5km 이내의 지역은 전기요금 보조, 공공시설물 설치, 소득증대사업 등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원대책은 발전소 인근지역의 피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다수의

주변지역 주민들은 그 동안 지원을 받은 혜택이 미미하다는 인식이 많고, 생활환경과 생활여건의 변화에 관해서도 환경 훼손과 의료 및 교육 문화 환경 등에 대해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석탄 화력발전소 기점 반경 20km의 인체피해와 작물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우리나라의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범위(5km 이내)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필자의 고향인 보령의 경우 석탄을 원료로 하는 보령화력발전소로 인해 5km 이상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은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지원 거리를 반경 5km로 규정한 것을 7.5km 이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국내 최대용량의 신보령화력발전 1, 2호기가 2017년까지 건설중이므로 완벽한 오염방지 시설 구축 및 주변 지역 지원범위 확대, 다양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대책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아울러 우리 충남은 전국 화력 발전량의 40%를 차지함에 따라 2007년부터 수력발전, 원자력발전과 같이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입법을 주도하였고, 2011년 3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4년 1월부터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그러나 세율이 1kwh당 0.15원으로 원자력발전소 0.5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으로, 향후 형평성 차원에서도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한 세입은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의 지원과 함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최우선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우리 지역의 화력발전소는 지역사회와 함께 번영하는 발전소가

되어야 한다. 발전소가 증설되고 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주변지역 협력사업비도 당연히 증액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지역주민과 진정으로 한 가족이 되어 상호 공존하는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전소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충남일보 <2013.9.3.>

백문이 불여일견, 의료관광객 유치 시동

러시아인, 우리 도 의료원에 의료관광객 유치

긴 장마와 고온다습한 날씨 탓에 어르신과 어린이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건강관리하기가 힘들며, 사람들은 불쾌지수가 높아 쉽게 짜증낸다. 그런데 절기상 "처서"가 지나면서 조석으로 시원한 바람이 일어 이제는 좀 살 것 같다고 들 한다. 우리 옛 조상들은 어떻게 알고 절기를 만들어 슬기롭게 생활해 왔는지 정말로 존경스럽다.

충남도의회 대표단의 단장으로 우리도의회와 교류협정을 맺고 상호교류를 해오던 러시아연방 아무르주 의회와 중국 조선족자치주 인대상무위원회의 초청으로 지난 8월15일부터 8월24일까지 9박 10일간 해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을 다지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러시아 아무르주는 폭우로 인한 많은 지역이 침수되고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도의회 대표단의 방문이 주민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위안이 되었다는 감사의 인사를 들었으며, 우리도에 많은 지역관계자들의 문화 및 의료관광을 와 달라고 청하여 흔쾌히 러시아연방 아무르주 의회 지야꼬노브 꼰쓰탄찐 웍토로위츠의장을 포함한 방문단이 먼저 의료관광을 겸한 답방으로 오는 9월30일부터 10월6일까지 한국을 방문을 약속 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에서는 해외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에서는 통역요원에 대한

수당단가까지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의 종합병원과 의료원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객을 맞을 준비는 미흡한 단계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고, 의료수준이 낮은 러시아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내 의료원과 종합병원에서는 많은 외국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또한, 방문단은 우리도의 현안사업인 담수호 등의 수질관리와 이용개발 그리고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도민들에게 시급한 정책으로 보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깊으며, 세계 최대 저수량과 호수로 유입되는 강이 330여개 이르면서 앙가라강으로만 유출되는 특유한 세계문화유산인 바이칼호에 대한 수질관리실태 등을 견학하기 위해 주이르쿠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통해 이르쿠츠크주 의회 의장과 이르쿠츠크주 천연자원부장관과의 오랜 시간동안 대화를 나누고, 바이칼호 현장을 답사하였는데 보존과 개발이란 딜레마속에 러시아 연방정부에서는 러시아만의 호수가 아닌 세계인의 호수로 관리하기 위하여 바이칼호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존하는데 우선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바이칼호에 대하여 13개 분야의 연구소를 연방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단순히 수질관리와 이용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도와 비교할 때 우리가 앞서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앙가라강의 유속이 빠른 것을 이용하여 4개소의 수력발전소가 설치되었고 강 유역을 연계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상요금의 1/3내지 1/5의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도에는 화력발전이 전국의 70%가 이곳에서 생산되는데 발전소 인근뿐만 아니라 고압선로 인근의 지역주민들까지 일정금

액의 전기료가 할인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우리도의회와의 우호교류단체간의 교류를 통해 지방정부차원에서의 매우 유익한 해외출장이 되었으며 충남도정이 진정으로 도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충청투데이 <2013.9.12>

더할 나위 없는 한가위가 되려면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표현하는 말로 이보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표현은 없을 듯싶다.

추석은 잘 알다시피 신라시대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그 풍습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고유한 명절로 인식된다.

추수에 대한 감사와 음식을 나누며 가무(歌舞)와 함께 각종 놀이가 곁들어 지는 농경사회 풍습이, 압축성장의 혜택으로 불과 몇 년 사이 스마트폰 속의 화면으로 명절 풍습을 검색하고 신기해 할 정도로 우리사회는 정말 상전벽해(桑田碧海) 했다. 그렇더라도 한가위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이맘때가 오면 마음이 넉넉해 지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렇다면, "더도 말고 덜도 않은"기분 좋은 추석명절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린시절에는 추석빔을 기다리며 마냥 좋아라 했지만 세상은 단순하지 만은 않으니 문제인 것이다. 준비한 만큼 대처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세상을 볼수 있는 것이니 명절을 맞이하기 전에 살펴보아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민족의 대이동'으로 일컬어지는 엄청난 교통량에 대한 대처이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추석명절에 통상 교통량이 최고점을 찍는다. 2012년 추석명절기간 이동인구는 2,915만 명이었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인원이다. 매년 교통종합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책을 기대해 본다. 한편, 다행히도 올 추석은 긴 연휴가 예정되어 있어 교통량 소화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추석명절 서민경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올 여름은 긴 장마, 폭염 등 기상악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상승 가능성이 어느 해보다 크고 추석 성수기 개인서비스요금 등의 불안 요인이 있는 만큼 안정적 물가관리에 대한 지혜가 요구된다.

특히, 이상기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농가를 살리기 위한 직거래 장터 활성화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올 추석명절 선물은 전통시장에서 우리지역 특산물을 준비하자고 제안해 본다.

셋째로, 즐거운 추석명절 '안전'하게 보내기이다. 고향가는 길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차량 점검, 빈집 관리, 벌초시 안전사고 예방, 음주사고 방지 등 안전에 대한 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넷째로, 함께 나누는 훈훈한 명절을 보내자는 것이다. 우리도내에는 8,500여개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57,327명의 기초생활수급자, 81,230명의 독거노인, 16명의 소년소녀가정아동, 585명의 가정위탁아동, 655명의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이 있다. 자칫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계층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 뿐 아니라 시민단체를 비롯한 이웃 주민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진정 풍성한 추석명절을 완성할 수 있다. 함께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인정(人情)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덕담 한마디씩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교통난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민족이다. 추석명절의 이동은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삶과 문화와 정치 담론까지 대이동한다. 부모님을 뵙고 고향 주민들도 만나고 각종 모임에도 참석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내며 소통의 장을 한판 벌일 것이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추석명절에 어울리는 좋은 덕담 한마디씩 준비를 해 보자는 것이다. 진정한 훈훈한 명절 준비는 일단 이것부터 준비 하는 것이 좋겠다.

올 한가위 보름에는 우리 선조들께서 언제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기만을 바랐던 마음처럼 도민 모두가 항상 넉넉하고 풍성한 나날 보내기를 소원한다.

충남일보 <2013.10.7.~ 8.>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당면과제와 대안

1948년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도입하고,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4월 최초로 지방의회선거를 통하여 처음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1961년까지 지속되었다.

그후 군사정부에 의하여 폐지되었던 지방자치가 1991년도에 부활하여 올해로 23년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의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자치단체장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기관분리형 지방자치 제도를 택했지만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은 그 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지방의원 의정비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지만 중앙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의정비 수준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회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집행기관을 통제 또는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로는 각 나라의 지방의회의 조직구조와 운영방식은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특례로 일반직을 제외한 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곳도 있지만,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의회 공무원의 소속감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 직렬의 신설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일본의 지방정부는 부지사, 부시장 등 보조기관의 임명시, 로스엔젤레스 시의회는 집행부의 주요 보직에 대한 임명시, 지방의회가 동의권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지사가 감사위원장을 임명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된 예가 있을 뿐인데,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지방의회 임명동의권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에 적극적인 예산안 수정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은 가능하나,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예산안 수정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런던광역시 의회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의결로 어떠한 예산안도 수정할 수 있고, 동일한 의결정족수로 단체장의 발전전략을 거부할 수 있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지방의원들이 보좌관을 자신들의 개인비서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으나,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법보좌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방의원이 하는 업무가 국회의원과 다르지 않고 업무량이 많은데도 현재 국회의원은 의원 1인당 보좌 인력을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는데 반해 지방의원은 보좌관을 1명도 둘 수 없는 것은 상식과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결정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결정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 내지 4년으로 바꾸되,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은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하여 지방의원들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지적한 지방의원 의정비 개선은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집행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으나, 부지사나 국장급 급여에 비해 낮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지방의원에게 과도한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력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의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정경비 보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의 보수도 지방의원들의 보수 결정과 같이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뽑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이 소신 있게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공천제를 명시하여 기초 지방선거에 정당에게 공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바람과 고충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시키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중앙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신,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이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한 공론의 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외국 사례에서처럼, 의회도서관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의회 간행물이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개방하는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지역주민들 간의 긴밀한 교류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영국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1215년 권리대헌장(Magna Carter)의 시대로부터 환산하면 800년 이상, 미국은 1776년 독립선언으로부터 200여년이 소요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이제 20년을 경과하였다는 점을 보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몇 가지 제안들이 받아 들여 진다고 해서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정착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을 평가하고 냉소적으로 바라보았던 의정활동 내용의 부족, 외유성 해외 연수, 지나친 자기 과시,등 불신을 없애고 지방의회의 의정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원 개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의회 스스로,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책무와 윤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이에 위반되는 경우에 대한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2만 불의 덫에 걸려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중앙집권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지방분권 시대로, 지방의회가 지역의 정책결정 주체로서 중요한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

다시말해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액턴 경의 명언대로, 지방의회는 제도적 흠결을 보완한 권한 강화를 통해 권력분립에 따라 집행부에 대해 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는 지방의회의 특권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신해 반드시 해야 할 책무인 것이다.

이 글을 기고하면서, 그동안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수레바퀴로, 무거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짊어지고 오면서 한쪽으로 치우치고 쏠리면서 서로의 잘못이라고 남 탓만 하던 지난 22년을 뒤돌아보고, 똑같은 수레바퀴를 통해서 무거운 중앙정부의 짐을 내려놓고 210만 행복한 도민을 싣고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충청남도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금강일보 <2013.10.31.>

노인문제의 해결은 효로부터 시작해야

지난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었다. 어버이날이 5월에 있는데 노인의 날을 별도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노인에 대한 공경심 함양의 목적도 있겠지만, 노인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을 법 하다.

충남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2년 말 현재 31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5.3%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물론 충남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선 정부에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우리 충남의 경우 눈여겨봐야 할 통계가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전체 자살률은 2위이고, 노인 자살률은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매우 부끄러운 통계가 아닐 수 없다. 노인들이 직면해 있는 현실을 흔히들 '노인 3고(苦)'라고 일컫는다. 병마로부터 고통 받는 병고(病苦), 가난해서 받는 빈고(貧苦), 그리고 혼자 외로워서 받는 고독고(孤獨苦)를 의미한다.

필자는 앞에서 말한 노인 3고(苦)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가난해서 겪어야 하는 빈고(貧苦)라고 생각한다. 최근 유엔인구기금(UNFPA) 등이 노인복지 수준을 수치화해서 발표한 '글로벌 에이지와치 지수 2013'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91개국 중 종합 67위에 머물렀다. 특히 소

득분야 지수는 91개국 중 최하위(90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 수준은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최하위권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도 노인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충남도는 '도민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2. 2월)하였고, '광역정신센터'를 운영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또 행복경로당(139개소) 및 독거노인 공동생활제(26개소)를 운영 하는 등 노인복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노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인 '孝' 문화의 계승·발전에서부터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분들은 살아오면서 노후 대비는 생각지도 못했고, 자식을 믿고 아예 하려고 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른다. 오직 자식을 위해 온갖 희생을 다했고 모든 걸 다 물려주신 그런 분들이시다.

필자는 앞에서 노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가정에서부터 孝 문화를 통하여 시작하고 해결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를 실행하는 첫 번째 과제로 가칭 생활 효도비 지급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녀가 직접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정기적으로 찾아뵙기 쉽지 않고, 또한 부부 간의 갈등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와 직장이 매개자 역할을 하여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현재 몇몇 중견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 효도비제도는 기업이 일정 비율을 보조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직장에서 매월 봉급 지급 시에 원천징수한 후 부모님 통장에 대신 입금하는 방식이다. 우선, 충남도 공무원이 앞장서서 생활 효도비 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온 국민에게 효 실천 운동의 기폭제가 되

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 부모님이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노인문제 라고 인식하여, 孝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반포지효(反哺之孝)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어린 까마귀가 다 자란 후에 어미에게 먹이를 날라다 준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불효하는 사람한테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을 한다. 모두가 심청이가 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하나 만은 가슴 속에 되새기면서 살았으면 한다.

대전일보 <2013.11.28.>

교육용 전기요금에 좀 더 인심 써야

지난여름은 어느 해 보다 무더웠다. 연일 폭염으로 도내 양식장에선 물고기가 폐사하고 축산농가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는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업 또는 단축수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학교에선 전기요금 부담으로 제대로 냉난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도 낡은 교실에서는 입김이 나오고 학생들은 추운학교에 가기가 싫어진다. 이것이 냉난방비 부담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는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올 겨울도 때 이른 동장군이 벌써 찾아왔고, 전력난을 우려한다는 보도가 다시 이어졌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11.21일에 전기요금의 평균 5.4%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교육용 전기요금은 동결한다는 소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전력요금 가격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비판의 소리를 논외로 하더라도, 일선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예산을 분담하는 지자체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음에도 동결에 그쳤다는 점에서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교육용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필자가 회원으로 몸담고 있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난 11.18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내용인즉,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 교육용은 학교수업이 전력 소비가 집중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이며 필자도 이 주장이 논리적이며 매우 설득력 있다는 생각으로 채택에 찬성하였다.

한국전력통계(한국전력공사, 2013.5.刊)에 따르면, 교육용 전기요금의 1kWh당 판매단가는 108.8원으로 산업용의 92.8원보다 16원이나 비싼 실정이다. 또한 사용량과 비용부담측면에서도 교육용은 우리나라 총소비전력량에서 1.7%로 미미하고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실제사용량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산업용의 전력소비량은 55.3%를 차지하지만 부담비중은 51.8%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분담을 덜하고 있는 편이다.

한편, 한국교총의 지난 4월 전국 1,058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96.7%가 전기요금이 가장 부담스러운 공공요금이라고 응답하였고, 실제로 전기요금이 학교운영비 공공요금 지출액의 40%이상을 자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더 이상 교육현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실제로 교육현장을 가보면, '찜통 교실'과 '냉동교실'을 쉽게 체험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단지 찜통교실과 같은 문제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시설현대화 사업, 스마트러닝,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확대 등으로 학교의 전력수요량은 매년 증가되는데 학교재정은 제약되어 있어 더욱 많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교육투자활동의 위축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산업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과 높은 분담비율, 학교재정부담의 가중으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일선학교와 교육청, 일부 지방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전기요금을 산업용수준으로 인하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교육용 요금을 동결하고 타 용도의 전기요금을 인상한 지난 21일의 전기요금조정 개편 발표는 매우 안타깝다. 일선학교와 학부모, 지자체의 설득력 있는 인하요구를 외면한 것은 행정의 실기(失期)가 아닐 수 없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고, 미래를 위한 살아있는 투자라고들 말한다. 수익자부담원칙, 상대적형평성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자라나는 어린학생들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도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 하는 것이 옳다. 말 뿐이 아니라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를 해야 하지 않는가. 내 자녀가 냉동고에서 떨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충남장애인신문 <2014.4.26.>

여러분께 힘이 되는 충남도의회가 되겠습니다.

충남 장애인과 가족여러분, 34번째 '장애인의 날'을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장애인 여러분이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큰 용기를 가지는 '희망찬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고, 그럴 때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몇 년 사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을 제정하였고, 발달장애인법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도 이에 맞추어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는 2013년부터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장애인복지정책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해소를 위해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달에는 '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직은 부족하지만 점차 개선하려는 모습은 다소나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는 앞으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이준우 의장 연설문집

발행일 : 2014년 11월

발행처 : 충청남도의회 총무담당관실

비서실(☎ 041-635-5007)

인 쇄 : 동방상사

※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충청남도의회에 있습니다. 〈비매품〉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